

요약본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 Contents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 예방교육

계양초 생활지도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08
동부초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10
약산초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입니다.	12
영가초 나눔과 배려의 감성교육으로 학교폭력 Zero!	14
이화중 바르고 고운 언어습관이 우리를 지킵니다.	16

### 인성교육

명신초 콩깍지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18
장유초 친구의 올타리가 되어주며 존중과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20
영천중 인성교육으로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22
인천여상 폭력이 아닌 문화예술로 우리를 표현해요!	24

### 실태조사 활용

가장초 주기적 실태조사로 학교폭력을 미리 발견합니다.	26
대서중 1차 실태조사 후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28
동변초 학교폭력 위험군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로!	30

### 상담 및 신고체계

규암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도와주세요」	32
부성중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예스폰!	34
중곡초 학년별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 밀착적인 생활지도 실시	36
진교중 표준화 성격 검사와 집단 상담을 통해 친구가 된 우리	38

### 학생자치활동

가좌여중 학교의 억압이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폭력예방!	40
---------------------------------	----

<b>또래중재</b>	
저동중 학급의 일은 「또래중조인」에게 맡겨주세요!	42
조동조 아껴주고, 나눠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자!	44
연현중 분쟁이 있을 땐, 먼저 '멈춰!' 그리고 '친구야 변호해줘!'	46
<b>지역사회 연계</b>	
고척고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함께하는 생활지도	48
<b>대안교실</b>	
대성여중 「숲 학교」에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키워요.	50
두송중 대안교실 덕분에 이제 담배도 안 피워요!	52
성포중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우는 「꿈 키움 교실」	54
옥천상고 1박 2일 아름다운 비행 「힐링 캠프」	56



남양주시 갈등조정능력 향상으로 학교폭력 해결을 모색하다.	60
송파구 학교폭력은 학교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	62
순천시 전문 상담사, 또래상담자,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다각적 접근	64
안산시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로 학교주변 폭력예방	66
안양시 학교폭력 체험관과 뮤지컬을 통한 인식 제고	68



## 우수사례. 특별프로그램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부모님과 함께 받는 교육 「내 믿음이 나를 「이룸」」	72
대전광역시교육청 가해학생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솔 센터」	74
울산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좋은성품마을 성품지구대」에서 좋은 성품 만들어요!	7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생과 학부모를 변화시키는 「부자일체 감동캠프」	78



## 우수사례. 수 기

곽상학 소통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다!	82
구성아 스스로 느끼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왕따 문제의 해법입니다.	96
김대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이 있는 영어 교실」	104
김동희 저 손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	128
김창훈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이해와 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이 먼저입니다.	134
김현정 가해학생도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148
박용호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피에로 형사님	160
유지원 드라마수업을 통해 공감과 변화를 이끌다.	174
이지연 단계적인 활동으로 따돌림 문제를 해결한 선생님의 이야기	192
장민경 역할극에서 UCC 제작까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반!	210
홍영명 자살도구를 들고 찾아온 학생을 보호한 배움터 지킴이	226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우수사례. 학 교

## 생활지도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계양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계양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최병민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번길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석경해	032-515-4647	hai70@naver.com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543명		24	35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학년도 교과부 생활지도 정책연구학교로 지정 운영</li> <li>- 2012학년도 교과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지정 운영</li> <li>-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포함되고 있으나 서울, 김포의 경계에 위치한 도심형 전원도시로서 지역과 사회의 지원이 취약</li> <li>- 보다 나은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의 전 구성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총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li> <li>- 주변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도심 속의 전원학교로 탈바꿈 모색 시도</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추진과제 1」 계양 Styl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모습
홍보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 교직원 연수(10회), 워크숍(6회), 법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관련 717시간 이수</li> <li>●학생 : 한국법교육센터 전문 강사 연수(6회), 대전 솔로몬파크 견학(2회), 폭력예방교육(3회)</li> <li>●학부모 : 강사 초청 연수(5회), 가정통신문(8회), 학교홈페이지, SMS 문자메시지 등 활용</li> </ul>	

#### 나. 「추진과제 2」 소통·참여·화합을 위한 계양 Style 프로그램 운영

추진과제	추진내용	추진모습
Team Work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학교규칙 개정 및 학생생활협약 제정</li> <li>●참여를 위한 공동체생활협약 프로젝트 수업 실시 : 생활협약 서약식, 학급헌법제정, 수업 계획 및 실시</li> </ul>	
Yes I do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자·손녀 학교 방문의 날 : 학급별 자치회를 통하여 활동 프로그램 전개</li> <li>●학교 생활(예절·안전) 지킴이 활동 운영 : 등하교 시간, 점심, 방과후 시간 질서 및 안전 지도</li> <li>●학생자치동아리 주관 학교 인성 방송 조회 운영 – 매월 2,4주 월요일 학생방송 시간</li> </ul>	
Law Keep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학생생활 평점제 운영</li> <li>●전교어린이회와 연계하여 학생자치법정 조직 및 운영</li> <li>●학생자치법정 동아리 리더쉽 캠프 실시 : 법교육특강, 모의재판시연, 퀴즈대회 등</li> </ul>	
Enjoy together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함께하는 계양산 둘레길 걷기 : 자치회 중심 조편성, 활동 프로그램 준비</li> <li>●텃밭가꾸기 활동 : 자치회 역할을 분담하여 텃밭가꾸기 활동 참가</li> <li>●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전개</li> </ul>	



### III. 사업 효과

- 가. Team Work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칙 제·개정 및 학생생활협약안 마련·적용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또한 향상시킴
- 나. Yes I do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확대시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됨
- 다. Law Keep 프로그램인 학생생활평점제 및 법정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신을 극복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라. Enjoy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며 나아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Stop) 도움이 됨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동부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동부초등학교		학교장(직위)	박은실(교장)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부초등길 19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하은주	032-466-7461	mihwacd@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574명		25개	29명
학교소개	1. 구도심 저소득층 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계형 맞벌이 가정과·조손·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학생들은 대체로 순수하고 착하나 어려운 가정 문제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2. 문화나 교육환경 여건이 충분치 못하기에 2007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로 선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학교 앞 향촌 지구 재개발 완료와 함께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함 3. 학생 스스로 유해 환경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키우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은 학력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어 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성취 결과의 높은 성장을 가져옴			

### II. 주요 사업내용

####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환경 조성

- 유해매체·유해환경을 분별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홍보
- 유해매체 및 사이버 폭력 인식·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
- 행복한 지킴이 On-Line · Off-Line 환경 조성
- 바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동부 어린이 다짐 제정 및 지도
- 학생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기 위한 꿈 심기 프로젝트

####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적용 및 실천

- 지도 노소 추출을 통해 교과별 특색 있는 교수·학습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유해환경 대처능력 지도
- 학교폭력예방교육, 칭찬 씨앗 통장 활용, 친구사랑 주간 운영, 스스로 지킴이 활동, 질서지킴이 활동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및 활동 실천
- 학생 이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학교장과의 대화
- 행복한 학교 문화 『친구사랑 학교사랑 1박2일』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Network 구축

- 상담을 토한 소통 : 학생상담·학부모상담·찾아가는 상담
- 가정과 연계한 미디어 다이어트 day 실천하기
- 스쿨폴리스맘 운영·등하교 도우미 운영으로 유해환경 차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리지원·정서지원활동

### III. 사업 효과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환경 조성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내면화에 도움이 됨

- 학생이 유해매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향상되었고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함
- 동부 어린이 다짐을 통하여 바른 생활습관을 스스로 실천함

□ 체험 중심 프로그램, 유익환경 제공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

- 교수학습 전개·또래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으로 건전한 어울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함
- 칭찬통장 및 질서·안전 도우미의 활동으로 유해환경 차단 및 약속을 지키는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함
- 테마조회, 친구사랑 학교사랑 1박2일 행사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친구사랑 정신 내면화와 유익한 환경 체험의 기회가 됨

□ 교육공동체 Network 구축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Network이 구축됨
-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킴이 마인드 형성 및 유익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공동체 Network이 구축됨

□ 『유해환경 OFF! 유익환경 ON! 행복한 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여 2012 학업성취도평가에 높은 성취 결과를 얻음



꿈 심기 프로젝트



친구사랑 1박2일



정서지원 [B-boy 활동]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입니다.**

약산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약산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정병룡(교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돌말2길 7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진미영	032-434-5974(내선630)	jjinmy@dreamwiz.com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769	33(2개의 특수학급 포함)	46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으로 지역사회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음</li> <li>-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요가 높아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Wee 클래스를 운영함</li> <li>- 좁은 골목의 빌라 밀집 지역으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아 2개의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음</li> <li>-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및 영재교육 중심학교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음</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역할극 수업을 통한 인식 개선

- 역할극 수업 실시를 위한 교직원 연수
  - 역할극에 담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교육적 의도와 지도방향 안내
  - 각 학년 단위로 교직원 소그룹 연수 실시를 통하여 실제 역할극 시연
  - 역할극 시연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 공유
- 각 학급 단위 역할극 수업 실시
  - 각 학급 단위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역할극 수업 실시
  - 역할극 이후에 토론·토의학습을 연계하여 지도함
  -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의 각 역할에서의 입장과 느낌을 공유함

### □ 학생-교사-학부모가 연합한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실천 운동

- 학부모 교육기부단의 적극적 학교폭력예방 활동
  - 생활지도상담을 위한 대화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및 어머니 생활지도의 날 운영
  - 아침방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관련 수화공연
  - 전교어린이회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기부단이 연합한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캠페인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수호천사 활동
  - 수호천사의 역할 이해를 위한 학생 및 교사 교육 '선생님은 학생의 수호천사' 실시
  - 수호천사 목걸이 수여식 및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 학급별로 모든 학생이 1주일 단위로 순환하며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함



#### □ 학교폭력예방 UCC 제작 및 발표 대회를 통한 반성과 다짐 활동

##### ○ 학급 단위 공동작품 제작 및 발표

- 5, 6학년 대상으로 학급 단위의 공동작품 제작을 통하여 학급 결속력 신장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UCC 발표 대회
- 우수 작품에 대한 학급 단체상 시상 및 아침방송을 활용한 UCC 작품 방송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수업  
교직원 소그룹 연수



학급단위 역할극 수업 실시



학부모 생활지도의 날 운영



아침방송을 활용한 학부모 수화공연



학생-교사-학부모 연합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수호천사 목걸이 수여식 및 간담회

### III. 사업 효과

#### □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라는 공동의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함

- 학생-교사-학부모 간에 학교 구성원 공동체의식이 강화됨
-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과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괴롭힘의 악순환이 아니라 서로의 보살핌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형성됨

#### □ 분기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사례가 현격하게 감소함

- 1, 2, 3분기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예방의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남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학생과 소통·공감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짐
- 학교폭력 신고 빈도의 감소 및 학생들의 언어사용과 놀이활동이 순화됨



## 나눔과 배려의 감성교육으로 학교폭력 Zero!

영가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영가초등학교		학교장(직위)	권한조(교장)
주소	경북 안동시 서경지 8길 2호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감	홍성중	054-852-2324	hsj761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235명		12개	15명
학교소개	※ 영가초등학교는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 학생들이 저소득층 및 결손 가정 학생들로 자존감이 약하여 성취의욕이 낮아 어릴때부터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나눔과 배려를 통한 관심이 필요한 학교이다.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MOU 체결 및 유관 기관 협력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



#### 나. 나눔과 배려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1)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지 다지기 선서식
  - 나의 다짐 선서식    ○ 학교규칙 지키기 선서식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안동경찰서 초청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회 : 연 4회



##### 2) 소중한 나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 생명 존중 교육    ○ 자살예방의 날 행사



#####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 정신보건 협약식 및 상담 활동
  - 폭력성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치료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활동
  - 학교장과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 상담 활동

##### 4) 인성교육 주간 운영 프로그램

- 인성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교육주간
  - 친구사랑 주간 운영    ○ 2012 인성교육과정 운영    ○ 인성교육 주간 행사



- 5)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바른언어 사용 캠페인
    - 바른말 고운말 바른 언어 사용 실천 목걸이 제작 활용
    - 학교폭력 예방을 ‘영가바름이’ 행사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코칭 프로그램 운영

    - 감성코칭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요푸르미 원예치료 교실
      - 樂(악)동들의 난장판: 두드림 난타교실
      - 정서 순화를 위한 기타교실

7)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안동시 유소년 주말 축구 리그전
        - 토요 피구 동아리 활동      ○ 토요 Sport-day 매주 운영

8) 자존감 기르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나의 자존감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
          - 자존감 2배 업! 프로그램      ○ 함께하는 힐링캠프
          - 친구 사랑! 우리는 하나! 병영캠프
        - 내고장 역사 인물 탐방을 통한 인성 교육
          - 안동독립운동가의 나라사랑 애국심 본받기
          - 내고장 역사인물 탐방을 통한 인성교육
        - 동아리 봉사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
          - 영가봉사동아리      ○ 영가 토론 동아리
          - 영가환경지킴이 동아리
        -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최우수 수상
          - 안동경찰서, 청년회의소 주최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비튼언어 사용 영가바름이 캠페인**  
일시 : 2012. 10. 08.(월)

**경북매일** 2012년 08월 22일 수요일 01면 사립  
안동 영기초 6학년 학생 사격·극기훈련 병영체험

**경북매일**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021면 사립  
안동 영기초, 내고장 역사인물을 탐방 동아리체험

### III. 사업 효과

- 학교폭력 예방 의식 고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ZERO화
    - 학교폭력 전수 조사 16.8%인 학교폭력 피해 건수가 자체 조사 0%로 긍정적 효과
    - 다양한 감성 코칭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학력 향상
    - 학교폭력 예방과 따돌림 없는 학교로 인근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전학 옴: 5명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 학교폭력 예방 UCC 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동경찰서, 청년회의소 주관
  - 실천하는 인성 교육으로 학교폭력 Zero 실현
  - 자존감 향상으로 6학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진학생 0%
  - 스포츠 클럽 피구부 안동시 1위, 경북 2위 수상
  - 교육홍보 우수 최우수학교 선정: 안동교육지원청





**바르고 고운 언어습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화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이화중학교		학교장(직위)	강명화(교장)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03번지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강미연		sweeti209@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518명		17개	34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는 지리상으로 시 외곽지에 위치하여 문화적 혜택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지역 여건을 가짐.</li> <li>· 빈부격차가 심하고 법적으로 부모가 다 있어도 실제적 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 건전한 언어 습관을 이끌어 가정환경 이 부족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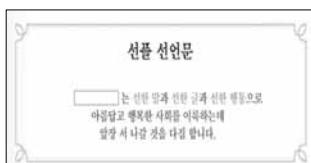
## II. 주요 사업내용

### □ 추진 목적

-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언어폭력이며 언어순화 운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 대두
- 학생·학부모·교사가 동참하는 선플운동은 개개인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바뀐 생각은 긍정적 힘으로 학교 문화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됨

### □ 선플운동 확산을 위한 나만의 선플 선언문 선서식

- 선플운동을 통해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습관화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힘이 청소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토대로 선플 운동의 의미와 선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함.



### □ 인터넷 상 선플달기를 통한 사이버 상 언어습관 개선

- 기간 : 2012년 7월 13일 이후 연중 실시

### ○ 인터넷상 악플에 댓글달기로 봉사활동 인정

- 인정시간 : 선플제시판에 선플달기는 1주일 최대 2시간

### □ 학급 홈페이지 내 선플방 운영

- 온라인 상의 학급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사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서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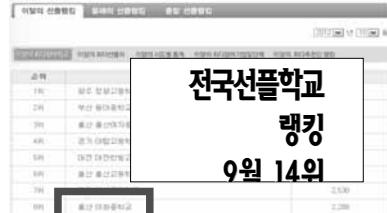
### □ <한글 함께 누리다> 한글 사랑 주간을 통한 올바른 언어 습관 계기 교육 실시

- 한글 반포 566돌을 맞이하여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문화 형성과 언어습관 개선을 위한 2012학년도 한글 주간을 운영



### ○ 주제: <한글 함께 누리다>

차시	행사 주제	세부 내용
1차시	<뿌리 깊은 나무> 한글의 창체 과정 및 우수성 알기	한글의 창체 과정과 우수성을 담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글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2차시	<아름다운 한글! 더 아름답게!> 캘리그라피 작품 완성하기	좋은 글귀와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손글씨와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함.
3차시		
4차시	<햇살 가득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선풀 달기	인터넷 상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을 위한 <선풀달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함.



### □ 청소년 언어 습관 개선을 위한 계기 교육 실시

-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된 활동지를 통해 욕설과 비방이 만연한 거친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사용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마련.
- 친구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 예의를 갖추며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짐.

### □ 감사와 존경의 SMS 보내기를 통한 긍정의 소통 문화 확산

-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선풀 달기의 일환으로 감사와 존경의 SMS 문자 보내기 행사를 실시하여 평소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메시지의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를 마련함.
- 대상 : 1,2,3학년 전교생
- 일자 : 2012년 9월 5일 수요일 08:30~09:00
- 방법 : 시 구절을 활용하여 학부모님께나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회신 문자 메시지 함께 나누기 활동을 진행



### III. 사업 효과

- 학교 전반에 격려와 응원문화의 확산으로, 학교폭력·자살·왕따 등 예방에도 기여
- 바람직한 언어사용 습관화로 욕설과 비방과 같은 언어 습관이 많이 개선됨
-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인성 교육 기회 제공
- 긍정의 힘으로 학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



## 콩깍지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명신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서울명신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장계분(교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250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이미정	02-763-4203	lmjung2000@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387명		19개	26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명신초등학교 개교(1971.10.6)</li> <li>•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2009.7.1~2012.6.30)</li> <li>•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표창(서울특별시교육감, 2011.12.28)</li> <li>• 서울 중심부의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에게 큰 꿈과 행복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꿈터</li> <li>• 2009.3월 부임한 초빙형 공모 교장과 전 교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어들 끝쳐 교육사랑을 펼치는 작지만 뜨거운 열정의 행복배움터</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콩깍지 가족 활동

2009년부터 시작된 콩깍지 가족 활동은 전교생과 교사, 학부모가 1가족 7인씩 가족결연을 맺어 일년간 한 가족처럼 지내며 나눔과 배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가며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배움터를 실현해 가는 교육활동이다.

단계	주제	활동시기	활동 세부 내용
콩깍지가 열렸어요	■ 콩깍지 가족 결연	5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제자와 스승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전교생, 교사, 학부모가 콩깍지 가족 결연
	■ 가족 사진 촬영		콩깍지 가족 사진 촬영, 기념 액자 제작
	■ 가족 신문 만들기		가족 소개 신문 만들어 전시(상설 게시판)
	■ 한솥밥 먹기		비빔밥의 의미를 생각하며 한솥밥 먹기
콩깍지가 여물어요	■ 콩깍지가족 체험 활동으로 사랑 키우기	수시	콩깍지 가족들과 편지 나누기
		수시	콩깍지 형제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 나누기
		9월	운동회날 콩깍지 가족 경기하기
		10월	-개교기념일 맞이 청계천 걷기 -'콩깍지나들이'로 육행시 짓기(시제는 매년 변경)
		10월	학교 사랑 UCC 만들기
콩깍지를 퍼뜨려요	■ 콩깍지 사랑나눔 잔치	12월	한 해의 가족활동 추억 나누기
			사랑의 바자회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물건 물려주기
			만이에게 양말 선물하며 부모가 직접 신겨주기
			소망 엽서 만들기
			사랑의 끝떡 나누어 먹기



#### □ 콩알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미인대칭 운동

학교폭력으로부터 어린 콩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미인대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 형성 및 소통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에 힘썼다. 미인대칭은 2009년부터 운영하는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미소지으며 인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춘화, 직원협의회의 시작말 : “명신 미인이 됩시다.”</li><li>■ 미소가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찰관들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li><li>- 녹색어머니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li><li>- 콩깍지 가족과 함께하는 유해 환경 정화 캠페인</li><li>- 비오는 날도 걱정없어요, 명신엄마사랑 우산</li></ul></li><li>■ 콩알들의 인사법 : 학교 인사말 “사랑합니다”</li></ul>
대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화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No! 친구사랑 Yes!<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바르고 고운 말하기 다짐의 날 운영(매월 마지막 월요일)</li><li>- 고운말 바른말을 사랑하는 기특한 콩알들(한글날 행사)</li><li>- 콩알들이 만든 학급 규칙(학년조)</li><li>- 콩알들의 고민, 나와 함께 나누어요</li><li>- 학급별,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맘 자람 활동 공유(연중)</li></ul></li><li>■ 가족과 함께하는 고운, 바른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과 함께하는 콩들의 대화시간 운영(토요일 가족 대화의 날)</li><li>- 아버지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토요일)</li></ul></li></ul>
칭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인대칭 으뜸이와 이끔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급의 임원들은 미인대칭 이끔이가 되어 모범 보이고 친구 이끌어주기</li><li>- 학급에서 미인대칭을 가장 잘 실천한 학생을 으뜸이로 뽑아 편벳지 수여(월 1회)</li></ul></li><li>■ 미인 선생님콩 선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솔선수범을 통한 생활지도를 위해 미인대칭을 가장 잘 실천한 교사를 추천하여 특별상품을 수여, 교사 간 칭찬 릴레이식 추천을 통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 및 모범 사례 발굴에 힘씀(수시)</li></ul></li><li>■ 학교홈페이지 칭찬코너 운영(연중)</li></ul>

### III. 사업 효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콩깍지 가족으로 만나 미인대칭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성원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육의 장의 가정, 지역사회까지 확대되었다.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내용	긍정적 자아의식이 싹트고 선후배와의 관계가 원만해져 학교폭력 예방 효과 증대	자녀교육의 폭 확장,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도와 신뢰감 증대	미인대칭 운동의 솔선수범, 생활지도의 영역을 학급에서 전교생으로 확대, 학생과의 친밀감 증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책무성 부여로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의 장 확대



## 친구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존중과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장유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장유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이 춘만(교장)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능동로 190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박부덕	055-314-3781	pbd102@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870명		33개	46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PPY &amp; LEAD' 장유보석교육을 위한 보석같은 장유 어린이, 존경받는 선생님, 꿈을 키우는 학교</li> <li>* 감사의 가치를 만들어 갈 친구울타리되어주기 운영</li> <li>* 소통하는 하나되는 장유아동인전학교 운영</li> <li>* 맞벌이 가정이 많은 신도시 저소득층의 아파트 단지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며 새롭고 다양한 체험형프로그램 운영</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친구울타리되어주기 운영 개요

- 친구울타리되어주기란? 친구울타리되어주기에는 콩과 콩깍지가 있다. 천사콩깍지가 된 자신에 대한 감사로 개념을 넓히는 활동이 먼저 시도되고 다음 자신의 넓어진 품으로 천사콩깍지가 무던히 감싸주고 품어주며 때가 되면 감사의 품을 열어서 자유롭게 해 주는 활동이다. 콩은 학급의 보물로서 무조건 존중받는 체험이 되는 활동이다.

#### ○ 행복한 장유보석만들기 친구울타리되어주기 활동 개요

영역	프로그램	관련요소	핵심요소
교과과정 연계 친구 울타리되어주기로 친구가 있어 감사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제가 함께하는 친구울타리되어주기</li> <li>* 제자사랑 교사가 먼저 키워가요</li> <li>* 발달을 고려한 학년별 활동으로 만들어가요.</li> <li>* 친구사랑으로 더 풍성해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상영, 친구사랑 10계명 만들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타인, 삶에 대한 감사</li> <li>- 존중하고 소통하기</li> <li>- 자긍심 함양</li> <li>- 화합하기</li> <li>- 융통성 발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기질 완화</li> <li>* 감사의 마음 담고 키우기</li> </ul>
맞춤형 친구 울타리 되어 주기로 힘이 생겨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닥토닥 활동으로 사랑을 전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이 필요해요. 꿈키움교실</li> <li>- 돌봄교실, 오후공부방, 복수담임, 담임 상담</li> </ul> </li> <li>* 알콩달콩 활동으로 다름을 이해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름을 이해하는 다문화교육, 또래상담교육</li> <li>- 부족함을 이해하는 장애이해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타인, 삶에 대한 감사</li> <li>- 존중하기</li> <li>- 자존감 회복</li> <li>- 편견과 증오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응 해소</li> <li>* 감사의 마음 키우기</li> </ul>
학부모-선배- 지역 연계 친구 울타리 되어 주기로 더 큰 사랑 배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이 먼저 배워고 도와요.</li> <li>* 가족사랑 전하고 표현하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요</li> <li>* 후배사랑 선배에게 배워요</li> <li>* 학생사랑 지역기관이 도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타인, 삶에 대한 감사</li> <li>- 기끼이 협력하는 마음</li> <li>- 자긍심 함양</li> <li>- 역경극복 의지 함양</li> <li>- 자신감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감소</li> <li>* 감사의 마음 키우고 다지기</li> </ul>

감사의 가치로 엮어가는 행복한 학교



## □ 예산 및 전문강사 확보

- 전문강사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양성평등교육기관의 아동안전학교사업에 공모에 참여하여 1000여만원의 학교폭력 전문 대처법 및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지원 받았고, 600만원의 폭력예방교육 활동비로 지원을 받아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기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수와 교육 등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체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III. 사업 효과

### □ 친구울타리되어주기의 효과

- 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 감소
  - 1차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2012년 2월, 교과육과학기술부)와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2012년 7월, 경상 담도교육청)가 시행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문항이 동일하므로 본 활동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보고 비교·분석해 본 결과 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14.15%(66% 참여)에서 7.33%(93% 참여)로 약 반으로 줄었다.
- 친구울타리되어주기 활동에 대한 만족감
  - 친구울타리되어주기 만족도 결과에서 98.2%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좋은 자기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으로 이해된다.
- 친구울타리되어주기 활동으로 감사의 마음과 고운말 사용
  - 친구울타리되어주기 활동으로 감사의 마음이 더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93.9%의 아동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친구에게 더 고운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7.5%의 아동이 긍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즐겁게 참여하므로 안전하고,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음으로 이해된다.

### □ 친구울타리되어주기의 성과

- 콩깍지인 자신에 대한 감사에서 오는 긍정적인 힘의 나눔과 배려, 콩의 순수한 감사를 통해서 아동의 폭력적인 기질이 완화와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의 효과로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이 줄었다.
- 자기 이해의 폭이 넓어진 만큼 편견이 사라지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특별교육에 스스로 지원하는 아동이 늘었다.
-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고 더불어 위기관리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 선후배의 친화력을 향상으로 향후 사춘기가 시작되는 진학 후의 상황에서 적응력을 높아질 것으로 예감된다.
- 학생과 교사는 교장의 확고한 교육 철학과 비전 아래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소통하며 감사의 생활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자존감 형성에 유익하여 긍정적인 자화상을 형성하게 되었고, 수호천사의 활동을 할 때 더 큰 가치와 기쁨이 있음을 체험하므로 아동 감사의 생활로 인하여 부적응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학교폭력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인성교육으로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천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영천중학교		학교장(직위)	황의현(교장)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21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위성환	062-958-4735	weesu26@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013명		28개	62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창의경영학교</li> <li>교육과학기술부·광주광역시교육청 지정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li> <li>법무부 지정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li> </ul> <p>⇒ 운영을 통한 실력 으뜸, 인성 으뜸 영천중학교</p>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 인성교육 실천 T/F팀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
- 학생자치문화 실현을 위한 환경 구축
-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인성교육 실천 T/F팀 조직도



인성교육실천 T/F팀 협의회 장면

#### 나. 공감과 소통의 장

- 학생 주도 학교행사 추진 및 캠페인 활동 전개  
(학생자치회 리더십 캠프, 간부수련회, 용자무대 공연, 사랑합니다! 캠페인,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학생회 플래시몹, 친구사랑 주간 프리허그 행사, 애플레이 행사, 인성캠프 참가 등)
- 토론을 통한 학생 주도 학칙개정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
- 상설동아리 활성화로 학생 재능 발굴 및 표현의 기회 제공
- 영천 SBT(Stress Breaking Time)를 활용한 점심시간 동아리 발표 대회



용자무대 공연



애플데이 행사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교외 플래시몹

#### 다. 스포츠클럽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 0교시 체육프로그램 및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 점심시간을 이용한 스포츠클럽활동
- 영천컵 교내 축구대회 및 4개 학교 권역별 친선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배드민턴반



조기축구반



모닝헬스반

#### 라. 선의 문화 확산을 통한 학교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 학생회와 학급총회의 연계를 통한 토론 문화 활성화
-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 전개
- 또래상담활성화를 통한 학생간 갈등 중재 및 위기 학생 안전망 구축
- wee클래스 운영과 MBTI, 미술치료를 활용한 학생 이해활동 전개

### III. 사업 효과

- 가. 학생들을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고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됨
- 나. 학생자치활성화를 통해 선(善)의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교폭력 발생 수가 감소함
- 다. 또래상담동아리 및 학생 자발적으로 모집된 상설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행복하고 신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됨
- 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움직임의 욕구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
- 마.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려, 존중, 협동, 스포츠맨십 등의 창의·인성 교육이 잠재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됨

## 폭력이 아닌 문화예술로 우리를 표현해요!

인천여상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장(직위)	이임순(교장)
주 소	(우)400-7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46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허태련	032-761-2352	htrhtr@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004명		36개	71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옹변대회(학교폭력 근절) 최우수상, 동영상(UCC) 동상 수상</li> <li>2012. 8. 제13회 전국중소기업기술혁신대제전 국무총리상 수상</li> <li>2012. 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평가 최우수 학교 선정</li> <li>중소기업청 주관 특성화고 육성사업 5년째 운영</li> <li>학교폭력예방 친구 데이(7.9day)의 지속적 운영</li> <li>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도우미 동아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운영</li> <li>인성, 예술, 체육의 조화로운 종합예술제(창의적 체험활동) 성료</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학교폭력예방 또래조정 상담제 운영

- 또래상담 사례 나눔 및 보수 교육(인천시청소년상담센터 연계)
  - 연합 캠프 참가 (학생상담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교육이수 후 청소년상담원 또래상담수료증 발급
- 학급 내 갈등 관리 및 중재자
  - 소외되고 외로운 또래 친구 되기
  - 도움 요청 학생 상담실과 연계 활동
  - 또래 상담일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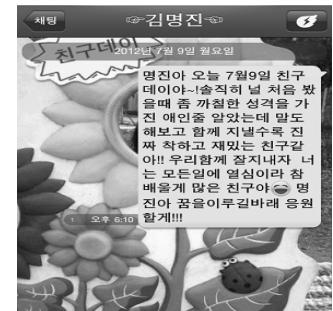


&lt;또래상담 동아리 운영모습&gt;

#### □ 예술적 감각을 살린 학교폭력예방 문예대회 개최

- 학교 폭력 예방 교내외 표어, 포스터, UCC 공모전 및 옹변대회 참가





#### □ 친구 데이 (7.9day) 운영 : 넌 나의 비타민

##### ○ 건강 비타민 주고받으며 정감 표현하기

건강 비타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정을 느끼도록 함.

##### ○ 화목한 학급 사진 콘테스트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사회 실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급 전체 학생의 밝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 후 사진을 찍으면서 두루 친하게 지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함.

##### ○ 사랑의 문자 발송으로 언어순화 및 모든 친구에게 관심 갖기

학급 전체 학생에게 사랑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모두에게 친절함과 관심,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함.

#### □ 폭력 근절 문화예술 동아리 종합 발표회-백조제 진행

##### ○ 교내 학예 및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하여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키며, 풍부한 정서 생활을 위하여 백조 종합 예술제를 실시

##### ○ 전시-폭력예방 표어, 포스터, 캐릭터 인형의 행진으로 교육적 효과

##### ○ 이벤트 부스 운영-30개의 부스진행으로 생명존중, 꿈 디자인, 폭력예방 체험활동을 진행함

##### ○ 무대공연-사제동행으로 패션쇼, 트렌드 댄스, 줄넘기, 부채춤 등을 공연함으로써 사제지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즐겁고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이끌어내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함.



〈폭력예방 부스〉



〈폭력제로 인형〉



〈지역주민과 협력〉



〈사제동행 공감형성〉



〈사제동행 댄스〉

### III. 사업 효과

-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으로 자살과 따돌림 및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문제 예방 도모
- 자기표현 및 집단의사소통훈련으로 타인조망,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정서가 안정됨
- 친구 데이(7.9day) 확산을 통하여 친하지 않았던 학급친구와 화합의장을 통한 우정 제고
- 사랑의 문자 발송의 지속적인 릴레이로 친구사랑 확산 및 서로 돋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됨.
- 각 동아리, 학급 학생들의 축제 참여도가 높아 각종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전교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사랑, 이해와 배려 등의 교육적인 체험활동이 잘 이뤄짐.
- 동아리 발표회인 축제준비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동창회, 지역 주민간의 협력과 상호화합을 바탕으로 학기 초부터 30개의 이벤트 부스를 오랜 시간 계획, 준비, 운영하여 유대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이 극대화되어 신뢰감 있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함
- 예술적 감성을 활용으로 방송제, 요들, 오카리나 연주, 노래, 합창, 워십, 줄리피트니스, 댄스, 슈퍼Mr.I 선발 대회, 외국어 스피치, 영상편지, 마술 등 20가지의 무대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긍정적 마인드가 향상되어 행복지수가 높은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함.



## 주기적 실태조사로 학교폭력을 미리 발견합니다.

가장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대전가장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이영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50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김명진	042-527-7602	kmjini70@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974명		39(2)개	48명
학교소개	1983. 12.13 개교하여 '참되고, 즐기롭고, 굳센 어린이'라는 교훈아래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펼쳐 창의·인성·건강·재능이 조화로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II. 주요 사업내용

- 학교폭력 No! Happy Class 운영
  - Happy Class 실태조사 실시
    - 2012년 3월 본교에서 자체 제작한 실태조사지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학교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함
  - 학교폭력 3단계 사랑·배려·나눔 지도 실시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고 접수 횟수에 따른 3단계 사랑·배려·나눔 지도로 반성과 사과, 용서와 화해, 공감과 이해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줄임
  - Happy Class 학생 생활지도록 누적 관리 시스템 운영
    - 지속적인 상담 활동 과정 및 내용을 학생 생활지도록에 누가 기록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함
  - 나눔과 배려가 만든 학교폭력 없는 Happy Class 시상제 운영
    - 매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Zero인 학급에는 Happy Class 표창장을 수여하고 표찰을 게시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 Happy Class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운영
  - 학교, 가정, 지역사회 Happy Class 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안전망을 구축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
  - Happy Class 진단 시스템 운영
    - 각종 표준화 검사로 학생 이해를 통한 맞춤형 개별화 지도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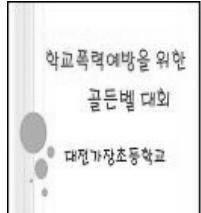
- Happy Class 예방 시스템 운영
  - 배려와 존중의 맞춤형 학생·교사·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며 ‘우리들의 이야기’ 동영상을 제작 및 방영하여 예방적 생활지도를 강화함
- Happy Class 관리 시스템 운영
  - 생활지도의 첫걸음 학생 상담 활동 및 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담 활동 실시함
- 친구사랑 Yes! 가장 우정 3품제 운영
- 우정 지킴이로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가장 약속 365일’ 메니페스토를 제정하고 우정 돌봄이로 천사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우정 나눔으로 친구사랑 주간 운영 및 학예 행사를 실시함



Happy Class 표찰



학생생활지도록



골든벨 대회



우리들의 이야기 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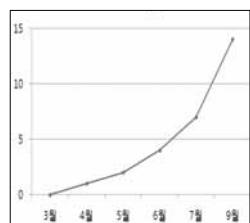


가장 약속 36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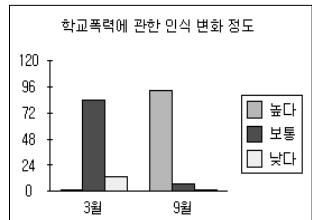
### III. 추진 효과

- 학교폭력 NO! Happy Class 운영 결과
  - Happy Class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가·피해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반성과 사과, 용서와 화해, 공감과 이해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Happy Class 시상제 운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교폭력 없는 Happy Class를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 Happy Class 진단·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조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위험군 학생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였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생 상담 활동을 실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학교폭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 친구사랑 Yes! 가장 우정 3품제 운영 결과
  - ‘가장 우정 3품제’의 실시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컸고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의 믿음은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며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Happy Class 증가 추이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 변화 정도





## 실태조사 활용

### 1차 실태조사 후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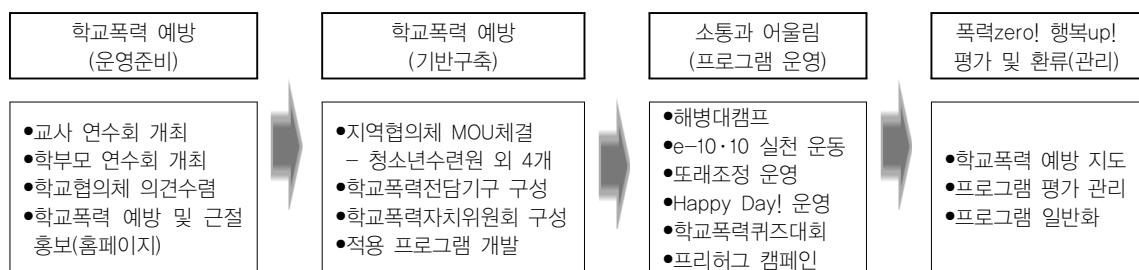
대서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대서중학교		학교장(직위)	김용석(교장)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03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감	곽상순	053-634-2402	kwak2557@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334		36	59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별 실태 균형: 대서중학교 2012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li> <li>1. 학생실태 30%(404명)의 학생이 셋집에 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법적 및 담임추천 차상위 가정의 비율이 23%(310명)로 타 학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li> <li>2. 학부모 실태 맞벌이 가정이 50%에 달하며 이 가운데서 부모들이 늦게 귀가하는 가정이 많은 편이라 학생들을 가정에서 지도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부(父)의 61%, 모(母)의 51%가 전문대출 이상으로 대체로 학력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졸이하의 학부모 모두 5%로 학력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편이다.</li> <li>3. 교사 실태 교사의 평균 연령은 39.7세이고 평균 교육경력은 14.24년이다. 10년 미만의 저경력교사 27명, 10년~20년 미만의 중경력 교사 10명, 20년 이상 고경력 교사는 22명이다. 교사 59명 중 여교사 94.7%(50명), 남교사 5.3%(9명)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 학생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 단계



#####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 해병대캠프 프로그램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미래 세계를 창조하고 주도할 참된 학생상 정립과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주도적인 학생상을 기르기 위해 학교부적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 2) e-10·10(everyday-10·10) 실천 운동 프로그램

학생들이 매일 매일 10명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 하이파이브(high five)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상호간 교감 형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생활에 활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다.

## 3) 또래조정 프로그램

학생들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또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또래 학생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4) Happy Day 프로그램

시험(정기고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간단한 간식(사탕, 초콜릿, 초코파이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시험기간 동안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5) 프리허그(Free Hug) 프로그램

본교 학부모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벼운 포옹을 통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정신적 상처 치유는 물론이고 본교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I.B.S 육상훈련

'좋은 아침!' e-10·10 실천 운동

또래조정자 활동 모습(조정)

## III. 사업 효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본교의 일진 인식비율이 63.1%, 일진피해 응답비율 11.7%로 각 언론사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 이후 본교 전교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진비율 현황표(그 외 설문조사 및 사업결과는 본문 참조)

설문조사 (2012년.월.일)	설문 주관	학생 (수)	설문조사				
			일진 응답			피해 응답	
			응답(수)	응답(건수)	응답비율(%)	건수	비율(%)
1월19일	교육과학기술부	1437	260	164	63.1	31	11.9
4월24일(1차)	대서중학교	1349	1330	124	9.3	8	0.6
8월3 (2차)	대서중학교	1344	1325	66	5.0	6	0.4



## 학교폭력 위험군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로!

동변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대구동변초등학교		학교장(직위)	권점출(교장)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60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정명재	053-958-8601	redskyyy@edunavi.kr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223명		48개	67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의 동쪽 변두리 신흥 아파트촌에 위치</li> <li>일진인식율 38%, 학교폭력 위험군 학교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특별지원 학교로 지정됨</li> <li>동변중학교와 한 올타리 안에 있어 선후배간 대면기회가 많지만 폭력피해 발생, 체육활동 활성화 한계 등 어려움이 있음</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배움·소통·나눔으로 학부모 인성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부모의 배움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교육 역량강화
- 가족과의 소통으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인성교육
- 사랑 나눔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봉사하기

#### □ 배려·소통·나눔으로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고운 말·바른 언어 사용으로 배려를 통한 상대방 존중하기
-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든지 소통하고 공감하여 학교폭력 사전 예방
- 사랑 나눔 프로그램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다지기



### III. 사업 효과

-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2분기 교내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 폭력서클 인식율 0% 달성
- 2차 전국단위 학교폭력 학생 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안전
- 가정과 학교가 연대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 건설



##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도와주세요」

규암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규암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안창식
주 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이재연		domifa@hanmail.net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함</li> <li>나눔, 배려, 사랑이 함께하는 교육목표로 행복한 학교문화 형성</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춤 터 만들기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여건 조성

- 자아존중감 테스트로 자기진단 및 위험학생 발견 상담활동 강화
- Wee상담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활동 전개
- 폭력전담팀,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축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빠르게 대응처리
- ‘도와주세요’ 홈페이지방 개설 및 학교폭력 신고 전화 구축 홍보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 12회, 학부모 6회, 교사 4회 실시
- 학생자치활동과 자치법정운영 및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로 책임의식과 자율적 활동 강화



상담활동 기사문



학무모 연수



학교폭력 교사 힐링도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 P 씨앗심기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1학급 1생명 살리기 글로벌 나눔 세계사랑 인류애 실천
- 사제동행 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교우관계 개선 및 규칙준수
- 문화예술체험활동으로 풍요로운 정서순화 도모함
- 안전교육·예절교육운영으로 실천적인 기본생활 습관 정착
- Ever-Green 꿈터 가꾸기로 생명의 소중함과 행복감 증진
- 춤·P·온 인성본 제작하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가정과 연계지도로 바른품성 함양
- 인성교육프로젝트 주간 운영으로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바른말 고운말 사용 점검을 통한 자기 성찰로 바른언어사용 생활화 함



1생명 살리기 운동



문학예술체험



욕 상자 버리기 운동



Ever-Green 끔적가꾸기

#### ▣ 온 평화열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규암 춤·P·온 행복한 토요체험학습으로 탈선방지 및 사제간 유대감 강화
- 지역사랑 CRM개발 자료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가족애 향상
- ‘엄마풀이’ 교육기부 활동으로 배려학생 돌봄으로 행복충전의 계기가 됨
- 방과후와 연계한 특기적성교육 및 장애체험으로 이해력 증진 및 아름다운 마음 가짐
- 봉사활동 동아리 참살이 조직 운영으로 나누며 섭기는 마음 갖게 됨
- 독서 · 논술지도로 바른 생각 인성갖기



토요체험학습



지역사랑 CRM자료



엄마풀이봉사활동



장애체험 이해교육

### III. 사업 효과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Wee 상담실 내실화 운영,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 Zero 달성을 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급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춤 · P · 온』 평화 배움터 만들기로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
- 토요 방과 후 및 동아리활동,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정서함양 정착지도
-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적용으로 바른말 사용하여 실천적 생활지도 성과를 거둠
- 봉사의 나눔 활동 참여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함양됨
- 예술교과 활성화로 자신감형성 및 자긍심을 가짐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활발해짐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로 민주시민 역량강화 및 자질 함양
-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류애 형성



##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예스폰!

부성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천안부성중학교		학교장(직위)	조영종(교장)
주 소	331-2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부대동)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이광규	041-523-7093	ykg2120@daum.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682명		20개	32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 4. 25. 개교</li> <li>• 2009. 9. 1 ~ 2012. 2. 29 사교육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운영</li> <li>• 2010년 도 지정 연구학교(학교폭력예방)</li> <li>• 2011년 도 지정 연구학교(여학생체육)</li> <li>• 2011. 9. 1. 초빙 교장 공모(교장 조영종, 4년 임기)</li> <li>• 2012년 선진형 교과교실제 선정</li> <li>• 2012년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교과부)</li> <li>• 자율학교 운영( 2009.9.1~2013.2.28)(2013. 3. 1~ 2015. 2. 28)</li> <li>• 2012년 학교평가 우수교 바른품성 5운동 선도학교(도)</li> <li>• 2012년 천안 교육사랑 3-3-3 프로젝트 우수학교 표창(시)</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소통과 공감 학교폭력 예방 활동

목표	○ 소통과 공감, 배려와 존중이 어우러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스마트폰(일명: 예스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입학식, 예방 교육, 전체조회, 학부모회의 시간에 적극적 활용 권장</li> <li>-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로 24시간 접수</li> </ul> </li> <li>•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가정방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경제 사정, 학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 결손 여부를 파악</li> <li>-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과 진로희망 파악</li> </ul> </li> <li>• 배려와 존중이 어우러지는 무폭력 협약식 및 캠페인 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근절 다짐글에 서명하고 친구, 교사, 부모에게 다짐글 낭독 및 인증사진 찍기</li> <li>- 학생회와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li> </ul> </li> </ul>											
성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예스폰운영</td> <td>가정방문</td> <td>무폭력 협약식</td> <td>캠페인 활동</td> </tr> </table>								예스폰운영	가정방문	무폭력 협약식	캠페인 활동
예스폰운영	가정방문	무폭력 협약식	캠페인 활동									



## 나. 제자사랑 행복동행 체험활동

목표	○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 체험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 의지 제고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품성 함양 문화예술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화 및 국악 관람</li> <li>- 사제 간의 따뜻한 유대감 및 예술적인 안목을 제고하기 위한 연극 관람</li> </ul> </li> <li>• 학교폭력 날려요! 스포츠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사제 간 농구 및 축구 경기 추진</li> <li>- 학교폭력 예방과 관람질서 지키기 교육을 위한 프로야구 체험 활동 운영</li> </ul> </li> <li>• 배려와 나눔의 봉사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경로당, 장애인 시설 방문을 통한 배려와 나눔 전파</li> <li>- 학교폭력 없는 용기 있는 학생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Healing 동아리 운영</li> </ul> </li> </ul>			
	 문화예술 체험활동	 스포츠 체험활동	 봉사활동	 학교폭력 힐링 동아리
성과	○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 체험을 통한 바른 품성 함양 및 배려와 나눔 실천			

## 다. 행복한 학교 어울림 한마당

목표	○ 소통과 감동이 있는 학교 문화 형성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학교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교원 연수</li> <li>- 친구간의 이해와 배려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 봉사활동과 연계한 밤상머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인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주 수요일 밤상머리의 날 제정 운영</li> <li>-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사와의 결연을 통한 밤상머리 교육 추진</li> </ul> </li> <li>• 친구사랑 자생적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으로 조직된 댄스반, 밴드반, 합창반을 방과 후 또는 토요일에 운영</li> <li>- 학생들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 발표대회 연 2회 개최</li> </ul> </li> <li>• 어울림 다문화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는 글로벌 리더를 위한 다문화 교육 주간 운영</li> <li>- 다양한 문화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및 어울림 축제 운영</li> </ul> </li> </ul>			
	 어울림 프로그램	 밤상머리 교육	 밴드 동아리	 다문화 교실
성과	○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 체험을 통한 바른 품성 함양 및 배려와 나눔 실천			

## III. 사업 효과

바른 품성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을 실현하고자 제시한 '소통과 공감의 학교폭력 ZERO 프로젝트' 행복동행 아름다운 하모니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귀중한 결실을 보았다.

- 가. 에스폰 활용(131건 상담 및 신고)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효과로 학교폭력 'ZERO'화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 나. 소통과 공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었다.
- 다.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기본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 라. 교육사랑 행복동행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과 감동이 있는 학교문화 형성으로 즐거운 학급, 행복한 학교 기틀을 마련하였다.



## 학년별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 밀착적인 생활지도 실시

중곡초

## I. 학교 현황

학교명	서울중곡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심은석(교장)
주 소	131-81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3길 20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김기만	02-2209-2543 (804)	neostory@sen.go.kr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425명		58(2)	74명
학교소개	<p>누구나 학교 안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이라는 학교장의 교육철학아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 찾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구현하여 바른 생각과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중곡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교는 서울의 동부 중랑구에 위치한 학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지역적 여건이지만 1400여명의 학생 모두가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학교교육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130여명의 교직원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교는 2010학년도 영어교육리더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2010학년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청의·인성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 운동이 효과를 거두어 2011~2012년에 학교폭력 발생이 단1건에 불과했습니다.</p>			

## II. 주요 사업내용

## You&amp;Me&amp;We-1'd

## 너랑 나랑 우리랑 하나

- 기본이 바로된 중곡 어린이 실천과제
- 중곡 생활본 감사하는 생활과 칭찬스티커
-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  
-Back to the Basic
- 학급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You&amp;Me&amp;We-2'd

## 너랑 나랑 우리랑 둘

- 너랑나랑 우리랑 멘토링
- 행복한 미래 진로교육
- 문화·예술·체육교육 강화  
-중간체육활동, 학급음악발표회
- 동아리활동 강화

## You&amp;Me&amp;We-3'd

## 너랑 나랑 우리랑 셋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배려 공감 교육 강화
- 상담실 & 상담교육을 통한 인성지도
- 학생지도를 위한 감정코칭 직무연수

## You&amp;Me&amp;We-4'h

## 너랑 나랑 우리랑 넷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학교폭력 예방 지원 행정 강화  
-교내안전망 CCTV 확충  
-학교보안관 활동 강화



### III. 사업 효과

구 분	추진 과제	주요 성과	
<b>You&amp;Me&amp;We 1'st</b>  <b>너랑 나랑 우리랑 씨앗뿌리기</b>	기본이 바로 된 중곡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 지으며 인사하기</li> <li>■ 실내에서 오른 쪽으로 걷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말, 고운 말 쓰기</li> </ul>
	중곡 생활본 감사하는 생활과 칭찬스티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편지 주 1회 이상 쓰기</li> <li>■ 칭찬 스티커를 통한 모범어린이 체험학습</li> <li>■ 훈화록과 독서록을 통한 인성</li> </ul>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행일기쓰기</li> <li>■ 마음의 보물 단지</li> <li>■ 우리가 만드는 깨끗한 세상( ■ 클린 중곡 운동(NO! 껌, 휴지, 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수업 태도</li> <li>■ 나만의 소질 키우기</li> </ul>
	학급별 특색 인성교육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별 1주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li> <li>■ 전교생 인성교육실천주간 교과부 지원 교수·학습자료 활용 수업 실시</li> </ul>	
<b>You&amp;Me&amp;We 2'nd</b>  <b>너랑 나랑 우리랑 싹틔우기</b>	너랑 나랑 우리랑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학생 1:1 멘토링 56팀</li> <li>■ 엄마풀 멘토링 5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멘토링(동행, 다문화) 16명</li> </ul>
	행복한 미래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명인사 초청 진로교육(정운찬 전총리, 외교부 공무원)</li> <li>■ 매주 1회 드림래터를 활용한 진로교육 실시</li> </ul>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체육· 수련 교육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체육활동</li> <li>■ 학급대항 육상대회, 학급대항 축구대회 실시</li> <li>■ 전학급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년별 학급별 음악발표회</li> <li>■ 예술교육, 리듬악기, 전통악기 구입 다양한 악기 활용 지도</li> </ul>	
	동아리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부 전국소년체전 계주 은메달 ■ 축구부 중랑유소년체육대회 우승</li> </ul>	
<b>You&amp;Me&amp;We 3'rd</b>  <b>너랑 나랑 우리랑 줄기키우기</b>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악대 공연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전교생 실시</li> <li>■ 6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급당 4회 314명</li> <li>■ 인터넷중독예방교육 4,5,6학년 32학급 각 2시간</li> </ul>	
	배려 공감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굿네이버스 동전모으기 482만원 기탁</li> <li>■ 장애이해교육 전교생 실시</li> <li>■ 굿네이버스 희망캠프 80명, 희망편지쓰기 849명</li> <li>■ 선생님께 편지쓰기 2명 수상</li> <li>■ 칭찬스티커 모범학생 표창모범어린이체험학습 학기별 1회 실시</li> <li>■ 명예교사 예절교실 3,4학년, 엄마풀멘토링 12명, 책 읽어주는 엄마교실 60명</li> </ul>	
	상담실&상담교육을 통한 인성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학생 정기적 상담 및 사례관리</li> <li>■ 5, 6학년 22개 학급 상담교육 실시</li> <li>■ 일반 학생 상담 매일 5~6명, 학부모상담 27회</li> </ul>	
	학생지도를 위한 감정코칭 직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로 찾아가는 감정코칭 직무연수 운영 32명 연수 이수</li> </ul>	
<b>You&amp;Me&amp;We 4'th</b>  <b>너랑 나랑 우리랑 열매맺기</b>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교육청, 지구대, 경찰서, 복지관, 수련관)</li> <li>■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 EBS 교실평화프로젝트 출연</li> </ul>	
	학교폭력예방 지원행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안관 순찰, 생활지도 강화</li> <li>■ 학교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교내 CCTV 확충</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지원</li> </ul>	

<b>You&amp;Me&amp;We 우수사례</b>  <b>외국 교육기관 본교방문</b>	<b>홍콩 스테판초등학교</b>  	<b>일본 하마마초교육청</b>  	<b>스웨덴 국립과학기술관</b>  	<b>일본 한국교육원</b>  
--	-------------------------------	-------------------------------	--------------------------------	-----------------------------



## 표준화 성격 검사와 집단 상담을 통해 친구가 된 우리

진교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진교중학교		학교장(직위)	장재성(교장)
주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만다리길 168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이상호	055-882-3024	leejungto@empal.com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248명		10(1)개	17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목표 –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인재 육성</li> <li>경영 방침 –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덕성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인재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집중</li> <li>시범학교 운영 – 2007.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방과후학교 자율시범학교 운영 2009.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학교폭력예방학교 자율시범학교 운영 2010~2011.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고차적 사고력 신장 시범학교 운영</li> <li>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G 성장프로그램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및 사회성 함양,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외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이버신고 배너 설치 운영(연중), 폭력예방의 날 행사(3.29, 9.13 연 2회)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학교스포츠 클럽 6개 클럽 운영, 95% 등록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li> </ul> </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표준화성격진단검사(SPI) 실시 및 표준화성격진단검사(SPI) 실시 결과 해석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참여 동기 향상, 자신감 향상, 성취동기 향상, 자발성 강화, 긍정적인 경험하기,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학생 딱지 떼기
- 사회적 지각 훈련, 사회적 단서 찾고 통합하기, 자기표현 훈련, 사회적 역동 형태 파악, 부정적 감정에 대한 교육, 분노 감정 다루기, 긍정적인지지 받기, 자존감 향상, 언어적 사회기술 훈련, 자기표현 훈련, 사회적 욕구 구체화, 사회적 관계 명확화,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한 인지적 접근, 구체적 행동 기술 훈련
- 내 자녀의 힘을 복돋우는 부모의 역할, 척도별 자녀 이해 및 지도 방법
- 통합적인 사회 기술 훈련 및 자신감 향상, 의연하게 행동하기, 협상의 달인이 되는 비법, 친구가 되어보자!, 멋진 친구 되기 약속, 1년 후의 나에게 편지쓰기, 나에게 주는 상장, 사후 검사 실시



주요자료1

품성 및 사회성 집단 상담 활동 사진



만나서 반가워!

우리들의 약속

미래의 나에게 응원을

거짓말 대회

주요자료2

성 및 사회성 집단 상담 II 활동 사진



협상의 달인이 되는 법

친구가 되어보자

1년 후 나에게 편지쓰기

마치면서

### III. 사업 효과

-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88%였고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17%였다.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응답은 89%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정서적 안정성 측정에서는 프로그램 수료 후 15명 중 13명이 많은 안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에 있어서 자신의 객관적인 장점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좌절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신감 측정에서도 15명 중 11명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참여 후 앞으로 I.N.G성장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학생이 89%였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11%였다.

## 학교의 억압이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폭력예방!

가좌여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가좌여자중학교		학교장(직위)	박희정(교장)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119번지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김종신	032-575-0960	kr9522072@ice.go.kr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785명		21개	38명
학교소개	<p>※ 인천가좌여자중학교는 2012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중이며 교육복지투자사업우선지원학교와 경제시범학교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학급수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적 애자와 10여명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2009년부터 5기 질서운동을 전개하여 한해 20~3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다 최근 2년간 1자리수의 학생이 유학과 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하였으나 2012년 10월 현재 한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없습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5기 질서운동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가 개선되었습니다.</p>			

### II. 주요 사업내용

#### □ 교육공동체 조직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Learn)

- 학생 자치회 조직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
- 담임중심 생활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
- 5기 질서 운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

#### □ 소그룹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안·적용(Teach)

- 폭력예방을 위한 “나는 학생이다” 프로그램 진행
- 학교폭력예방 노래 만들기 대회
- 학교폭력 근절 표어 포스터 경연대회
- 또래관계증진 “학급응집력” 실시
- 나는 학생이다 체육활동편 운영

#### □ 정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폭력 없는 활기찬 학교 만들기를 실현(Emotion)

- “친구들과 함께 해요” 다양한 문화 행사 함께 하기
- “우정나누기의 날” 제정·운영 -친구야! 우리우정을 영원히
- “우리 함께 존댓말로 대화해요” 활동 전개



- 그리운 친구, 보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 칭찬 릴레이
- 학교적응력을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아름다운 사제동행)
- 학교폭력 예방에 답을 구하다. 친구 사랑의 날
- 고마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달하는 땡스데이 운영

### III. 사업 효과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 학생들의 자율적인 폭력예방을 통하여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정착된다.
- 학교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닌 자주적인 학교폭력예방의 실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학교학생 모두가 폭력예방 지킴이가 되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

#### □ 교육공동체가 정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폭력예방 강화를 ...

-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공동체 의식 문화를 정착하고 학교 폭력이라는 사안을 공동으로 해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이루어진다.
- 학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을 사회가 맡아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이 학습을 제공한다.
-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및 심각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모습을 접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

#### □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365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하여...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한 학생들이 친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배려와 사랑을 키워 나갈 수 있다.
- 친구의 사랑을 돈독케 함으로서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
-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우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폭력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친구사랑운동은 서로간의 우애와 유대감을 증진시켜 자기 자신이나 친구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됨에 따라 학교 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학급의 일은 「또래중조인」에게 맡겨주세요!

저동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저동중학교		학교장(직위)	최복점(교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무궁화로 159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정연희	02-915-0163	jyhyj-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189		31개	50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실을 교훈으로 하여 “으뜸 저동인” 육성이 교육의 지표</li> <li>‘들꽃사랑학교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하는 들꽃이 피고 지는 아름다운 학교</li> <li>Daddy, Mom, Class L.P Doctor 운영을 통한 폭력 없는 학교</li> <li>‘소통과 나눔’의 건강한 인성을 갖춘 글로벌한 민주 시민 양성</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또래 중조단

- 왕따,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예방하도록 함.
- 갈등과 폭력 등 학생들 간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대인관계 및 생활태도를 개선함.
-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건전한 또래 문화를 형성함.

#### □ D.L.D. M.L.D. 순찰대

-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을 순찰함으로써 자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은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 지역순찰대 주엽지구대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아버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주변 폭력예방을 함.

#### □ 학생자치법정

- 학생 자치 법정에 참여하여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를 실천함.
- 학생들이 스스로 학칙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시민생활을 내면화할 수 있음.
-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음.

#### □ 학생회캠페인

- 자존감과 사랑받고 있는 학교의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와의 우정을 다시 생각 할 수 있음.
- 1, 2, 3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자발적인 정문, 후문 피켓운동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함.



#### □ 효사랑 봉사단

- 어른들과의 소통을 통해 폭력성을 완화함.
- 공경 및 협동심을 촉진함.
- 봉사를 통한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및 반사회성 저하함.

### III. 사업 효과

#### □ 또래중조단

- L-P Doctor를 통해 학급 내 또래들 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중재하고 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함.



#### □ D,L,D. M,L,D. 순찰대

-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 을 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풍토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됨.

#### □ 학생자치법정

-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 극복과 대안적인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 방식의 정착화 기여함.

#### □ 학생회캠페인

- 학생중심으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질서가 지켜지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함.

#### □ 효사랑 봉사단

-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결연 어르신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로 참다운 봉사의미 학습장을 마련함.

#### □ 활동사진



L-P 또래중조인



D.L.D. 발대식



M.L.D. 발대식



사과데이 활동



방과후 학교주변 순찰



어머니 교통 봉사



학생자치법정



캠페인 활동



효사랑 봉사단



## 아껴주고, 나눠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자!

## I. 학교 현황

학교명	인천조동초등학교		학교장(직위)	이인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164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임수호		so-so200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162		46개	58명
학교소개	1. 본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인근에 위치. 2. 교장 이인규, 교감 안승자, 김형우 이하 60명의 교직원 근무 중. 2. 46개 학급 총 1162명의 학생이 재학 중. 3. 2012학년도 학교폭력예방 '3 C UP↑ 프로젝트'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4. '3 C UP↑ 프로젝트'는 학교폭력예방 '붐'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감(self-Confidence), 용기(Courage), 우애감(Comradeship)이상의 3가지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 II. 주요 사업내용

## □ 3 C UP↑ 프로젝트를 통한 아! 나! 다! 사! 실현

- 아! 나! 다! 사! 란? 아껴주고 나눠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자의 준말

## ○ 자신감↑, 용기↑, 우애감↑

- 4, 5, 6학년 학생들의 마음속에 자신감(self-Confidence), 용기(Courage), 우애감(Comradeship) 이상의 3가지 덕목 체득을 위하여 참여 중심 프로그램 구안

## ○ 파급력 있는 캠페인 실시

- 수요일은 학교폭력 예방의 날! 선포
- 학교폭력 뛰어넘자!! “이색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학교폭력 예방 물로켓 날리기

## 아!나!다!사! 실현

## ○ 참여하는 이벤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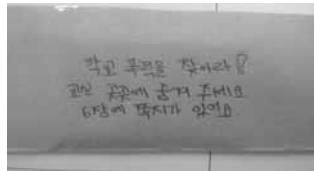
- 학교폭력예방 “서약서 로또복권”!!
- “이색 보물찾기 전교대회!!
- “날아라 종이 비행기!!
- “이색 보물찾기!!
- 학교폭력예방 물로켓 날리기

## ○ 지속적인 예방활동 실시

- 1일 1분 아침방송: 아침마다 전교생이 함께 외치는 학교폭력예방구호
- 수호천사단 조직 및 활성화: 또래지킴이, 또래 상담사



학교폭력예방의 날 선포  
– 매주 수요일 –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보물찾기  
– 반별 활동 – 이벤트



학교폭력 날아가라  
– 종이비행기 날리기 – 이벤트



학교폭력예방 표어짓기 대회  
– 1일1분아침방송 – 지속성



또래상담사, 지킴이 활동개시  
– 수호천사단 – 지속성



학교폭력예방 서약서  
– 폭력예방 로또복권 – 이벤트



학교폭력 날아가라 2  
– 물로켓 날리기 – 이벤트



학교폭력뛰어넘자  
– 장애물 뛰어넘기 – 캠페인



학교폭력 물러가라  
– 등굣길 절기대회 – 캠페인



학교폭력 물러가라  
– 등굣길 배꼽인사 – 캠페인



학교폭력예방의 선봉대  
– 수호천사단 발대식 – 지속성



학교폭력예방 보물찾기  
– 전교 활동 – 이벤트

### III. 사업 효과

□ 3 C UP↑ 프로젝트는 약 80%의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효과검증

- 무작위 100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
  - ‘자신감’이 향상 되었다는 대답을 한 학생 – 78.26 %
  - ‘용기’가 향상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 – 79.6%
  - ‘우애감’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79.4%

분쟁이 있을 땐, 먼저 ‘멈춰!’ 그리고 ‘친구야 변호해줘!’

연현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연현중학교		학교장(직위)	정광수(교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62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백종덕	031-474-1184	bbb506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394명		36(특수3)개	66명
학교소개	시대변화에 맞추어 u-러닝 교육, 영재학급, 교과특기자육성, 통합교육, 독서 토론,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1교 1기 육성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형 인재를 육성.			

## 2. 주요 사업내용



- 타인(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학급 내 분쟁해결
- 1단계 : “학교폭력 멈춰!”프로그램 적용
  - 학교(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소한 다툼)의 원칙적 대화를 통한 해결
  - 사소한 말다툼의 격화 및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주위 학우들의 “멈춰”프로그램을 통한 제재
- 2단계 : 친구(변호인)를 통한 갈등 중재 역할
  - “멈춰”실시 후 “변호해줘”선언
  - 갈등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 선출된 학급 변호인에게 의뢰
- 3단계 : 학급 판결(갈등 해결이 어려울 경우)
  - 변호인을 통한 분쟁이 미해결시 변호인 및 당사자에 의한 소(학급 약식재판) 제기
  - 학과종료 후 종례시간 담임교사 입회하 학급재판 개정(기 선출된 판사의 단독심)
  - 당사자와 변호인, 학급 판사(단독심), 배심원(나머지 학우들)으로 구성하는 약식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



○ 4단계 : 학생 자치법정에 대한 항소

- 학급 판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시 학생 자치법정에 항소 가능
- 학생 자치법정은 상급법원의 성질을 가지며, 하급심의 관할 및 결정과정에서의 하자 및 사실관계의 입증 하자 등을 심사함

### III. 사업 효과

#### □ 직접적 효과

○ 학교 폭력사고 예방(직접적 자력구제를 통한 분쟁해결 제한)

- 격화된 분쟁이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 변호인 선임, 주장 전달 과정에서 자연스런 '쿨타임(흥분의 반감기)' 제공

○ 미해결 분쟁의 학교 밖으로 연장 및 확산을 방지

- "멈춰"에 의해 제재된 미해결 분쟁의 방과 후 학교 밖으로 연장 경향
-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확인 및 재제가 어렵고 강도 및 피해가 더욱 심화됨

○ 내성적, 비사교적 학생의 보호

- 외향적, 사교적인 학생의 경우 주위에 동조자(친구)가 많은 경향을 보임
- 분쟁 발생 시 타방 동조자들의 편파적 시선에 더욱 흥분할 가능성 내재
- 쌍방 모두 선임된 변호인만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을 최소화

○ 학급 담당교사의 사건 처리시간 감소

- 사건 발생 후 당사자를 통하여 사건 설명 및 진술청취 시 정확한 진실파악이 어려움(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임)
- 직접 진술 시 수차례에 걸쳐 사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상황이 파악 가능(방과 후까지 수차례에 걸친 확인절차가 이루어져 업무시간이 연장됨)
- 변호인(제3자)을 통한 사건청취 시 정확한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변호인은 "변호해줘"과정에서 사건 정황 및 주장을 정확히 숙지)

#### □ 간접적 효과

○ 분쟁에 대한 논리적, 민주적 해결 방법 습득

- 주장을 변호인에게 전달(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작용
- 물리적, 폭력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민주적인 해결방법의 학습

○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의 이해

- 사법 절차 이해 및 분쟁해결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
- 판사, 변호인, 배심 지위 체험을 통해 법조인을 장래 희망으로 유도 가능

○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약자에 대한 보호

- 변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봄(타산지석)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도모
- 약자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약자의 입장 이해 및 약자 보호정신 함양



##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함께하는 생활지도

고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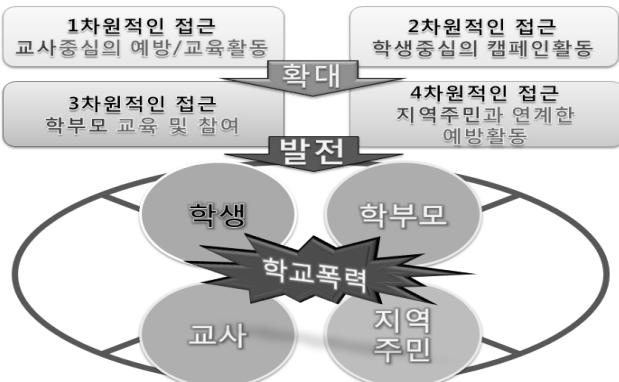
## I. 학교 현황

학교명	고척고등학교		학교장(직위)	나현수(교장)
주 소	서울 구로구 중앙로 15길 162호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유현철	02-2616-9816	ryoo120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000명		32개	66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척고등학교는 1985년 개교 학생들을 전인(全人)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li> <li>2011학년도부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글로벌리더십, 삼포제, 과학캠프, 국토순례, 동아리 지원활동, 심화 프로젝트 논문대회)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지도 부문에서 3유[有](친절, 질서, 나눔), 3무[無](폭력, 지각, 휴연)운동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나눔의 문화가 조성되었고 폭력, 지각, 휴연 등이 상당히 줄어 2011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우수학교로 지정'되어 표창을 받았다.</li> <li>현재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4차원적 순환 시스템 확립'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교육공동체의 힘을 집중하고 있다.</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4차원적 순환 시스템 확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4차원 순환시스템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폭력사안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Hot-line 구축)
  - 교사 : 전교직원 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순환지도를 통하여 쉬는 시간, 중식시간, 방과 후 순회지도
  - 학생 : 학생회, 선도부, 학교스포츠클럽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부모 : 학부모회, 등등 자원 봉사자를 생활지도 명예교사로 위촉, 교내 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지원
  - 지역주민 : 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 경비실장, 경비원을 학교 생활지도 명예교사로 위촉, 교외 학교 폭력 예방·근절위한 지도활동 지원

### III. 사업 효과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4차원적 순환 시스템’ 확립으로 사안을 빠른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학교 및 인근 취약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
  - 전교직원이 쉬는시간, 중식시간, 방과 후 순회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발생을 최소화함.
  - 학생회 및 선도부,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명예교사가 생활지도 명예 교사증을 걸고 활동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효과 증가.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명예교사가 고척고 생활지도 명예교사 표찰을 착용하고 활동함으로써 학교인근 취약지역 학교폭력 예방효과 증가.



「숲 학교」에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키워요.

대성여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대성여자중학교		학교장(직위)	김덕중(교장)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2길 20(가양1동 309-7)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임홍택	042-670-3005	tklim01@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423명		16개	30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의 경우 교육경력 25년 전후인 중견교사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음.</li> <li>• 저소득층 가정이 전체의 36.2%(154/426)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li> <li>•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사교육절감학교</li> <li>•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li> <li>•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종합예술 동아리 지원학교</li> <l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숲학교」 운영, 정보윤리학교</li> <li>•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협력학교, 문화유산방문교육학교</li> <li>• 대전광역시 동구청소년수련관 동아리활동 지원학교</li> <li>• 온실가스감축시범학교,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숲학교」 운영

- 「숲학교」 운영을 통한 정서순화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
  - 진정한 교류와 소통, 자신 및 타인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함
  - 자연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선택과 환경에 대응하는 법을 배움
  -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상응한 결과를 얻게 됨
  - 산림이 갖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활용함
  - 젊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련 기관과의 MOU체결
  - 협약기관 : 대성여자중학교, 부여국유림관리소
  - 협약내용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숲학교」 시범운영 및 자료공유
- 「숲학교」 운영 상황
  - 대상 : 학교생활부적응 및 가능 예상 학생(담임 추천), 본인 희망 학생
  - 지도자 확보 현황 : 지도교사 1명, 숲해설가 2명



- 주요프로그램 : 인디언 이름짓기, 자연의 규칙, 숲속 보물 찾기, 씨앗 속의 비밀, 같은 것과 다른 것, 나를 믿어봐, 숲에서 희망찾기, 나눔의 시간 등
- 「숲학교」운영 전후의 변화 측정 : 풍경구성법 활용

#### □ 「정보윤리학교」 운영을 통한 건전정보 문화 확산에 기여

##### ○ 운영현황

- 협력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시간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후 시간 활용
- 관련 동아리 운영 : 아름누리활동단

##### ○ 실적

- 건전정보생활의 정착을 위한 워크북 제작 및 활용
- 정보윤리 수업용 학습지 개발

#### □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또래 문화 창조

##### ○ 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또래 문화 창조

- 국악 타악 합주 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
- 난타부, 오카리나합주반, 미술반 등 조직 및 운영

##### ○ 청소년 준거집단 활성화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또래 문화 창조

### III. 사업 효과

- 학교폭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숲학교」 프로그램의 적용은 교육활동 시간에 비례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다.(풍경구성법에 의한 조사 결과)
- 「정보윤리학교」의 운영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역기능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정보생활인 양성이 가능해지고 있다.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로 학교 구성원 간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대안교실 덕분에 이제 담배도 안 피워요!

두송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두송중학교		학교장(직위)	최계자(교장)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송로 76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신재복	051-260-5430	gomdori420@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831명		25개(특수1개)	42명
학교소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성실하게 실천하는 심신이 건강한 인재를 기른다'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창의·인성교육 강화에도 열정적인 노력을 견주고 지역 공동체의 교육의 화합이 돋보이는 학교임.			

### II. 주요 사업내용

#### □ 학교 내 대안교실

- 학교폭력 고위험군 : 20명(3학년 12명, 2학년 8명)

내용	시 간	방법
축구 동아리	월1회 방과후	학생들 간 연습 및 남교사와 학생 간 시합
극기체험	1박 2일, 2012.1.26~27	동계: 함안 여향산 등산 및 캠프파이어
	2박 3일, 2012.8.16~18	하계: 지리산 등반 및 래프팅, 10일간 체력훈련
몸과 맘이 따뜻한 暧봉사	연1회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 교직원 및 학생 성금으로 연탄 120장과 쌀 20kg을 직접 배달



축구동아리



동계 극기체험



하계 극기체험



몸과 맘이 따뜻한 暖봉사



- 학교 부적응군 : 8명(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내용	시간	방법
방과후 스포츠	주1회 방과후	배드민턴 개인 지도 및 게임
문화체험	월 1회 방과후	야구관람, 연극체험, 여수세계박람회 체험, 해양스포츠 체험, 부산국제영화제 체험
상담 활동	점심시간 및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리검사 및 교사관찰을 통해 발견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 실시</li><li>-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근절 노력</li><li>- 담임 및 생활지도부 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가 정보공유하며 입체 지원</li></ul>



몸튼튼 마음튼튼 운동교실



연극 체험



여수세계박람회 체험



상담활동

- 선도처분 학생 : 6명(2학년 2명, 3학년 4명)

내용	시간	방법
선생님과 함께 마음청소	선도처분기간	선생님과 함께 교내봉사 및 상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선도처분기간	교사, 학부모, 간부학생, 경찰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 III. 사업 효과

#### □ 대안교실 운영 성과

- 교과부 장관 대안교실 일일체험
- 학생 성적 향상 : 3학년 83.3% 향상, 2학년 37.5% 향상
- 학교폭력 빈도 및 흡연율 감소

폭력 및 비행	2011년	2012년(8월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7명(5회)	3명(3회)
선도위원회	38명(8회)	5명(3회)
흡연 저발 학생	13명(3회)	0명
비고	집단폭행, 따돌림, 흡연	단순싸움, 절도

- 다양한 체험활동(극기, 상담, 봉사)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 교사 및 학부모의 긍정적 평가



##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우는 「꿈 키움 교실」

성포중

### I. 학교 현황

학교명	성포중학교		학교장(직위)	박종철
주 소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46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이영수	055-632-5108	386soo@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133명		7개	15명
학교소개	<p>본교는 면 단위의 소규모 남녀공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인근의 소규모 조선소가 부도나는 바람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생이 많고,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학생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느티나무 반 운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타 시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켜 전입해오는 학생들로 기준의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환경에 놓여있다.</p>			

### II. 주요 사업내용

#### 가. 실천과제의 설정 이유

경남교육청의 학교 내 대안교실의 브랜드명인 꿈 키움 교실은 합성어로 꿈이란 ‘자기 삶의 목표(진로)’와 키움이란 ‘스스로 성장하게 함’으로 “꿈을 찾고 키워가는 과정 속에 움트는 인성”이란 슬로건 아래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교부적응과 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 실천과제 1 : 나를 알고 나를 찾아가면서 변화하기  
자신 돌아보기를 통한 단계별 스토리가 있는 나의 꿈을 견인할 여건을 조성한다.
- 실천과제 2 : 꿈 키움 교실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몸만들기  
잘 노는 것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실천과제 3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상담활동에 참여한다.



전문상담 순회교사 상담



텃밭 고구마 캐기 또래상담활동



## II. 주요 사업내용

꿈 키움 교실의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학생이 학교폭력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실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업효과를 얻었다.

첫째, ‘스토리가 있는 나의 꿈’ 찾기를 통해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학교에 대한 태도 변화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어 비전을 갖고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을 통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생들 간의 상대적 비교와 이기적 경쟁심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감사, 존중하는 마음을 5 有(유) 운동으로 함양시켜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자신존중, 개인 상호간의 존중,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식을 내면화시켜 자신의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 프로그램 활용은 부적응 학생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 학교부적응 가능성을 감소시켜 결국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넷째,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발표나 대화를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여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간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사제동행하여 실시한 교통지도와 화장실 청소활동을 통해서는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을 더 깊게 경험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



가족사랑 스포츠 체험 행사 사직야구장



1인 1꿈 갖기 활동 자료



부자사랑캠프 경호강 래프팅



## 1박 2일 아름다운 비행 「힐링 캠프」

옥천상고

### I. 학교 현황

학교명	옥천상업고등학교		학교장(직위)	구욱서(교장)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44 (옥천상업고등학교)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교사	박상조		carrollpark@hanmail.net
학교현황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510명		18개	40명
학교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읍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로 남녀 공학 혼성 18학급</li> <li>• 진학과 취업률이 5:5 정도</li> <li>• ‘생각은 깊게 이상은 높게’라는 교육이념</li> <li>• 결손가정의 학생비율이 높고, 경제사정 곤란 학생이 많음</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1박 2일간의 아름다운 비행 힐링캠프

##### ○ 가·피해 학생의 사전교육

- 학교폭력 유형별 교육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인식 전환 교육

##### ○ 힐링캠프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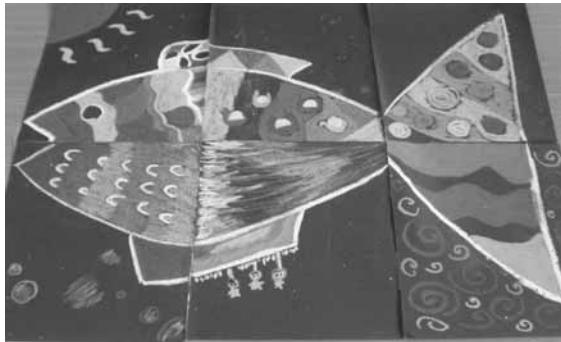
- 가정통신문 발송
- 전문상담교사의 학생 상담

##### ○ 캠프를 통해 가·피해학생이 단계적 참여 유도

- 1단계 : 아름다운 비행을 위한 ‘스스로 알아보기’
- 2단계 : 아름다운 비행을 위한 ‘서로 함께하기’
- 3단계 : 아름다운 비행을 위해 ‘서로 손잡기’
- 4단계 : 아름다운 비행 ‘함께 날아오르기’



### ○ 주요활동사진



〈협동화 그리기〉

가피해 학생 6명이 한조가 되어 각각의 조각 그림을 완성하여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힐링 트레킹〉

약 한시간의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하는 저녁식사〉

가피해 학생들이 협력하여 준비한 식사를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다같이 하나된 캠프의 아침〉

아쉬운 힐링캠프의 마지막... 이른 아침 산책을 마치고 하나 된 마음으로 “김치~~”

## III. 사업 효과

### □ 힐링캠프를 통한 변화

- 학교폭력 사건의 대폭적인 감소
- 학교폭력에 대한 가·피해 학생들의 인식 변화
- 학교폭력의 가·피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실 문화 형성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들의 이해, 소통, 배려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아름다운 비행 힐링캠프’라는 학교폭력 예방장치 마련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우수사례. 자치단체

**갈등조정능력 향상으로 학교폭력 해결을 모색하다.**

남양주시

## I. 단체 현황

단체명	남양주시		단체의장 (직위)	이석우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지방행정서기	박진환	031-590-2266	ggoda83@korea.kr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60만의 쾌적한 녹색명품 도시,</li> <li>-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li> <li>- 경기동북부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도시</li> <li>-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1)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조정센터 개소 (4쪽)

- 개요
  - 설치일 : 2012. 9. 20
  - 장소 :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주요사업
  - 「학교폭력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및 「학교폭력갈등조정위원회」 양성교육
  - 「폭력 Out, 다산 스쿨」 : 회복적통합시스템 운영 학교
  - 「남양주시 청소년 영상·사진전-폭력없는 행복누리 스케치」
  - “회복적통합시스템” 대상별 특화교육 실시
  - 방관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갈등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 2) 시장과 청소년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 개최 (8쪽)

- 일시 : 2012. 9. 4(화) 15:00 ~ 18:00
- 장소 :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 인원 : 222명 (관내 중고생, 늘정위원, 청육위원, 교사, 학부모등)
- 내용 : 청소년 비전특강, 토론(학교폭력·욕·왕따등이 내꿈에 비치는 영향외 다수 주제) 및 발표, 시장과 미니토크, 시상 등



###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9쪽)

- 일시 : 2012. 10. 15(월) 08:00~ 19:00
- 장소 :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축구장
- 인원 : 1,000명(청소년, 교사, 학부모등) 참가팀 28팀(중17팀, 고11팀)
- 예산 : 40,000천원 (학교별 동아리 활동지원비 및 시상금 지급)
- 사항 : 대회종료후 설문조사 실시하여 2013년도 사업에 반영

### 4) 청소년 1388또래상담원 발대식 및 청소년 음악캠프 개최(11쪽)

- 일 시 : 2012. 11. 13(화), 14:00~16:30 (**예정사업**)
- 장 소 : 호평체육문화센터(호평동 소재)
- 인 원 : 약 1,000명(청소년 또래상담사 135명, 수협생등 865명)
- 전 행
  - 발대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음악회 :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공모선정)  
(평화방송사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진행)
- 내 용
  - 1부 : 청소년 또래상담자 위촉 및 발대식(중·고학생 – 총135명)  
**우수 또래상담사 표창장 수여 및 우수 상담 사례 발표**
  - 2부 : 수협생 청소년을 위한 음악캠프(라디오 공개방송)

## III. 사업 효과

- 공부와 함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 학교폭력·따돌림등의 청소년 문제를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므로써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
- 학교폭력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전세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증대됨

## 학교폭력은 학교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

송파구

### I. 기관 개요

기관명	송파구		기관의 장 (직위)	박준희 (구청장)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25-9)			
담당자	직위	성명	핸드폰	이메일
	주무관	안색주		ridecow@songpa.go.kr
기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동남쪽에 위치한 면적 33.88㎢, 인구 약 68만명의 대도시</li> <li>• 유·초·중·고등학교 133개교, 학생 약 9만5천명</li> <li>•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도시개발 및 신도시 추진 지역(롯데월드타워, 문정지구개발, 위례신도시 등), 잠실관광특구 지정.</li> <li>- 서울동남권의 유통 및 교통중심지(동남권 유통단지, 롯데월드, 지하철 2·3·5·8·9호선 등)</li> <li>- 국제규모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집중지역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풍납·몽촌토성 등)</li> <li>- 송파 4G시대를 열어갈 「미래인재 발굴·육성」 비전 아래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조성과 '바른 인성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학교·지역사회·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바른인성 더 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함.</li> </ul> </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바른 인성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학교-지역사회-기관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 서울시 최초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 전국 최초 조례상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명문화
  -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학교(한국체육대학교), 지역사회(KACE·패트롤맘·사회복지관), 경찰서,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력망 구축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 제로 시범학교」 운영
  - 학생 주도 「힘내세요! 선플달기」 운동 확산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 졸업식 문화개선 캠페인
  - 학교폭력 근절 자정결의 대회 및 예방교육
  -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 학교·학부모와 소통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지원



- 가·피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화와 소통 매뉴얼' 제작 배포

#### ○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청소년 바른 인성교육」
- 몸튼튼·마음튼튼·공부튼튼 「체인지(體·仁·知) 토요학교」
-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하는 「토요일에 만나는 동아리 친구들」
- 행복한 학교·좋은 부모 아카데미
- 바른 인성·행복한 사회 「인문학 아카데미」
-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자원봉사활동
- 자신감을 키우는 「송파구학습능력키움센터」 설치·운영
-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살아있는 도서, 「미래의 나」와 만남

### III. 사업 효과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폭력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구축

-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학교폭력 대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의무화로 지속적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
-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및 「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 ▶ 민(패트롤 맘·학부모·학생·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단체)
  - ▶ 관(구청·교육지원청·경찰서)
  - ▶ 학(교수·정신과 전문의·변호사) 협력기반 마련
-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센터」 설립,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폭력 대책 직·간접 개입 체계 구축

□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총체적 책임이라는 인식 확산과 지역지원을 활용하고 함께 연계하므로 예방활동의 활성화 도모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추천으로 송파구에서 우수사례 발표

## 전문 상담사, 또래상담자,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다각적 접근

순천시

### I. 단체 현황

단체명	전라남도 순천시		단체의장 (직위)	조충훈시장
주소	순천시 장천동 53-1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보건7급	박소영	061-749-6771	psy2887@korea.kr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동부 남해안 중심에 위치(인구 275천명)</li> <li>• 도·농 복합도시이며 제3차 산업 55%</li> <li>• 다양한 상태지원과 문화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 낙안읍성 민속마을, 선암사, 송광사 등</li> </ul> </li> <li>• 평생학습도시(2003년), 국제화 교육특구도시(2004년)</li> <li>• 도서관의 도시-시립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서 걸어서 10분, 자전거 5분 거리에 도서관 위치</li> </ul> </li> <li>•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 – 전국최초</li> <li>• 학생들의 창의 인성 체험 학습의 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리등 교과서에 소개</li> </ul> </li> </ul>			

### II. 주요 사업내용

#### □ 창의 인성 체험 교육 System 개발 운영

- 도심중앙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문화광장 조성으로 청소년들만의 공간조성
- 초등학생 생태 체험 전용(2층버스) 프로그램 운영

#### □ 학교폭력 예방 전문 상담사 양성

-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지원 MOU 체결 – 전국최초
  - 순천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순천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상담사-120명, 학교폭력예방교육사-60명

#### □ 학교폭력없는 안심도시 만들기 범시민 참여

- 순천시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구성-14개기관단체/3회운영(분기별)
- 학교폭력없는 안심도시 만들기 정책토론회-종합대책 마련 발표
- 범죄예방교실 『골든벨』 운영-75개교 46,000명



#### □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1명(총4명)
-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전문상담사 1명/상담실적 2,385명
- 인터넷중독 가족치료캠프『위기탈출-e세상』 운영
- 학교폭력근절을위한 솔리언또래상담자 양성–21개교 180명

#### □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 Green Bud 멘토링제 운영–12개교 60명
-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스포츠리더쉽캠프 “희망키우기” 운영–50명
- 목격자 신고유도 『目』 소리함 설치–112개소

### III. 사업 효과

- 순천시는 인구대비 학생비율이 전남지역에서 가장높다. 이는 도시 관계기관들과 시민들의 교육환경조성의 노력의 결과이다.  
순천시는 매년 1천여명 정도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교육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인구대비 학생비율–(순천16.9%, 여수13.8%, 광양15.0%)
- 2012년 1년간 순천시에서는 사회문제가 될 만한 학교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2년전에 속칭 문제아 학교로 낙인찍혔던 순천승평중학교에서는 작년과 금년들어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순천시 해룡면 농촌마을에 위치한 승평중학교는 가장 큰고민이 잦은 학교폭력이었다. 말썽꾸러기들의 전입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진정성있는 체험학습과, 인근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창의 인성 체험과 마음껏 끼를 발산시킬수 있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문화광장조성, 그리고 학교폭력없는 안심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기관단체들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가 결국 순천시에서 학교폭력을 몰아내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또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성 갖춘 상담시설과 상담사의 양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Green Bud멘토링 희망키우기 운동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을 키워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로 학교주변 폭력예방

안산시

## I. 단체 현황

단체명	안산시청		기관장(직위)	김철민(시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2동)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	권성화	031-481-2219	ksunghwa@korea.kr
단체소개	<p>안산시는 고려 충렬왕34년(1308)에 안산군으로 승격되어 조선시대 (1914년)에 반월면, 수암면, 군자면 3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자로 11개동을 관할하는 “안산시”로 승격되었고,          2002년 11월 1일 상록구와 단원구를 설치하고 25개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서해안의 중심지이자 출발점으로서 100만 안산을 목표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문화·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p>			

## II. 주요 사업내용

## □ 중점 추진사업

- 인성발달 및 학교폭력예방 우수프로그램 발굴
- 체계적인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폭력(따돌림)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주변 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 전국 최초로 청소년 지킴이 로보캅순찰대 운영
- 부모대학 –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 □ 그 밖의 추진사업

- 청소년보호위반자 신고포상금제, 탁틴청소년 성문화만들기,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등
- 해외문화탐방, 국토도보순례 캠프 등 청소년소년 행사 보조금 사업(8개 사업)



### III. 사업 효과

- 최근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단체장(안산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 내·외 폭력대책, 선도 활동, 행사·문화활동 사업 등 다각적인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다문화 폭력(파돌림) 대책에 최선을 다함

## 학교폭력 체험관과 뮤지컬을 통한 인식 제고

안양시

### I. 단체 현황

단체명	안양시		기관장(직위)	최대호(시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청소년팀장	박주준	031-8045-2144	joojoon@korea.kr	
단체소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은 『청소년의 천국』으로 가꾸는 것임. 청소년은 청소년의 활동과 문화·복지, 상담·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할 인격체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7%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 혁신교육 차별화 환경구축, 인재육성장학재단운영, 청소년육성재단운영 및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희망, 청소년을 위하여 많은 재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매진하고 있음.				

### II. 주요 사업내용

#### □ 학교폭력체험관 운영 및 뮤지컬 공연

-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상황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체험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체험관, 예방관, 상담관 총 4개의 체험관 운영
- 뮤지컬의 다양한 연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개척을 고민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여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뮤지컬 공연 추진
- 뮤지컬 공연 내용을 CD로 제작하여 관내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하여 학교폭력 교육교재로 활용

#### □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 학생들의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며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인성적인 완충장치가 요구됨
- 경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체득하기에 용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왕따 및 욕설등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시켜 인권존중 및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체험학습이 용이한 사춘기 도래 초등학생(5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 하여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
-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전체 초등학교(5학년 전학급)로 확대운영  
※ 2012년(11개교 2,100명) → 2013년(20개교) → 2014년(40개교 7,600여명)



#### □ 학교폭력예방 포스터 공모전

-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포스터 공모 사업을 추진
- 우수작품을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공연 등에 전시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제고

### III. 사업 효과

#### □ 학교폭력 체험관 운영 및 뮤지컬 공연

- 총 4회의 공연을 통하여 관내 총 3,600여명의 청소년들이 관람
- 피해 학생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 단회기성으로 끝나는 예방교육이 아닌 총 10회기로 내용을 강화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확산
- 참가학생들에 대한 배려행동척도, 학교생활만족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학교폭력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 □ 학교폭력예방 포스터 공모전

- 총 123명의 관내 초·중·고 학생이 접수하여 수상자 20명 선정
- 우수작품을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공연 등에 전시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우수사례. 특별 프로그램

## 특별 프로그램

### 부모님과 함께 받는 교육 ‘내 믿음이 나를 「이룸」’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Wee센터

## I.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개요

기관명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Wee센터		기관장(직위)	배용호(교육장)
주소	경북 영주시 기흥로165번지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Wee센터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전문상담교사	김진선	054-630-4214	kjscounsel@gyo6.net
단체현황	직원수		연간 프로그램 수	
	9명		15개	
단체소개	Wee에는 나(I)와 너(You) 속에 우리(We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들의 감성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주교육청Wee센터는 다양한 전문인력(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이 상주하는 멀티상담센터로서,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를 서비스하는 원스톱 상담센터입니다.			

## II. 프로그램 내용

### □ 추진배경

- 2010년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Wee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도교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교실 「새싹」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후 2012년 4월 관내의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 “내 믿음이 나를 『이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 □ 사업개요

- 사업 명칭 : 특별교육 “내 믿음이 나를 『이룸』” 프로그램
- 기간 : 매월 넷째주 (5일간 : 09:00~16:00 1일 7시간)
- 장소 : Wee센터 다목적활동실 및 체력단련실 체험활동장
- 대상 : 초, 중, 고 특별교육이수명령 대상자 및 학부모
- 이수방법 : 특별교육프로그램 90%참여시 수료증 수여

## III. 프로그램 성과

### □ 교육내용

- 오리엔테이션 : 특별교육프로그램 목적 소개 및 멘토, 프로그램담당자소개
- 심리검사(1:1멘토상담자) 학생 : MMPI-A검사, SCT, HTP, KFD검사 실시  
학부모 : SCT검사, PAT(부모양육태도검사)
- 개인상담(1:1멘토상담자) : 분노조절, 자기탐색, 비폭력대화법 등
- 집단교육 및 특강(학생, 학부모) : 경찰서연계 학교폭력특별법



- 집단상담 : 각 상담사별 프로그램으로 진행
- 봉사활동 : 사회복지시설
- 체험활동 : '소백산 자락길 걷기'를 통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 □ 세부일정

시간 요일	오전 (09:00~12:00)		점심시간	오후 (13:00~16:00)	
월요일	오리엔테이션 (학생+학부모)	부모-자녀성격이해 (MBTI 성격검사활용)	점심시간	학교생활법과 학교폭력의 실제 (학생+학부모)	감사일기, 다행일기 소감나누기, 청소, 마무리 및 귀가(학생)
화요일	<b>인성-봉사</b> (노인요양원)				
수요일	개인상담	미술치료 꼴라쥬 작업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점심시간	운동 (탁구 및 베드민턴)	감사일기, 다행일기 소감나누기, 청소, 마무리 및 귀가(학생)
목요일	<b>夫子(부자)여행</b> ( 숲 자락길 夫子(부자)걷기 산행-이수자, 학부모, 멘토상담자, 프로그램담당자)				
금요일	개인상담	통!통!통! 의사소통 프로그램	점심시간	자기를 찾는 심성수련 프로그램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및 발표 - 수료증 증정 전체마무리 및 귀가(학생)

#### □ 사업추진실적

2011.1.1. ~ 2012.10. 현재

연도 (연)	특별교육 대상자수 (명)	이수자수 (명)	이수율 (%)	평균이수 시간 (총이수 시간/명)	학부모평균 이수시간 (총이수 시간/명)	교사 (강사) 수(명)	특별교육후 재발감소률 (이수자수/적응수)
2011	14명	14명	100%	18시간 (254/14)	0.85시간 (12/14)	6명	100%(14/14)
2012	19명	19명	100%	21시간 (413/19)	7시간 (142/19)	9명	95%(19/18)

#### □ 추진성과

- 폭력행위에 노출된 위기학생들의 심리적 및 행동 등을 특별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자아형 성과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줌.

- 1) 심리검사를 통한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성격적 장·단점을 확인 시켜 자아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줌.
- 2)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법을 배움.
- 3) 폭력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심리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모두가 피해자임을 확인시켜 행동교정에 기여 함.
- 4) 봉사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하게 하여 나눔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함.
- 5) **夫子(부자) 여행-** 소백산자락길 걷기 산행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확인 하는 시간을 만들어 줌.

## 가해학생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솔 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 I.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개요

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관장(직위)	김신호(교육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00번지 새솔센터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장학사	유영길	042-480-7647	hisyoung@edurang.net
단체현황	직원수		연간 프로그램 수	
	8명		460case(10월 현재)	
단체소개	<p>‘새솔센터’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li> <li>청소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정행동을 촉진하고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li> <li>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기관</li> </ul>			

### II. 프로그램 내용

####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새솔센터) 설치 및 운영

- 교육 장소 : 대전시 서구 구암동 (구) 유성중학교
- 시설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폐교된 중학교 건물을 개·보수 하여 특별교육 기관 설치 및 직접 운영
- 새솔센터 운영 인력

구분	담당자	인원	주요 업무 내용	비고
총괄	학생생활안전과장	1명	▶ 가해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총괄	
기획	업무담당 장학사	1명	▶ 가해자 특별교육프로그램 기획·관리	
시설 구축	사무관	1명	▶ 시설구축(리모델링),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실무	주무관	1명	▶ 가해자 특별프로그램 실무	
운영	전문상담사	7명	▶ 가해학생 및 특별교육프로그램 진행	

#### □ 프로그램 목적

-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재활적인 미술심리치료, 개인 및 집단,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에 대한 올바른 자아정체성 확립의 기회 제공

#### □ 프로그램 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1호, 9호 처분을 제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506명(2012. 6월 ~ 10월 현재까지)



#### □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위한 다양한 새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특별교육 이수시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총 10종

특별교육 유형	프로그램명	입교	교육 시간
특별교육	4시간	징검다리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특별교육	6시간(1일)	새솔푸름	매주 목요일 9:00 ~ 15:50
특별교육	2일	새솔빛	매주 목요일 ~ 9:00 ~ 15:50
특별교육	3일	새솔나래	매주 월요일 ~ 9:00 ~ 15:50
특별교육	5일	새솔바람	매주 월요일 ~ 9:00 ~ 15:50
특별교육	10일	새솔향기	매주 월요일 ~ 9:00 ~ 15:50
특별교육	15일	새솔방울	매주 월요일 ~ 9:00 ~ 15:50
특별교육	20일	새솔열매	매주 월요일 ~ 9:00 ~ 15:50
개인(가족)상담	5회 / 10회	새솔기쁨	개별적 예약을 통해 수시 진행
개인 심리치료	5회 / 10회	새솔기쁨	개별적 예약을 통해 수시 진행

- 가해학생 특성 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 활용 - 총 8종
- 가해학생의 심리적 문제점 해결 및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심리재활프로그램 활용 - 총 9종

#### □ 산림청과의 협약을 통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회당 20여명(학교폭력 특별교육 학생)
- 기간 : 2012. 10. 8. (월)~11. 30. (금) 총 10회
- 방법 :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장태산 및 부여 근교 숲체험교육 실시
- 인력 : 새솔센터 전문상담사(5명) 및 산림청 숲 해설사(1명) 활용

### III. 프로그램 성과

#### □ 가해학생의 올바른 자아인식 및 심리재활에 높은 성과를 보임

- 심리재활 프로그램 참여인원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수료인원	83명	164명	102명	72명	85명	506명

-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실시 결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은 높아지고 학교폭력 재발율은 매우 낮아짐.
- 새솔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506명의 학생들이 심리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 그 중 99.4%(503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3명의 학생만이 다시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 가해학생의 가해유형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성과를 높임

- 학생 개인별 상담 및 심리 검사 후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개별화된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10점 만점).
-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자아에 대한 은유를 표현하기 위한 ‘점토’ 활동이었고(9.33),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8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 새솔센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화된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자들에게 우수사례로 소개됨.

**‘좋은성품마을 성품지구대’에서 좋은 성품 만들어요!**

울산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I.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개요

기관명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장(직위)	이은영(소장)
주 소	울산 남구 달동 637-10번지 마이코즈 3층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상담원	박혜진	052-291-1388/070-4271-0033	2911388@hanmail.net
단체현황	직원수		연간 프로그램 수	
	5명		47개	
단체소개	<p>본 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및 교육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CYS-Net)하여 맞춤형 one-stop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p> <p>※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p>			

## II. 프로그램 내용

### □ 초등성품 리더십교육 “성품대장어린이”

- 경청, 배려, 인내, 책임, 긍정적 태도, 정직, 감사, 용서, 절제, 순종 등 매월 한 가지 주제성품을 인지, 정서, 행동 3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아동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방법을 통해 바른 성품의 경쟁력을 지닌 건강한 인재를 육성

### □ 좋은성품 자녀키우기 “성품파파스쿨”

- 2주간의 부모코칭과정으로 부모로서 5가지 성품을 회복하고, 자녀와의 좋은 성품 대화기술, 자녀 훈계법을 배우고 적용

### □ 좋은 성품 지도자세우기 “성품이노베이션”

- 아동의 성품리더십 향상·가족기능강화·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과 더불어 아동을 둘러싼 체계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다음세대 건강한 성품의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성품지도자를 양성

### □ 성품특강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의 성품”

- 성품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품교육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에서부터 문제행동을 좋은 성품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성품교육의 방법을 제시



### III. 프로그램 성과

#### □ 교육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아동의 지속 가능한 성품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경청, 배려, 인내, 책임감, 긍정적태도, 정직, 감사, 순종, 절제, 용기 10개의 주제성품 중 현재 5개 성품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 아동의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 교과간 연계를 통해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인성교육 확대

#### □ 부모교육 확대 및 부모 책무성 강화

- 자녀양육·의사소통 기술향상
  - 부모 성품코칭 과정을 통한 아동의 양육·의사소통 기술 등 가족기능향상
- 가족기능향상 및 애착관계 형성
  - 학교(센터)-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및 책무성향상

#### □ 학교(기관)-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 아동의 환경체계인 가정, 신청기관(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극대화 도모

#### □ 성품특강 및 성품교육매뉴얼 도입으로 아동센터 교육서비스의 내실화

- 지역사회 성품교육 필요성 인식 확대 및 적용
- 지역아동센터 성품교육 서비스 내실화로 전문성도모
- 지역아동센터 내 성품교육의 실효성 및 중요성 인식

## 학생과 학부모를 변화시키는 ‘부자일체 감동캠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 I.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개요

기관명	학교생활안전지원과		기관장(직위)	우인상(과장)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번지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장학사	방명환		pmh1006@ice.go.kr
단체현황	직원수		연간 프로그램 수	
	9명		20개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담당</li> <li>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담당</li> <li>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li> </ul> </li> </ul>			

### II. 프로그램 내용

#### □ 프로그램명 : 부자일체(父子一體) 감동캠프

#### □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 일정 : 매주 금요일(오후 5시 – 10시) \*수요증가 시 수시 임시개설
- 교육 장소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1층 생활문화강의실)
- 참석 대상 :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 참석 인원/교육회수 : 40명(학부모 20명, 학생 20명)/50회
- 총 교육예정인원 : 2,000명(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 □ 프로그램 내용

시간	주요 진행사항	프로그램 내용	비고
17:00~17:40 (40')	영상물 시청 오프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그콘서트 &lt;아버지의 마음알기&gt;</li> <li>감성을 자극하여 참여자들의 소통을 돋는 환경조성</li> <li>• 에드먼드 &lt;아버지와 동행&gt;</li> </ul>	
17:40~19:00 (80')	조이룸/구호/ 포스터그리기/ 조별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가 모두 참여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제작</li> <li>교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프로그램 진행을 돋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의 신뢰를 이끌어 냄</li> </ul>	
19:00~19:10 (10')	허깅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킨십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시청</li> <li>• 실제 올바른 포옹하기법 시범</li> </ul>	
19:10~19:50 (40')	강의(학생·학부모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아버지의 영향력, 폭력의 대물림 )</li> <li>• 자녀 (비전탐색)</li> </ul>	
19:50~21:10 (110')	부모·자녀에게 편지쓰기 편지 읽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에게 편지쓰기/자녀에게 편지쓰기</li> <li>작성한 편지와 존경 이유 서로 읽어주기</li> <li>• 편지와 존경(사랑)하는 이유 골고루 발표</li> </ul>	
20:10~21:50 (50')	‘사랑합니다’ 영상물 세족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마음열게 하는 영상 감상</li> <li>• 부모와 자녀 세족식</li> </ul>	
21:50~22:00 (10')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료증 전달 및 행정절차 안내</li> </ul>	



## □ 프로그램 성과

### ○ 운영 실적

운영기간	운영횟수	수료자수	운영인력	만족도
2012.5.11~10.26	27회	학부모510명/학생510명 계 1020명	243명(연)	학생 : 95.2% 학부모 : 98.2%

### ○ 운영 성과

-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99.5%감소  
⇒ 특별교육 참가자 510명 중 3명만이 학교폭력 재발
- 2012년 인천관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470명 중 특별교육 대상 학생 381명  
⇒ 대상학생 381명 중 330명 교육으로 87% 비중 차지('12. 8. 31기준)
- 수료자 만족도

구분	매우 유익했다	유익했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학생	66.8%	28.45%	4.16 %	1.31%
학부모	78.9%	19.3%	1.31%	0.44%

### ○ 프로그램의 차별화

구분	부자일체 감동캠프	타기관
즉시성	매우 높음	중간
내실화(강사·만족도)	매우 높음	검증 불가
효과성(재발율)	매우 높음(99.5%감소)	검증 불가
대상자	부모와 학생 동반 교육	부모 교육 중심
멘토방법	1:다중멀티멘토링 가능	1:1멘토링만 가능
부모-자녀 공감대 형성	자녀-부모 동반 체험활동으로 세대간 문화 이해 및 공감대 형성	개인 상담 중심으로 자녀 문화 이해에 한계
네트워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협력하여 사전·사후 및 지속적 지원 가능	연수 종료후 지속적 지원 어려움
추수지도	교육 종료 후 멘토링, 문자·편지· 메일등을 통한 추수지도 실시	불가

### ○ 프로그램의 일반화

-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및 책자 발간, 단위학교에서 강사 요청시 지원하여 단위학교에서 소규모 부자일체 감동캠프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학부모-자녀의 관계 개선, 교사-학생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임  
⇒ 관내 7개교 실시 : 강화갑룡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 계산여자고등학교,  
인천산업정보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2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우수사례. 수 기



## 소통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다!

곽상학

### I. 개인 현황

성명	곽상학		현소속	수명고등학교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57 신동아파밀리에 101-1402			
연락처			이메일	kwaksang@hanmail.net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선린중학교	2008.3월~2010.2월	생활지도부	기획
	수명고등학교	2011.3월~現在	생활지도부	기획

### II. 본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본 대책>을 급하게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4개 분야의 직접대책과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 3개 분야의 근본대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는 앞에서 제시한 학교폭력의 근본원인 3가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우선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이 폐해진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 대안이 전혀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어느 하나라고 지목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사회의 승자독식 현상에 따른 한 줄 세우기 무한경쟁 교육체제 속에서 교육이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 가운데 있는 재능과 열정을 찾아가는 교육이 사라지고 성적 경쟁만 남은 상황에서는 공부를 못 하는 아이는 열등감과 절망감에 짓눌리고, 잘 하는 아이는 계속해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짓눌린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로 나타나는 것이 집단 따돌림과 폭행 현상이다. 그리고 교정해줄 수 있는 교육적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원인은 우리 사회 가정의 급속한 해체와 가정교육 기능의 상실 현상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양극화 현상을 겪으면서 이혼이나 생계 문제로 인해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놓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유해한 대중문화나 게임 등에 방치되고, 쉽게 폭력에 노출된다.

불과 3~4년 전, 지금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 일곱 살이었을 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메이플스토리’, ‘크레이지아케이드’ 같은 류의 온라인게임에 취학 전 아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1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시간 12분(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1월 18일 조사발표)을 보내고 있으며 그 중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100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과 행태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휴대폰이 아이들에게 주어짐으로서 놀이미디어에 아이들이 매여 사는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년 후면 손 안에 든 핸드폰으로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 이를 하여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가 바로 그것이다. 손 안에 들고 있는 인터넷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는 우리 몸 전체에 컴퓨터를 장착하여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을 통해 공략해 오는 재미있는 컨텐츠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별씨부터 싸움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신종 놀이미디어에 넘겨준 부모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중독 상태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 와이브로 시대에 게임과 인터넷에 점령당한 우리 아이들과 학교는 학교 폭력의 사각 지대를 조금씩 자리를 내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공립 인문계 2학년 이과반 남학생반을 담임하는 학급 담임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과 급속하게 변하는 IT환경에 발빠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데 상당한 벼거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지도부에서 수년 간 근무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존중 사상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과 조우하며 교실의 수업 상황과 교우 관계를 원만히 풀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은 일차원 적인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와이브로 시대를 지극히 편하게 살고 있는 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작년(2011년)부터 올해(2012년) 남자 이과반 담임을 하면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학급 경영을 색다르게 모색해 보았고, 나름의 몸부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이 지면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 1.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 (내가 바로 영화의 주인공!)

### 가. 영화치료의 장점

책과 영화 모두는 생각을 확장하고 재구성 하며, 상식화하고, 교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절약과 생생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책보다 영화를 사용하는 장점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영화치료는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면 관람이 충분하고, 문자 해독력이 약하거나 지능이 낮은 환자나 아동 청소년들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보다 영화는 펌진성(수용자가 텍스트를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정도)이 강하고, 청각과 시각 문자언어 모두를 동원하므로 수용자의 각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다. 영화치료에서 등장인물은 또 다른 보조 치료자이거나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나. 주안점

토요일 자치활동을 활용한다. 영화를 활용한 테마별 통합논술 Multi-literacy 학습자료라고 소개한 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학습지에 옮겨 적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 토론을 한다. 치유적 관람은 영화치료를 염두에 두는 관람이고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감정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자신의 의견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것과 어떻게 달랐는가?
- 그들과 자신의 의견에는 새로운 관점이 들어 있었나?
-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
- 만약 영화가 등장인물로 하여금 대인관계 시 자신들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끔 해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담고 있었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다. 피드백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 자신의 문제와 연관된 듯 보이는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를 좋아했고, 누구를 싫어했는지를 또는 자신과 가장 닮은 캐릭터를 골라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만약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삶을 영화화한다면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 라던가 영화감독이 되어 영화의 결말이나 인물을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 시키겠는가? 등 영화의 메타포를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 탐색과 함께, 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달리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영화 속에서 어떻게 얻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고 피드백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2. 보드게임을 통한 만남 (몸짓과 대사가 있는 명품연기)

#### 가. 보드게임이 뭐지?

보드게임(boad Game)은 통상 판 위에서 말이나 카드를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블루마블과 같이 일정한 게임판(보드)을 두고 그 위에 몇 개의 말을 옮겨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거나, 포커나 화투처럼 정해진 숫자의 카드를 통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종류의 게임을 모두 포괄 한다.

세부적으로는 카드로 게임을 진행하는 카드게임과 주사위 및 병마를 특징으로 하는 보드게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둘 모두를 포괄하여 보드게임이라고 칭한다.

보드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대면하여 즐기기 때문에 주로 혼자 즐기게 되는 컴퓨터 게임과 다른 색다른 맛을 지니게 된다. 최근의 보드게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서 1만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영토확장과 재산증식에서 환경보호, 남녀평등과 같은 친사회적 소재까지 그 포괄 범위가 매우 넓다.



#### 나. 몸짓과 대사가 살아나는 명품 연기

그렇다. 보드게임은 컴퓨터 게임적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재미성 외에 별도의 효과와 기능을 갖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의 원인 중 사회 환경적 요인을 뽑으라 한다면 지나친 생존 경쟁, 사회적 스트레스 대안놀이 문화 부족, 건강한 정보문화 미형성 등이 될 것이다.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학교만 오면, 잠만 자던 학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웃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컴퓨터 게임으로 달려가는 청소년들에게 보드게임은 몸짓과 대사가 살아나는 명품 연기가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되었다. 교실에서 소통이 막히고, 불통이 되는 순간, 학생 간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사이버상에서는 불통이 되는 순간은 로그 아웃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또래를 만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불통은 곧바로 불화로 이어지고 불화는 또다른 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드 게임과 다양한 오프라인 놀이 문화는 청소년 대인관계의 단절감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 3. 마인드맵과 K척도로 너와 나를 알자. (생각지도와 기준점을 가지고 주인공 찾기)

#### 가. 한국형 인터넷중독자가진단 K척도

인터넷중독이란 내 생각보다 오래 사용하게 되고, 중단되었을 때 짜증이나 화를 내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금단증상을 보이고, 인터넷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서 결국 학교나 가정 또는 친구 관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치료 전에 진단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야 했다. 총점, 각 요인별 점수를 확인하게 했다. 우선, 1) 총점 : 108점 이상이거나 2) 1요인 : 26점 이상이고, 4요인 : 18점 이상이고, 7요인 : 17점 이상이라면 “고위험자사용자군”으로 분류했고, 1) 총점 : 95~107점 사이거나 2) 1요인 : 23점 이상이거나 3) 4요인 : 16점이상이거나 4) 7요인 : 15점이라면 “잠재적위험사용군”으로 분류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했다.



### K-척도 청소년 자기진단 (20문항)

수명고등학교

2011년 \_\_\_\_월 \_\_\_\_일 2학년 7반 이름 \_\_\_\_\_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1	2	3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1	2	3	4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1	2	3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1	2	3	4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1	2	3	4
2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	2	3	4
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	2	3	4
4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	2	3	4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앓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	2	3	4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	2	3	4
	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	2	3	4
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	2	3	4
6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 K-척도 청소년 자기진단 해석

수명고등학교

채점방법	총점▶ ① 53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1~6번) 합계 ③ 2요인(7~11번) 합계 ④ 3요인(12~16번) 합계 ⑤ 4요인(17~20번) 합계	총점▶ ① 1~20번 합계 요인별▶ ② 1요인(1~6번) 합계 ③ 2요인(7~11번) 합계 ④ 3요인(12~16번) 합계 ⑤ 4요인(17~20번) 합계		
고위험 사용자군	중고교생 총점▶ ① 53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7점 이상 ③ 3요인 11점 이상 ④ 6요인 13점 이상	초등학생 총점▶ ① 46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③ 3요인 10점 이상 ④ 6요인 12점 이상		
판정 : ①에 해당하거나, ②~⑤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급급 현상이 나타난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고통과 아파감, 헌팅 등 비도덕적 행위와 학습현기, 기대하고, 유흥생활에서도 인터넷에 몰입하고 있는 부른 학습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시간은 중고생은 1일 약 18시간 이상이며, 초등생은 수업시간도 5시간 내외로 충족된다. 대개 자신이나 친구에게 중독이라고 느끼며, 천연재로 굳음을 먹는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경감 및 대인관계 기피, 수줍은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충동으로 놀음을 즐긴다. 현실세계에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도 있다. ▷ 인터넷중독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중고교생 총점▶ ① 48~52점 요인별▶ ② 1요인 15점 이상 ③ 3요인 10점 이상 ④ 6요인 12점 이상	초등학생 총점▶ ① 41~45점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상 ③ 3요인 9점 이상 ④ 6요인 10점 이상	판정 : ①~④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기적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에 비해 보다 경미한 수준이지만, 유흥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접속을 하게 된다. 학습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경감을 보이거나 절망과 학습현기, 대인관계 기피, 수줍은 기분을 느낀다. 대체로 중고생은 1일 약 3시간 정도, 초등생은 2시간 정도의 경과시간을 보이며, 다른 학생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문제가 있다. ▷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주의가 모자여,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 지침을 따른다.			
일반 사용자군	중고교생 총점▶ ① 47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③ 3요인 9점 이상 ④ 6요인 11점 이상	초등학생 총점▶ ① 40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2점 이상 ③ 3요인 6점 이상 ④ 6요인 9점 이상	판정 : ①~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고생의 경우 1일 약 2시간, 초등생 약 1시간 정도의 접속시간을 보이며, 대부분 인터넷중독 문화가 있다고 느낀다. 심리적, 정서적, 유흥생활과 같은 특성에서도 평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현장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의로움이나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다. ▷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자속적으로 수용한다.				

<K-척도 청소년 자기진단 문항과 해석>



#### 나. 마인드맵(생각 지도로 나를 들여다보자.)

##### 1) Into (~속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인터넷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고 했다. 그저 솔직하게 인터넷이란 존재가 그동안 얼마나 나에게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접근하고자 했다.

##### 2) How?

5명씩 6개 모둠으로 나누었다. ‘인터넷하면 떠오르는 것은?’이란 제목 하에 각자 들고 있는 매직펜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과감하게 써나간다. 친구의 글에 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한다. 모둠별 대표학생이 나와 발표를 실감나게 한다. 공감하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Into)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존중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들은 경청과 협응에 매우 서툴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과 채팅으로 쉽게 온-오프되는 인스턴트 관계 형성이 그들을 서툰 인관관계를 강화시킨 셈이 된 것이다. 소통은 이렇게 교실에서 서서히 일어나며 모둠 간의 관계성, 발표를 통한 타인 의견 경청 등 소통을 향한 몸부림은 계속 일어났다.



## 4. 부모님과 스타크래프트를?

### 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한다?

이 생각은 큰 오산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교육이야말로 온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배제한 학교 공교육은 반쪽 짜리임에 분명하다. 아이들은 교사와 학부모, 나아가 사회의 건전한 성인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자라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을 통한 교감(交感)과 상의(相議)는 학생교육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도움말을 얻을 수 있고, 학부모는 교사로부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귀띔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서는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나. 무조건 못하게 하자?

7년째 매년 해오는 가정방문. 올해는 4월부터 가정방문을 했다. 가정방문을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학생의 컴퓨터다. 가장 학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와의 소통, 친구간의 소통도 예측할 수 있다. 설치되어 있는 게임들과 자료들을 동행한 학생들과 함께 점검한다. 물론 불시에 말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게임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게임 제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이들이 왜 재미있어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조건 못하게 하고, 컴퓨터를 거실에 놓고 매의 눈으로 감시만 한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타임아웃제를 정해 놓고, 아이가 게임 중에 부모가 강제로 전원 끄기를 하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은 닫히고, 마음의 장벽은 더 올라가는 것이다. 부모의 게임 교육이 필요하다. 왜 이 게임에 그토록 학생들이 몰입할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게임을 매개로 대화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때부터 게임중독은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른바 왕따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는 게임중독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구들과 어른들과 관계 맺기에 서툰 아이들이 게임으로 몰입되는 현상이 더 잣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편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을 단죄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우리반 장○○(18세)은 자신의 저조한 성적과 부모님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유일하게 위안을 주는 대상을 게임으로 꼽았다. 사실이 학생은 중학생 때 왕따의 피해 경험도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폭력적 언동으로 인한 징계 사실도 있는 학생이었다. 게임을 할 때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고, 이른바 루저(실패자)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게임을 할 때 게이머에게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소극적인 아이도 게임 모니터 앞에서는 클릭 올마이티 증후군(클릭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런 폭력성이 연습되고, 내재되면 언젠가는 행동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만 17세에 군대에 징집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만 7세만 되면 전쟁터로 징집이 된다. 스타크래프트의 전장으로, 리니지의 전사로, 스페셜 포스의 전투에 징집되어 손에 칼과 총을 들고 전사로서의 정체성과 친밀감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세상에서 들리는 청소년들의 또 다른 신음소리는 온라인 게임 중독이다. 보통 중독자들의 특징이 자신이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고려할 때, 10명 중 2명이 자신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가 상담한 실적을 보면 2003년 전체 3,774건의 상담 중에서 게임중독 상담 건수만 2,243건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그리고 상담자 중 89%가 청소년이다. 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73.4%가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있다고 밝히고 있어 통상 말하는 인터넷 중독이란 말이 청소년에게는 온라인게임 중독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된다.



## 5. 인터넷 휴(休)요일 및 이용계획서 캠페인

### 가. 컴퓨터, 왜 영원한 조연일 수 밖에 없는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넘어서면 자신의 바람직한 시간 관리와 대안 활동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인터넷 사용 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용계획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직접 인터넷 사용에 대한 주단위, 월단위 계획을 세우게 한다. 특히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안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감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컴퓨터는 가정의 조연이고, 우리의 자녀가 컴퓨터의 주인이자 가정의 주연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꾀 상위권에 있는 이○○(18세)군은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의 학생이다. 그럼에도 집 안에 혼자 있는 1대의 컴퓨터는 동생과의 사이에서 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어린 동생이 학교 숙제로 컴퓨터를 써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양보를 하지 않자, 종종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곤 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별 걸 아닌 것을 아는데 순간 ‘윽!’하는 것을 참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흥분을 관장하는 호르몬인데, 충동 조절과 분노 조절이 편도체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중독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한 안내

우리 아이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 온라인상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와 아이디가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한다.
-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알아두고, 업체가 제공하는 이용시간을 공공하게 체크한다.
- 자녀의 온라인상의 대인관계, 특히 온라인상의 낯선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자녀가 가입한 카페, 팬클럽 등 커뮤니티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자녀의 온라인 출판을 접속 경험을 파악하고, 필요시 출판을 차단 시스템을 이용한다.
- 자녀가 주로 다니는 PC방과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자녀의 정보개체화와 인터넷 기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기워야 한다.

우리 아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 인터넷 사용시간은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해서 정한다.
- 부모도 컴퓨터에 대해 알고 인터넷 사용에 모범을 보인다.
- 컴퓨터는 거실 등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둔다.
- 학습을 둘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청찬한다.
- 자녀가 여가시간에 인터넷 사용 이유에 따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식사나 균형질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 자녀 스스로 인터넷 사용 시간의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 자녀의 평소 생각이나 고민에 관심을 보여준다.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생활부적응이나 갈등이 자속되면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안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인터넷 사용조절 및 인터넷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주로화의 각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상담대표전화 1599-0075, 상담시간 : 평일(09:00-21:00), 토요일(10:00-17:00)
- 홈페이지 ([www.kado.or.kr/epc/](http://www.kado.or.kr/epc/))

## 나. 인터넷 휴(休)요일

학생들에게 ‘자동차 요일제’ 시행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 취지를 알려준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동차도 하루 쉬게 하듯이, 일주일에 하루는 인터넷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 휴(休)요일’에 동참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인터넷 사용조절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를 쉴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약속하고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를 각자 컴퓨터에 부탁할 것을 제안한다.



## 월 주차 인터넷이용 계획

이 주에 중요하게 할 일							
1	2	3	4	5	6	7	8

나의 각오  
이번 환주는 이번 각오로 지내볼래!

나의 인터넷 사용 계획표 세우기

나의 인터넷 사용 계획표를 작성해 전면적인 인터넷 유통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평일						
06:00~07:00						
07:0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23:00						
23:00~00:00						
00:00~01:00						
01:00~02:00						
02:00~03:00						
03:00~04:00						
04:00~05:00						

## 인터넷 휴 休 요 일

인터넷도 일주일에 어루는 뱉간날



## 6. ICT 활용 인터넷중독예방교육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 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예방이 최우선이다. 학교 담임 재량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인터넷중독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학급단위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2011년 9월 3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제26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양성과정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현장의 경험들과 자료들을 활용하여 ICT를 동원한 생생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둘 것!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공간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 만날 것! 인터넷 속에서는 사람들이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아무 생각 없이 실제 이름과 전화 번호, 주소를 남기지 말것! 온라인 게임도 스포츠와 같이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임을 생각할 것!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나, 자신이 게임에 불리하다고 접속을 끊어서는 안될 것! 상대방은 존칭을 써줄 것! 등 구체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대안 활동 제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사례이기 때문에 인터넷 대안 활동 제시를 남자 위주로 하였다. 가능하면 땀을 흘릴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신문 탐독, 독서, 토론, 영화 감상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찾아보게 했다. 주 2회 이상은 대안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대안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많이 한다고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대안활동보다는 쉽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대안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 중에서 봉사, 진로, 동아리 영역과 연계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 제작 분야에 유독 관심이 많은 우리반의 김○○(18세)는 U.C.C. 제작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친구다. 각종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동영상 컨텐츠 제작에 열의를 갖고 배우고, 참여했다. 특별히 이 친구는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경험이 있어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U.C.C.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친한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제법 그럴듯한 영상물을 만들어 냈다. 수업하는 반마다 들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진학·진로의 방향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재능으로 봉사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동영상 편집을 가르쳐 주고, 그들과 새로운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이 학생은 지금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에서 작은 영화를 한 편 준비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하여 비록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지만 지금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올바른 진로교육은 학교폭력이나 제반 생활지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 7. 야동(음란물)에서 빠져나와 야동(야구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위의 3. (나)에서 마인드맵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중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상당했다. 다양한 정보 획득, 온라인 게임, 음란물 접속이 청소년, 특히 남학생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것이다. 그리하여 단위학교 단위학급에서 할 수 있는 집단 상담 케이스로 6.(나)항목에서 언급한 대안 활동으로 야구를 선택하여 약 두 달 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보냈다. 여건의 제약이 많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정식 야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글러브와 공만 있어도 30분여는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한 스포츠가 바로 야구다. 남학생들에게 코리아 시리즈 열풍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야구에 대한 로망은 다 있기 마련이다. 공을 던지고, 받으면서 시선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혼자 있고, 운동 부족인 아이들이 교실 밖 활동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끈끈한 우정을 뜨거운 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땀을 흘리니 야동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야동(야구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고 활짝 웃는다.



## 8. 학생 곁에 오래 있어 주기(공교육의 교사의 책무)

공교육의 교사는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나 교육청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교과부나 교육청이 만들어가는 시스템 가운데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지치기 쉽다. 그렇지만 교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비판만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진정 교육자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여러 한계들 가운데서 자신의 교육자격 양심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또 자신이 판단한 바른 대안을 찾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학교문화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들의 힘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수업 2분 일찍 들어가기’, ‘수업 2분 늦게 나오기’, ‘점심 시간 교실 둘러보기’, ‘이동 수업 시 동선 파악하여 지켜 보기’ 등 담임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보적 정의나 중별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폭력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두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그 폭력을 지켜봤던 친구 등을 함께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서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러웠는지를 말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를 목격한 친구들도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의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자신의 폭력이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는지,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가족,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그 모든 사람들의 목격 가운데서 실천하게 해야 한다.



## 9. 브라우니! ‘언어폭력, 학교폭력’ 물어!!

요즘 힐링이 유행이다. 너도 나도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한다.

학교야말로 힐링이 필요한 곳이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배움의 공동체, 추억이 아롱아롱 쌓이는 아름다운 공간인 학교에서도 역시 상처와 고통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아파하는 모두를 가슴 깊이 안아 주는 것은 자연이라 생각한다. 이에 작년과 올해 우리반 학생을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관악산을 등반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등의 어깨동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론 휴일인 토요일에 산행을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막상 땀을 흘리며 등반을 하고, 환경보호활동도 하고, 바로 옆 서울대학교 교정도 밟아 보니,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우리를 그대로 품어준 것이다.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산이 우리를 치유해 준 것이다. ‘자연 속에서 스마일, 학교 폭력 굿바이!’ 또 요즘 유행하는 개그 유행어를 인용하여 ‘브라우니~ 언어폭력, 학교폭력 물어!!’라고 하는 비교적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슬로건을 걸고 대자연의 품에 있다 오니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한결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산길을 걸으며 진로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아이들 내면의 깊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 학급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이것이 진정 소통(疏通)인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다. 이런 학교 공동체에 학교폭력은 얼씬도 못한다. 평화로운 생명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 10. 못난이 송편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가족 내에서, 어디에서도 미움의 싹은 있다. 이해받지 못하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결여는 배타와 미움을 자아내고 그 결과는 흔히 폭력적 상처를 남긴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감싸 안기 어려운 갈등을 어떻게 용해해 나갈 것인가? 인간성의 내면 안에 잠재된 공격성은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흘러가는가? 용서와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 대한 질문과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드라마가 MBC에서 얼마 전(2012.10.24~25) 방영되었다. 생활지도부에 근무하는 터라 이 드라마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알고 있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지대한 지는 알았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서 학교폭력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움직임인 것 같아 내심 반가웠다.

드라마는 의외로 재미있었다. 자칫 교훈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려다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미와 교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모교 중학교로 발령 받은 젊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반에 집단 왕따를 당하는 한 학생 세진이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와 오버랩시키며 학교 깊숙이 뿌리 내린 왕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며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었다.

교육청 공문 방침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시청을 권고했는데, ‘바로 이거다.’ 싶었다. 이젠 더 이상 강의 같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지루하고 늘 하던 교육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를 따라 가다 보면 학생 스스로 느끼고 분개하고, 결단하게 되는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감수성과 사이버와 와이브로 시대에 사는 통통 튀는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앉혀 놓고, 일방적 강의식의 예방 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스로 느끼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왕따 문제의 해법입니다.**

구성아

## I. 개인 현황

성명	구성아		현소속	용산초등학교(경남 사천)
주소	경남 사천시 봉남동 479번지 용산초등학교			
연락처			이메일	mrchen4u@hanmail.net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용산초등학교	2012.03월~2012.10월	5학년 학급 담임	교사

## II. 본문

### 1.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봤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기 A와 B가 있다. A는 본교 영재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며 중간·기말 평가에서도 평균 95점 정도를 받을 정도로 공부도 잘 하는 남학생으로 커다란 눈이 예쁘장하고 머리와 옷차림도 깔끔한 편이다. B는 공부를 잘하지 않지만 물랑처럼 말끔하고 곱상한 외모에 맡은 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의 일도 잘 도와주는 성실한 여학생이다.

사이가 좋지 않아 과학 실험 활동을 할 때면 매번 다투곤 하는 이 평범한 아이들에게도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다. A와 B 모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3~4학년 때쯤 그 따돌림이 절정에 달했으며, 5학년이 된 후에도 친구들에게 계속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 1) 난 더러운 아이가 아니야! A의 이야기

3월 말 어느 날 이른 아침, A의 아버지가 담임교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교실로 찾아와 C학생을 크게 혼내고 간 적이 있다. 원인을 알아보니 C학생이 3학년 때 A학생에 대해 처음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매우 얌전하고 성실한 여학생인 C와는 전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A는 코를 파는 등 더러운 행동을 한다.’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A는 바닥에 떨어져있거나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것도 주워서 먹는다.’로 바뀌어 많은 아이들이 A를 슬금슬금 피했다고 한다.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A=더러운 아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병균취급을 하며 A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기라도 하면 그 물건을 버리거나 집단적으로 A를 때리는 행위도 일어났다고 했다.

내가 목격한 경우도 몇 건 있었다. 급식 시간에 남학생들이 A의 옆자리만 비우고 앉는 일을 2번 목격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남학생이 A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학기 초 학교에서 만들어 나누어준 이름표를 방과 후 다시 거둘 때도 A의 이름표가 자기 이름표에 닿았다면 호들갑을 떠는 여학생들의 모습도 보았다. 이상한 짐새를 눈치 채고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쳤을 때는 이미 조금 늦은 듯 했다.



A의 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이 C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나마 5학년이 되어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바로 전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할 때 A와 C가 같은 팀이 되자 C가 A를 향해 노골적으로 ‘여기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방과 후 이어진 상담에서 A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우리 아이는 식탁에 떨어진 음식도 안 먹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C는 우리 아이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음식도 주워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아이가 닿으면 오염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작년에 C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군요.”라고 이야기했고, A의 아버지는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도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언론에도 알려 공론화시키겠습니다.”

A의 부모님과 상담이 끝난 후 나는 C의 어머니와 상담을 이어갔다. C의 어머니는 ‘C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C만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좋지 않으니 A의 부모님께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더 커지기만 했다. A의 어머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오갔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C의 어머니가 직접 만나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얼굴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릎 꽂고 사과할 것도 아니고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다’며 A의 어머니가 만남을 거절했다.

A의 아버지는 학교로 찾아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고 고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 언론 보도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과 관련도 없고 중재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주도 학생의 강제 전학도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 이야기해도 어차피 개선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학교는 일을 축소하려는 생각만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며 잠시 후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A의 아버지와 교장선생님, 그리고 5학년 담임교사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A의 아버지는 진상파악을 위한 진술서, 관련자 명단, 관련 학생과 교장 및 학부모의 재발방지 각서, 가해자 상담, A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며 이후에도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A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B의 어머니에게 전하자 이번에는 B의 부모님이 홍분했다. 결론은 “우리 아이만 한 건 아니지 않느냐”였다. 나는 “B가 A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폭력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며 학교에 나오시도록 설득했다.

그 다음날은 내내 학생들의 진술서만 읽었다. A의 아버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무엇보다 진술이 필요했다. 진술서를 읽다보니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괴롭힘의 내용들도 나왔다. 기가 막힌 이 상황에 암담해졌지만 진술서에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 된 12명의 학생들을 찾아냈고,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주 열린 학부모 공개수업이 끝난 뒤 점심시간, 교무실에는 12명의 학부모가 모였다. 학부모들은 불쾌한 얼굴로 “그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말부터 꺼냈지만, 지금까지 A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듣고는 숙연해졌다. D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모님도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이나 사과 한 마디로 아픔이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그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처를 달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재발 방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날 5교시 A의 아버지가 양손에 간식거리를 가득 사들고 교실을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인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전까지는 마냥 강하고 독하게만 보였던 그 분의 얼굴이 웬지 마음 아팠고, 안쓰러웠으며, 그저 한 아이를 둔 마음 약한 아버지의 얼굴로 느껴졌다. 교단에 선 A의 아버지는 조금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A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A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지만, 아무진 여학생들이 옆에서 잘 보듬어주면서 친하게 지내주면 좋겠습니다. A랑 잘 지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인사를 끝낸 A의 아버지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며 교실을 나갔고, 아이들은 A에게 미안한 듯 ‘잘 먹을게’ 하는 인사를 건넸다. 웬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 2) 내가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 B의 이야기

“선생님, 우리 B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네요. 오늘 과학 수업 시간에 요구르트 병 때문에 놀림을 받았답니다.”

10월 중순의 어느 날 방과 후, 나는 B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아침에 가방 속에 들어있는 요구르트 병을 못 찾아서 친구들에게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 있어서 ‘찾았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온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그 반 여학생이 쓰레기통에 곰팡이 핀 요구르트 병을 버렸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울면서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날 과학은 6교시였다. 전담 수업이었기 때문에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로 들어가 안내장을 나누어주고 알림장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주느라 정신이 없어 마칠 때까지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았던 것이다.

B는 조금 내성적인 학생으로, 여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특히 남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와 눈이 마주치면 “왜 째려보냐.”며 불쾌해했고 B가 웃으면 “웃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고 타박을 주기도 했다. 정도가 심해서 1학기 때 일부 남학생들을 모아놓고 크게 주의를 주었는데 2학기가 되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이다.

“요즘 애들이 ‘셔틀’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갔더니 남학생들이 모여서 신발장 위에 복습일기를 올려놓고 쓰면서 B를 보고 교무실에 열쇠 가지러 갔다 오라고 하더래요. 열쇠를 가지고 오니 문은 자기가 열겠다고 열쇠를 빼앗아서 문을 열더니 남학생들끼리 안에 들어가서 B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 버렸대요. 밥 먹을 때는 B 앞에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수군수군 하면서 쳐다보면 뭘 보냐고 깔깔대고요. 한 번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D학생이 고자질했다고 쉬는 시간에 와서 발로 차고 보복을 했답니다. 지난 번에 목욕할 때 보니까 양쪽 종아리에 명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애 말로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집중 강타를 당하는 것 같아요.”

B 어머니의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B가 ‘장애인’이라는 놀림도 계속 받아왔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B는 이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긴장을 하거나 불안감을 느껴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잘 해주면 따돌리지 않을까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펴주는데, 물건이나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B를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다고도 했다.

“선생님, 저도 교사고, 학교에서는 인성부장도 맡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1학기 때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아이들이 변화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다. 믿고 있었던 아이들이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같은 반 친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담임교사라면서 아이들의 상태와 분위기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솟구쳤다. 자괴감을 느끼는 나에게 오히려 B의 어머니는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것이 나를 더 부끄럽게 했다.

다음 날. 나는 B 학생을 보건실로 보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나를 보는 아이들의 눈을 보자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모두 책상 위에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어제 B의 어머니께 들은 일과 내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일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조곤조곤 들려주기 시작했다. 말하는 중간 중간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렸고, 내 감정이 전달되었는지 몇몇 여학생들도 어깨를 움찔거렸다. 나는 이 이야기가 우리 반 친구 B에 대한 이야기임을 마지막으로 알리고, 아이들에게 빤 종이를 나누어주었다.

“종이를 세 칸으로 접어서 가장 왼쪽 칸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쓰세요. 가운데 칸에는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쓰고, 마지막 칸에는 내가 당한 일이나 본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누구 하나도 바로 엎드리지 않고 빈 A4 용지를 빼곡히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B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은 서럽게 울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보건실에 갔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보건실에서 B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교실에 B가 돌아오자, 아이들은 너도 나도 B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저렇게 쫓기듯 하는 사과에 과연 마음이 풀릴까. 나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B의 표정은 훌가분해졌다. 드라마 ‘못난이 송편’에서 왕따를 당하던 유민은 가해자였던 세진에게 사과의 문자를 받았을 때, 그런 문자 하나로 너는 마음이 풀리느냐는 담임의 말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라는 대사를 했다. 후에 드라마를 아이들과 시청했을 때, 그 대사가 그때의 B의 얼굴과 나란히 겹쳐져 괜히 코끝이 찡했다.

## 2. 함께 이겨내요!

### 1) 선생님과 함께 열어가는 아침

이른 아침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울 때마다 아이들은 세 부류가 되었다고 한다. 괴롭히는 아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거나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따돌림의 모든 원인을 교사에게 돌릴 순 없지만, 나는 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아이들이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선생님께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학부모님을 통해 전해들은 뒤론 나의 안일했던 대처가 창피하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아이들이 참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나쁜 행동을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8시 20~30분에 출근하던 나는 조금 더 학교에 일찍 오기로 마음 먹었다. 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아이들보다 먼저 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대부분 교실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는 것이 힘들어 우유급식 시간(20분)과 급식지도 후 남는 점심시간에는 잠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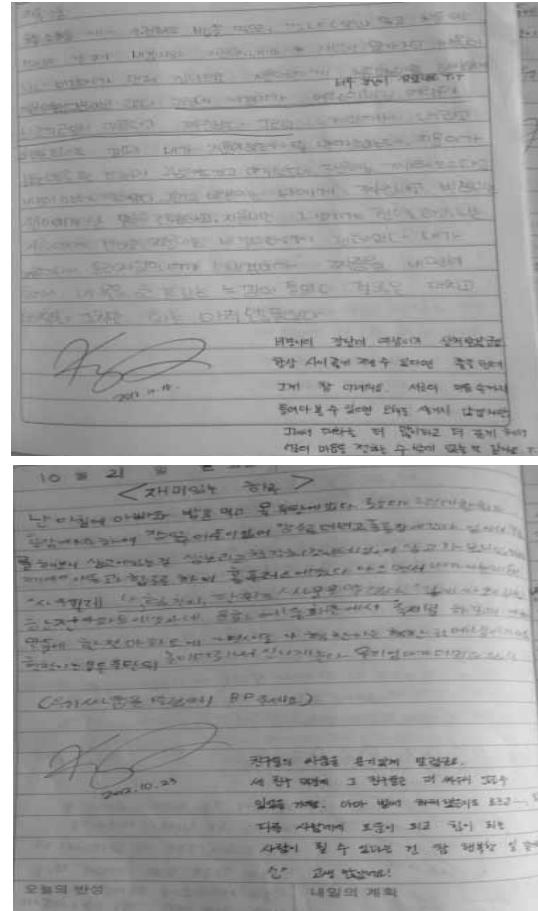
실을 비우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점점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가자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교실 안에서 뛰놀며 장난치던 남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 A와 B를 시야 안에 두려고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몇몇 아이들을 조심스레 불러 그날의 분위기를 물은 했다. 가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이젠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다툼을 말리거나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 2)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볼래? 일기 댓글로 소통하기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일기는 일주일에 3번씩 쓰기로 약속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기를 써오면 선생님도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정말로 여유가 없었던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에게 댓글을 꼬박꼬박 달아주었다. 처음에는 일기 쓰기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선생님의 댓글을 읽는 재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혹 검사가 늦어져 일기장을 돌려주지 않는 날에는 댓글을 길게 달아달라고 조르며 가기도 했다.

나는 학급 아이들의 일기장에 댓글을 달다가, 한번씩 ‘이 친구가 꼭 이런 부분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을 때마다 손 글씨로 편지를 썼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이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선생님이 내 일기장 한 바닥 가득히 편지를 적어주었다는 것을 무척 기뻐했다.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더 멋진 네가 될거야.’하는 내용을 쓴 다음 날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친구와 다툼 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듯 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을거야. 그 순간에 너무 홍분했던 거지. 너도 그런 적이 있지 않니?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면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거야.’하는 편지를 남긴 후에는 용기를 내어 친구와 화해했다는 아이들의 수줍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기검사를 하면서 매번 28명 모두에게 댓글을 달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얼굴이나 달라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참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야, 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 일기 댓글로 소통하기



### 3) 소곤소곤! 네 마음을 들려줘! 상담활동

A의 어머니는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지속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관련 집단 상담을 신청하여 듣기도 하였는데,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듯 했다.

그래서 따돌림의 피해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A와 B는 항상 교사의 가까운 곳에 자리를 배치하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에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제는 크게 꺼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이 웃게 된 A와 B의 얼굴을 보면 나도 행복한 기분이 되었다.

비록 가해학생으로 지목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일련의 사건들로 많이 놀라고 상처 입었을 아이들에 대한 상담활동도 계속 이어갔다. C는 사건 이후로 밝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선생님과 단둘이 만나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직 놀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A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D는 B를 괴롭힌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봐 무척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는데, 상담 이후 본래의 쾌활한 모습을 많이 되찾았으며 B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친구와 함께라면!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그룹 만들어주기

A와 B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A의 경우 본래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라, 학급 친구들과 관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자 활발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다. 쉬는 시간에도 남학생들과 어울려 축구를 열심히 하고, 여학생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깔깔대기도 하였다. 나는 학급 남학생들의 리더 격인 G와, A와 원래 원만하게 지냈던 모범생 H를 따로 불러 A와 잘 지내줄 것을 부탁했다. G와 H가 A를 챙겨주기 시작하자 다른 아이들도 A가 조금이라도 잘 하면 칭찬을 해주었고, 승부욕이 강한 A가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도 되도록 부드럽게 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 상담활동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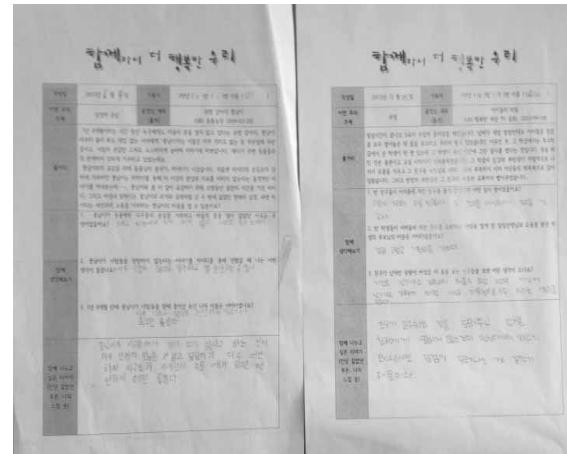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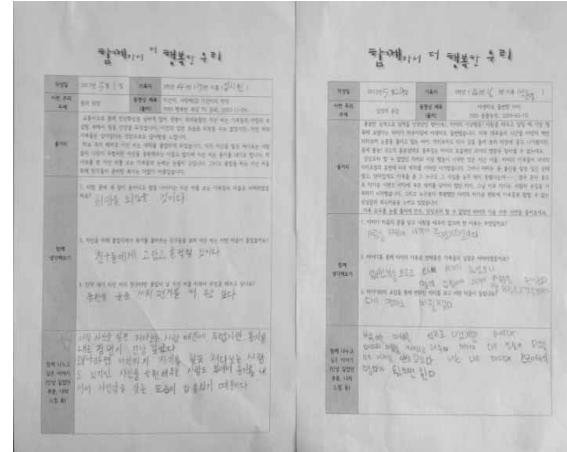
B는 평소 어울려 다니는 친구인 I가 있으나,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거나 앞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더 잘 대해주고 있었다. 잘 대해주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항상 B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담임교사는 B의 자리 근처에 활발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원만한 여학생과, B와 성향이 맞을 듯한 조용하고 침착한 여학생을 주로 배치하여 B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B와 I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상담과 일기 댓글을 활용하여 조언하였다.

### 5) 감동이 있는 교실! 감성교육

조금씩 나아져가는 듯 한 아이들의 행동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교사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서만 친구에게 잘해주는 척하고, 시야에서 교사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존재했다.

그러던 중 영상물을 활용한 ‘감성교육’에 관한 자료(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교육/홍○○, 김○○, 유○○)를 접하게 되었다. 꾸준히 감동적인 동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함으로서 교직 위반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로 인한 징계 건수와 학교생활 부적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였다. 조금 더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을까, 뭔가 깊은 충격이나 감동을 주어 아이들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나에게 감성교육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4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교시 국어 시간 15~20분 정도를 할애하여 감동적인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금 길다 싶은 영상의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1시간 이상씩 시청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용으로 여기던 아이들도 점점 나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진지하게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새끼를 잃은 말 마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니?’라는 질문에 ‘마미를 한 번 타보고 싶은데요.’하고 장난스럽게 대답하던 아이들도 교육이 진행될수록 점차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 감성교육 자료



최근에는 ‘못난이 송편’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왕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아이들이 감상문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엔 아이들이 영상물을 보면 느끼는 감동보다 내가 아이들의 감상문을 보면 느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든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상문을 항상 교실에 게시하여 서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눌수록 더 배가 되는 것이 감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3. 지금 우리 반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반은 지금도 난리다. 워낙 남다른 아이들이 많이 모인 덕분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가 터진다. 5학년에서 일어난 일치고 우리 반 아이들이 예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이전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밝아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 반의 평화를 위해 내가 애썼던 이상으로 아이들은 노력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티격태격 다투다가도 다른 반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오지랖도 넓게 뛰어들어 말리는 아이들이 되었고, 우리 반 아이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하면 바로 나에게 달려와 알리게 되었다. 특히 A와 B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몇몇 아이들이 나서 대신 화를 내줄 정도로 A와 B의 마음에 조금은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자 A와 B의 표정과 행동도 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들의 걸모습이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아픔은 흉터가 되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학부모는 아이들의 변화에 무척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사라지지 않음을 토로한다. A는 친구가 하는 말을 욕설로 잘못 알아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화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B는 친구들이 귓속말을 하면 지금도 불안한 얼굴로 친구들을 지켜보다가 짜증을 내곤 한다.

이런 순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의 흉터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상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 ‘선생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학부모의 말이 날카롭고 아프게 가슴을 찔렀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더 이상 남몰래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힘썼으면 한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이 있는 영어 교실」

김대현

### I. 개인 현황

성명	김 대 현		현소속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164-38번지			
연락처			이메일	last74kyh@naver.com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역	직책
	대전동부서	2012.2.1~현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이 있는 영어교실」 교사활동	
	대전둔산서	2007.1~2007.12	「아동안전 지킴이 순찰대」 활동	
충남부여서	2001.1~2004.1	농어촌 방과후 재능기부 선생님 활동		

### II. 본문

제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이 있는 영어 교실」 운영
취지	학교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기초수급), 결손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영어 교육과 범죄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소외·이탈 청소년들을 찾아가 영어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교폭력예방·근절

#### ▣ 추진배경

- 대전동부서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이 많고, 관내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 가정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 방과 후 학생들의 자기개발 여건 강화 필요성 인식

-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영어과목을 무료 강의 ⇒ 학생들의 호기심 유도 ⇒ 파출소 영어교육, 범죄예방교육 참가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자연스러운 학교폭력 예방 효과

- 형식적이면서 보여주기식의 그동안 경찰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지향
  - ex) 학교 방문하여 강당에 집합시키고 범죄예방교육하기
  - 학교 앞이나 다수인파 운집장소에서 유인물 나누어주기 등



- 재학중인 학생, 가정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구비 ⇨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배회하는 학생, 보호·재활시설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학습프로그램은 미비 ⇨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센터, 보호재활시설 직접 방문 ⇨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영어과목강의, 학교폭력예방 교육 ⇨ 관심의 손길을 바랬던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봉사·교육 함으로써 든든한 버팀목 역할 ⇨ 학생들의 가정으로 복귀, 생활자세, 학습태도 개선 학교폭력예방 효과 거양

## ▣ 추진내용

### ●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교실 개설 (2012. 2. 3)

-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 대전동부서 천동파출소 경사 김대현  
※ 대입 「성문종합영어」 강사 경력 2년6개월,  
저서 『고교필수 Vocabulary 20000』 강의 1년, 한남대 법학과 졸
- 장 소 : 천동파출소 2층 회의실 교실로 개조(강의실 좌석 25석 확보)
- 시 간 : 주2회(화요일, 금요일) 오후6시 30분 ~ 8시 30분(2시간)
- 수강대상자 : 중학생(1,2,3학년) 25명
- 교육내용 : 김대현 경사가 직접 제작한 영어교재(필수문법, 독해, Speech)  
**학교폭력예방교육**
- 교육현황 : 2012. 2. 3. ~ 현재까지 120여명의 학생이 파출소 영어교육을 수강  
※ 영어학습 마스터기간이 2개월 과정(학원과 유사하게 구성)

###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실(2012. 2. 3)

-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 대전동부서 천동파출소 경사 김대현
- 시간 : 매주 1일
- 수강대상자 : 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
- 교육내용 :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 교육현황 : 2012. 2. 3. ~ 현재까지 370여명의 학생 교육
- 교육장소
  - 대전 중구 석교동소재 『교육공동체한뼘더 품앗이 성장학교』
  - 대전 중구 은행동소재 『청소년쉼터』
  - 대전 동구 효동소재 『복동산 아동복지센터』
  - 대전 동구 가오동소재 『대전 맹학교』
- ※ 파출소에서의 학교폭력예방교실 및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실을 근무에 지장이 없는 김대현 경사 쉬는날인 비번일로만 구성 교육
- ※ 영어교실, 상담실, 교육교재 등 교육비용 일체를 김대현 경사 사비로 충당



## □ 추진성과

- 학교폭력예방 영어학습학생 성적향상 및 생활자세 학습태도 등 개선
- 학교폭력예방 활동 노력으로 관내 청소년 범죄발생비율 전년도 대비 70% 감소 금년도 학교폭력 발생 비율 제로화 달성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중병으로부터 구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적응시킨 사례  
(대전○○○중학교1학년 권○○)
- 특수절도, 금품갈취 범죄 전력의 상습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개선시킨 사례  
(대전○○○중학교 2학년 송○○)
- 학교폭력 가해자를 개선 사례(○○○중 김○○, ○○중 안○○ 등 30여명)
- 영어학습 학생 김○○(○○중, 1)의 어머니(특례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승의 날에 김대현 경사 격려 편지를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보낸 사례
- 학교폭력피해를 당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 학교생활 적응 사례  
(○○여중 남궁○○, ○○여중 홍○○, 김○○ 등 70여명 )
- 대전○○○중학교 교장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감사패 증정
- 조현오 전경찰청장 주재 학교폭력예방사례 발표대회 경찰청장 표창 수상
-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제3회 국민감동고객만족 경진대회 표창 수상
- 조선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10회의 신문보도
- KBS 아침마당, MBC, TJB 사람과 세상, CMB 기자가 만난 사람, KTV 등 9회의 방송보도 및 KBS 등 5회의 라디오 보도
- 김기용 경찰청장님 학교폭력예방사례에 감동, 김대현경사 부부를 경찰청장님 공관에 초정 오찬, 학교폭력예방활동 노고 치하(12. 8. 11)
- 이상원 대전청장님 파출소 영어교실에 방문 격려금 전달, 학교폭력예방 활동 노고 치하(12. 8. 23)
- 대전 동구 이장우 국회의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표장장 수여



# I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이있는 영어교실』 운영

### □ 츠 지

- 학교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 영어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 학교폭력예방 근절

### □ 꿈이있는 영어교실

#### 1. 추진배경

- 대전동부서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이 많고, 관내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 가정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 방과 후 학생들의 자기개발 여건 강화 필요성 인식

〈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구 분	대전시 및 구별 가구수	대전시 및 구별 기초수급 가구수	대전시 및 구별 인구수	대전시 및 구별 기초수급 인구수
합 계	555,768	29,516(5.3%)	1,518,540	47,941(3.2%)
대전광역시 동구	98,977	9,917(10.0%)	252,160	15,284(6.1%)
대전광역시 중구	100,983	5,654(5.6%)	267,429	9,479(3.5%)
대전광역시 서구	179,550	6,476(3.6%)	503,247	10,906(2.2%)
대전광역시 유성구	100,821	2,737(2.7%)	286,106	4,425(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5,437	4,732(6.3%)	209,598	7,847(3.7%)

〈관내 거주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

범죄 발생자 (피의자)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초등학생	4	5					2	5		
중학생 (자퇴자포함)	25	23		3			11	17		
고등학생 (자퇴자포함)	19	16	2				1	3	6	



## 2. 추진계획

### 1) 교육계획수립

교육일정	강의내용(문법, 독해, Speeching)	교육일정	강의내용(문법, 독해, Speeching)
1 단계 기초 능력 확인 과정	학습계획 소개, 기초테스트 중학영어문법 독해, 출제경향 등 설명 명사(NOUN)의 종류 명사의 전용 명사의 수, 성격 관사(ARTICLE) 대명사(PRONOUN)의 인칭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형용사(ADJECTIVE)의 용법 수량 형용사 고유형용사 형용사의 비교변화 비교법 종류 동사(VERB)의 종류 시제(TENSE)	3 단계 응용 과정	문장의 도치, 강조, 생략, 관계 의지미래, 단순미래 표현 분사(PARTICIPLE) 분사구문응용 시제의 일치 현재완료,to부정사,동명사심화학습 가정법, 간접의문문심화학습 화법(NARRATION) 부정대명사one,another,some,any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관계대명사 what, 중학독해 동사(VERB)의 종류, as의쓰임 현재완료진행형, spend ~ing
	조동사(AUXILIARY VERB) 수동태와 능동태(VOICE) 법(MOOD)		관심묻고 답하기
	부정사(INFINITIVE) 동명사(GERUND)		기대표현하기, 제안하기
	사역동사, 간접의문문, 부분부정 강조를위한 도치, The비교급표현		추측, 동의, 불평 표현
	부사(ADVERB), 중학독해		충고, 확인, 확신 표현
	접속사(PREPOSITION), 중학독해		이해묻고답하기, 감탄 표현
			조언묻고 답하기, 의무표현
			경험, 정보묻고답하기, 원인 표현
			의견, 이유, 상상하기 표현
			중요숙어, 영작문중요관용표현
2 단계 기초 능력 향상 과정		Speech 생활 영어 표현 4 단계	

### 2) 교재제작

- 중학교 6개 교과서를 종합 요약하여 중학필수문법, 독해(단문, 장문), Speeching, 필수문제로 구성된 교재를 김대현 경사가 직접 제작.

### 3) 영어수강 학생모집

- 안내문 부착 - 관내 APT입구, 공부방, 놀이터 등 학생 다수 운집 장소
- 협조공문 발송 - ○○중외 11개 관내거주 학생 학군학교
- 동구지역 각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기초수급) 결손가정 학생 파악 모집



#### 4) 학부모대상 브리핑 실시 영어학습취지 및 운영계획 소개



〈학부모대상 영어교실 브리핑〉



〈각 학교 선생님에게 영어교실소개〉



〈학교방문 영어교실 소개〉

〈영어수강 학생모집 안내문〉

〈학교에 보낸 협조 공문〉

##### 영어 강좌에 참여 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에서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무료 영어 강좌  
(주 2~3회)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 합니다.

##### 1) 모집 일시

2012. 2. 22 ~ 선착순 20명(면접 후 결정)

##### 2) 모집 대상 및 강의 과목

중학교 1, 2, 3학년, 영어교과서 관련 참고서

##### 3) 강의 장소 - 천동파출소 2층 회의실(20석)

##### 4) 강사

천동파출소 경사 김대현(한남대 법대 졸업)

※대입 「성문종합영어」 2년 6월 강의

##### 5) 수강료 전액 무료

##### 6) 신청방법 - 전화신청( 042-284-0112 )

##### 7) 기타 문의사항

천동파출소 042-284-0112, 이선배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 대전동부경찰서

수신자 대전○○중학교장  
(경유)

제목 특별 영어 교육 희망자 추천 협조 요청

1. 경찰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파출소에서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교실 운영의 일환으로 특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자녀 등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4.13(금)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매주 화, 금요일 19:00~21:00

나. 장 소 : 천동파출소 2층

다. 대 상 : 2~3학년 10여명

라. 강 사 : 천동파출소 경사 김대현

- 대입 성문종합영어 2년 6월 강의. 끝.



### 3. 추진내용

#### 1)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 교실 개설

- 영어강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강사가 되어 파출소 청사에 강의실을 확보하고 약 25여명의 학생이 수업 가능한 여건을 구비
- 교육 강사 : 천동파출소 경사 김대현 (대입 성문종합영어 강사경력 2년 6개월)
- 교육 대상 : 중학생(1, 2, 3학년)  
※ 주 1회 여자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 병행(여경경사 이선배)



#### 2) 교육내용

- 강사 김대현 경사가 제작한 「꿈이 있는 영어교실」 강의교재
- 중학필수문법, 독해(단문·장문), Speeching 으로 구성
- 학교폭력 등 애로사항 상담, 교육
- 파출소내의 탁구장에서 학생과 함께 운동 등으로 유대관계 더욱 강화

#### 3) 교육시간

- 매주 2회(화, 금요일) 18:30~20:30  
(1회 학습시간 : 2시간)
- 균무에 지장이 없는 주간 균무  
종료 후 또는 비번일



「꿈이 있는 영어교실」 학생증 제작 배부 → 학생 출석부로 활용  
출석율이 우수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문구류 등 포상



#### 4.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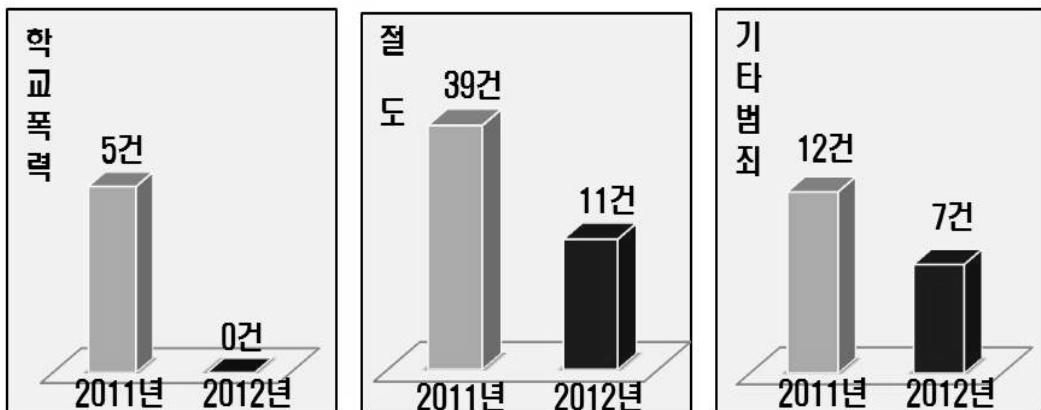
##### 1) 학생 성적향상

이름	학년	학교	1학기 점수		전년도대비 (기말고사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김 ○ ○	2	○○○중	65	70	55 → 70
남궁○ ○	3	○○여중	70	80	65 → 80
송 ○ ○	2	○○○중	70	75	60 → 75
김 ○ ○	2	○○○중	80	95	75 → 95
홍 ○ ○	2	○○여중	65	80	60 → 80
김 ○ ○	3	○○여중	80	90	75 → 90
이 ○ ○	3	○○○중	60	70	60 → 70
권 ○ ○	2	○○○중	60	80	60 → 80
김 ○ ○	1	○○○중	70	90	70 → 90
김 ○ ○	1	○○○중	80	85	80 → 85

※ 수강 전 60~70점대인 학생들이 80점 이상대로 성적향상

##### 2)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범죄 감소

###### ■ 전년대비 관내 청소년범죄 발생건수 비교



※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노력으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전년도 대비 관내 청소년 범죄(절도, 폭력 등) 약 70% 감소

※ 금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제로화 달성



#### □ 학교폭력피해 학생을 중병으로부터 구하고 정상적 학교생활로 적응시킨 사례

성명	권 ○ ○
학교	대전 ○○○ 중학교 1학년
주소	대전 동구
보호자성명 / 직업	○ ○ 엄마 010-○○○○-○○○○
학교폭력예방 사례 요지	대전○○○중학교에 다니는 권○○(여) 학생은 평소 말이없고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는데 2012. 3월부터 김필준 학생 등 여러 학생에게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이후 학교폭력과 가정적인 문제 등의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상장간막동맥증후군 이라는 중병으로 대전 성모 병원에서 2회의 큰 수술 후 3개월간 휴학을 하는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거의 어려워 보이던 학생을 김대현경사의 정성어리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적응시킨 사례

- 대전 MBC라디오 『희노애락』 프로 보도, 대전 KBS라디오 『주사위』 프로 보도 내용

### 헬렌켈러 경찰선생님

- 중증 병마와 싸우던 어느 여중생을 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케 한 감동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권○○(보도시에는 가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여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의 아버지는 ○○가 어릴적에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고 제가 일을 하며 노모와 딸 ○○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초순경에 제가 살고 있는 대전 동구 ○○주공아파트 근처에 있는 천동파출소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형편도 어려워 파출소 영어교실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대현 경사는 분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이들 영어교육과 함께 틈틈이 청소년범죄예방교육도 하여 일 때문에 아이를 마땅히 어디 보낼 처지도 안되었는데 아이도 재미있어 하며 빠지지 않고 다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6월말경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다며 구토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길래 급히 대전성모병원을 갔더니 상장간막동맥증후군(십이지장이 대동맥사이에 끼는 증세)이라며 수술을 2~3회 해야하며 곧바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한다기에 2시간의 큰수술을 한 후 7월 2일부터 9월 말까지 입원을 하였습니다. 모든 음식은 먹을 수가 없기에 아이의 코에 인공호스를 연결하여 분해한 음식물을 코로 넘기는 모습을 보며 가뜩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힘든 시련이 오나 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7월 초순의 어느날 김대현 경사가 현지가 어째 요즘 연락도 안되고 파출소 영어교실에도 안온다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금의 이야기를 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사님은 그런이야기를 진작에 하시지 왜 이제 하느냐고 하면서 곧바로 병원에 방문 ○○의 상태도 보고 제사정도 듣고 하더니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주민센터, 각종단체의 병원 방문이 이어졌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들의 방문이 김대현 경사가 불별 더위속에서 동주민센터나 각종단체를 직접 다니면서 저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사님 본인도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위로금도 주시며 ○○가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도 들을 수 있도록 중학교 전과목 CD도 챙겨오시고 책도 빌려오시는 등 ○○를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약3개월 동안의 병원치료 후 퇴원을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후유증으로 탈모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신체발육에 이상이 생겨 가뜩이나 친구도 별로없고 외톨이였던 아이가 대인기피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긴 시간동안 학업공백으로 학교진도를 따라 갈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아이는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또 입원을 하고 싶다는 등 자꾸만 힘들어져갔습니다. 그런데 김대현 경사가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면 파출소 영어교실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게 어렵겠냐며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아이를 설득하였고 파출소영어교실아이들도 그런 ○○를 위로해주고 같이 어울릴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영어수업이 있는 날에는 수업시간보다 조금더 일찍오게하여 개인적으로 ○○를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주어 학교진도를 따라가게 해주었고 파출소수업이 끝나면 직접데리고 귀가를 시켜주었고 파출소 영어교실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기고 하고 야구장도 가며 놀이공원도 같이 가는 등 아이를 보살피고 도와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차차 밝아지고 학교생활도 적응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며 김대현 경사님과 파출소영어교실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그저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아이가 후유증이 나타날 때 다시 입원을 해야하는지 특수학교로 옮겨야 하는지 어떻게 할지 큰 걱정이었는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앞으로 한번더 수술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호전되어 그 수술후에는 입원하지 않고 학교에 다녀도 된다는 의사선생님말씀에 너무 기뻤고

모두다 어려운 요즘 이런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중학교 1학년  
권○○ 엄마 올림



##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개선시킨 구체적 사례

- 학교폭력 가해 등 5대 발생전력 청소년들을 파출소 영어교실에 참여하게 하여 교육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에 성공한 사례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전력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데 착안 관내 범죄 발생 현황부에서 초중고생이 범죄발생자(피의자)인 범죄발생 현황 확인



관내 거주 범죄발생 청소년 주소지에 파출소 영어교실 안내문 발송, 교재 발송, 보호자 학생과 면담



학생 파출소 영어교실에 참가  
영어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 대전 대성동 중앙신경과원장 파출소 초빙 가해학생 심리치료상담 병행
- 파출소 여성 이선배경사 여자 청소년 멘토 상담실시  
→ 정서함양 및 인성교육
- 동구 금강음악학원과 연계 파출소에서 연주회 등 정서교육
- 타구경기 야유회로 소속감 형성 전인교육



지속적인 영어교육으로 학교성적 향상  
→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고취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나 학교폭력에 대하여 막연히 잘못인 것으로만 단순히 인식하고 있던 중 파출소 교실에서 따뜻한 師弟관계로 일대일로 직접 경찰관을 만나 경찰관이 실제 경험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가·피해자가 잘못된 사례,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 등 범죄전력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교육·상담 받으므로 학교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각오 계기



## ▣ 사례

성명	송 ○○(010-○○○○-○○○○)
학교	대전 ○○중학교
주소	대전 동구
보호자성명 / 직업	편모
학교폭력예방 사례 요지	송○○학생은 특수절도·차량털이 등 절도 전력 3회 금품갈취 전력 등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나 김대현경사의 정성스럽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하여 학교성적도 뛰어난 모범생으로 탈바꿈한 사례

### • 송○○학생 변화 일지

송○○ 학생은 대전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2. 3 특수절도·차량털이 등 절도 전력 3회 2012. 4. 금품갈취 전력, 학교폭력 가해 등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이었음.



김대현경사의 송○○학생 어머니면담 및 설득으로 파출소 영어교실 참가유도 송○○학생 파출소 영어교실 참가 (2012. 5.)



#### 송○○학생에 대한 면담일지 작성 지속적인 면담 상담

송○○학생을 파출소 영어교실에 비치된 게시판의 『선생님이 것이 굽궁해요』 코너(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코너)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어떻게 처벌되고 얼마나 중 한지를 사례를 직접 보게 하고 김경사가 일대일 교육



- 송○○학생 심경 변화
- 영어교육 실시로 송○○학생 성적향상 → 자신감 고취, 예전과는 달라져가고 있음을 칭찬



송○○학생이 기타연주 등 음악에 관심이 있음을 파악 기타교습소와 연계 교습소에 보내어 취미생활로 여가시간을 활용토록 유도 → 마땅히 여가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 배회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





2012. 5. 이전까지 계속해서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으로 속칭 비행청소년이었던 학생이 김경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5월 이후 단한건의 범죄도 발생치 않았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학생으로 탈바꿈한 사례

- 『꿈이있는 영어교실』에 대하여 김경사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스승에 날에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보낸 사례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우리 지역에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친으로 칭찬하고 귀감이 될만한 분이 있기에 편지를...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 천동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중 김대현 경사...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식적인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걸 알게 되었고... 파출소 영어수업은 아이가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며 다니고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흐뭇...

경찰영어선생님 덕분에 영어 성적도 조금 올랐고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기 어려운 인성교육, 범죄예방교육도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 이와같은 분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면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

○○중학교 1학년 김○○ 학생 학부모 올림



## ■ 불임자료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호 교육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한 사례

Will be  
Okay.  
(i promise)

ITEM NO. 21215-P039  
DESIGN AND IDENTITY PAPIEN CO., LTD.

To. 김대현 선생님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10학년 선생님에게 영어  
반은 두로 10점이나 올랐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영어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선생님 약고 브터  
재미있고 영어에 관심이 있게 되어온^^  
처음에는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웠는데  
파출소를 계속 가고 허니까 부담되지 않고  
재미있고 신나요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영어 가로 저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이런 수업할때 안떠들고 열심히 공부  
할게요  
그럼 진짜 안녕히 계세요~

2012년 10·16  
○○ 01가-

김대현 쌤께

안녕하세요~ 저 예요 모래만에 쓰는 편지라 잘못쓰거예요ㅎㅎ  
맞춤법틀려도 토주세요ㅎㅎ 오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함께  
있어서요 장난이요. 쌤께 너무 고마워서요 그래서 쓰는거예요ㅎㅎ  
제가 점수는 25/10 이렇게 미쳤는데 쌤이랑 공부한 뒤로 203040  
이나 올라서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건 우리에게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맞았을 때  
도와주셨어 감사해요 그덕분에 그언니가 안파버렸어요 그래서 인  
지 경찰서에서 공부하는데 편해졌어요 그리고 여경언니가 고민상담도  
해주고 부모님께 말할수없는것도 여경언니한테 말을해줫던 제마음도  
편해져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요 처음보는애들이랑도 친하게 지낼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시글시글하고 정말 경찰서가 아닌 학교  
같아서 편해요. 근데 쌤이 힘든거 같아 신경을했는데 제게는  
너무 힘들것 같아요 안떠들고 싶은데 떠들게 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떠들게요 약속할게요 수업도 열심히 드를꺼요 그럼 여기서  
이만 안녕히 계세요 전부 거친 말 없기 약속하고 장난이예요  
감사해요

○○ 가 드립니다

\* 진심으로 받아드리지 않으오



## ■ 불임자료

# To. 경찰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에요.

음... 경찰의 날?! 을 축하드려요~!!

바쁘신데 중학생애들.. 저희들.. 저를 가르쳐주시서 감사합니다. 영어수업을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같은 얘기도 영어수업할 때 짧내서  
해주시고.. 음.. 저녁시간에 하는 거라 저녁(간식)도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짧내서 경찰을 하면서  
있었던 일.. 사건.. 예방교육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중간에 만났을 때 저희를 맛있는 것 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수업시간에 하는 책! 직접 만드셨다면요?! 짧대예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고 수업 제대로 안듣고.. 힘들게해서 꼬집습니다. 다음에는 재대로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음...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제일 예쁜 고박 고박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뜨엄뜨엄 나오고 쭉- 나오고..

요번에는 안 빠지고 쭉- 나오겠습니다.

음.. 편지가 쓰다보니 짧고 글씨도 빼뚤빼뚤하고 위로거나 아래로 갚다하고 철자도 많이  
틀리고 과관이네요.. 제이제이-끼이 - 일~부로한게 아니라고... 쓰→다보니~ 이~령~게나온거라고~  
나개그에요... 허

음.. 다음에는 열심히!! 고박 고박 경찰도 수업하라고!! 열심히 장난 안 치고? (한수업을 가...?)

열심히 공부, 수업을 듣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

From. 홍



## To. 김대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영어점수  
가 20점이나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영어 배우기 전에는 영어를  
완전히 배우는데 영어를하고 나서 잠았고 일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방  
선생님께서 경찰아저씨가 영어 가르쳐 주길 원해 배우지 안그래? 라고 하면  
을때 민가족 부담느겁고 무성하고 그랬는데 파출소를 계속가고 경찰아저씨랑  
치해지니깐 부담느겁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영어하려안하면 허근  
하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맞았는거 많이나죽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태워도 칭숙하게 해주시구 항상영어할때 재미있고  
영어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출  
소 가기전에는 남자애들이 때리고 그렸는데 영어를하고 나니깐  
남자애들이 안때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하기  
전에는 경찰아저씨가 무겁고 그랬는데 영어하고 나니깐 경찰  
아저씨들이 무섭지 않고 재미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공부 집중을 안하고 떤짓하고 그랬는데 영어를 한뒤  
로 떤짓도 않고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감  
사합니다 그리고 처음파출소에서 가서영어공부를 했을때 딴  
짓하고 떠들고 그랬는데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셔서 감사합  
니다. 우리가 떠들고 떤짓했을때 저같으면 화내고 그렇던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화를안내시고 우리들을 타일러서 공부  
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는 떤짓 안하고 안떠들고 수업 열심히 들을께요~^^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2012. 10. 16. 화요일

윤경



#### □ 파출소내 청소년을 위한 아늑한 상담시설 마련

- 파출소 청사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한 상담실(휴게실) 마련 필요 ⇒ 커피숍 분위기와 같은 아늑한 상담실(휴게실) 파출소 청사에 마련 ⇒ 학생들 학습효과 학교폭력예방 활동 증진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물 제작 배포

- 파출소 영어교실 참가학생 대상 135매 배포
- 찾아가는 영어교실 참가학생 대상 420매 배포
- 대전 동구 초·중·고 44개 학교에 1,030매 발송 및 배부

#### □ 관내 소재 영화관 롯데시네마에서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홍보

####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연계 야간학교주변 특별순찰활동 전개

학교폭력예방 롯데시네마 동영상 홍보

대전도부경찰서 전동파출소(김대현 경사)에서는  
2012. 3. 9.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롯데시네마 7개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4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롯데시네마 동영상 홍보~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인 나라  
청소년 흡연률 1위인 나라  
학교폭력이 자살원인 7위인 나라

Lotte Cinema

동부경찰서

효동자율방범대

천동파출소



## ■ 불임자료

□ 대전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 파출소내의 「꿈이 있는 영어교실」



□ 수업모습



□ 「꿈이있는 영어교실」 학생과 함께



□ 여학생 상담 모습



□ 학생들과 함께 만든 교실게시판





## II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매주1일 이탈·소외 계층 청소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영어학습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 대전광역시 「교육공동체 한뼘더 품앗이 성장학교」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시설명칭	시설운영내용	소재지	연락처
교육공동체 한뼘더	소외계층, 결손가정청소년 보호시설	대전 중구 석교동	070-8227-7778

- 대전광역시 「청소년 쉼터」에서 사회로부터 이탈 소외된 청소년대상으로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시설명칭	시설운영내용	소재지	연락처
대전광역시 청소년 쉼터	가출·이탈 청소년보호, 치료시설	대전광역시 은행동	042) 256-1388

- 대전광역시 「복동산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 방임청소년 대상으로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시설명칭	시설운영내용	소재지	연락처
대전 복동산 지역아동센터	빈곤·방임 청소년보호시설	대전 동구 효동	042) 285-5644

- 대전맹학교와 천동파출소와 업무협약체결

특수학생 대상으로 영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맹학교와 업무협약



학교폭력예방 유공  
대전 동구 국회의원 표창



## □ 가오중학교 오두환 교장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감사패 증정



## □ 조선일보 보도 내용(조선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10회 신문보도)

**朝鮮日報**  
충청도양반 천동파출소에 영어교실 차린 김대현 경사

2012년 07월 18일  
14C면 (지역)

### “파출소는 공부방, 경찰관은 가정교사죠”

“파출소는 편안한 마을의 공부방이죠. 경찰관 아저씨는 애상한 가정교사고요.” 지난 13일 오후 7시 대전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2층 회의실. 가방을 들고 삼삼오오 파출소에 모인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영어 공부에 쭉 빠져 있었다. 칠판에 열심히 영어 문장을 쓰며 설명에 어념이 없는 강사는 천동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대현(41) 경사. 김 경사는 지난 2월 파출소에 부임한 이후 가오중, 은어중등 등 파출소 주변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경찰관이 진행하는 수업이지만 내용이 알차다는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형편 뒷배에 학원 가기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무료강의를 해주는 데다 학부모들이 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축구선수가 꿈이라는 가오중 1학년 심동규(14)군은 “경찰관 선생님이 해주시는 강의가 머리에 쑥쑥 들어와 학기 초 30점이던 영어 성적이 68점으로 올라 자신감이 불었다”고 자랑했다.

천동파출소의 방과 후 영어 교실은 이광학 파출소장과 직원들이 지난 2월 초 주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자고 뜻을 모으면서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담아 강의 이름을 ‘꿈이 있는 영어 교실’로 이름 붙였다.

“천동파출소 주변은 둔산동 등 신도심보다 학원이 적고, 저소득층 가정도 많아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기가 많아요.”

김 경사는 “작지만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남대 법학과를 나온 김 경사는 경찰에 입문하기 전인 1996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경기도 일산 대입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활동했다. 이때의 경험에 영어 강사를 자

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김 경사는 영어 수업을 위해 강의 교재를 손수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수업은 중학교 수준 필수 문법, 독해, 말하기 등으로 구성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한다. 강의실인 천동파출소 2층 회의실에는 매번 학생이 15~20명 찾아 강의를 듣고 있다.

은어중중 1학년 김필준(14)군은 “모르는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찰관 아저씨 덕분에 수업이 재미있다”고 반겼다. 영어 수업 블록이 쉬는 시간에는 학교 폭력 예방상담과 교육도 별인다. 이광학 소장, 여성인 이선배(43) 경사 등이 학생들의 멘토로 나서 고민을 상담해준다.

딱딱하게만 여겨지던 파출소가 아이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거듭나자 주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영어 교실에 참여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대전교육감에게 “파출소 영어 교실 덕분에 딸의 성적이 올랐고, 범죄예방 교육까지 신경써줘 매우 감사하다”며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바쁜 치안업무로 힘든 외종에도 아이들을 열성적으로 지원하는 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권오숙 충동주민센터장은 “파출소 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영어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앞장서 선도효과가 크다”며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업주 전기옥(58·대전시 동구 천동)씨는 “파출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민들이 공부하는 아이들과 직원들을 위해 뱃·우유 등 간식을 전하는 등 따스한 교류의 정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방법을 고민하다 영어 교육과 접목한 것이 반응이 좋아 뿐입니다.”

김 경사는 “여력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중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김대현 경사는 인근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2012.07.18

신현중 기자  
2012.07.18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19.9×23.5)cm



--	--	--

2012. 7. 13. 대전일보 18면

2012. 7. 13. 중도일보 23면

2012. 7. 12. 시티저널

		
---	---	--

2012. 7. 13. 아시아 투데이

2012. 7. 12. 뉴스 원

2012. 7. 12. 뉴시스

#### □ TV방송 보도



2012. 8. 24. 09:00 KBS『아침마당』 출연



2012. 8. 18. 18:30 TJB『사람과 세상』 방영



2012. 7. 18. 20:00 CMB『기자가 만난 사람』 방영



2012. 8. 9. 13:40 K-TV『경찰리포트』 방영



- 김대현경사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감동한 경찰청장님께서 김경사 부부를 청장님 공관에 초대하여 오찬, 학교폭력예방활동 노고 치하

**사랑하는 김 대 현 님**

칼릴 지브란의 시에서처럼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다림과  
당신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남아 있기에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고난과 역경조차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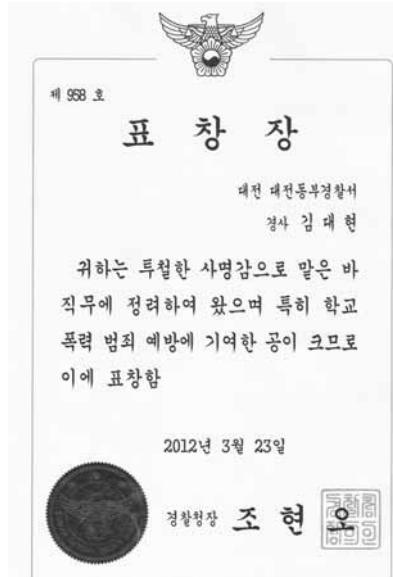
나에게 힘을 주는 당신  
국민을 미소짓게 하는 당신  
자랑스러운 당신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2012년 8월 1일  
멋진 당신과 함께한 날을 기념하여

경찰청장 *김기현*



□ 조현오 전경찰청장 주재 학교폭력예방사례대회 참가 경찰청장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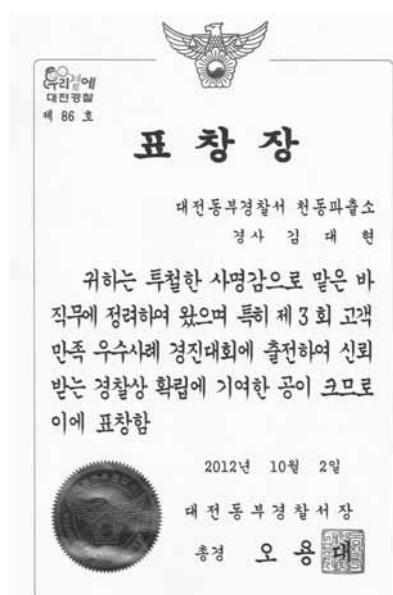


□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 파출소 영어교실 방문  
격려금 전달 학교폭력예방활동 노고치하



**영어교실 고재를 보고 계신 청장님~~**

□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제3회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표창수상





### III

### 맺음말

□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던 작년 말과 올해 초 경찰관인 저로서도 어린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성을 느끼며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관내는 속칭 대전의 원도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이 많고, 학교폭력 등 관내 청소년범죄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에 착안, 예전에 경찰입문 전 영어선생님을 하였던 경험으로 영어를 가르쳐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개발여건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학교폭력을 없애보자는 소망에서 「꿈이있는 영어교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닌 지도 어느덧 일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밝아지고 변화하며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무슨 영어를 가르치지 하며 호기심으로 찾아온 아이들에게 영어수업은 잘 전달되었고, 실제 일선에서 겪었던 사례위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으며 잘 전달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관심이 적은 이탈청소년, 불우청소년 들을 직접 만나 교육을 하고 보듬어줌으로서 학생들은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로서 경찰관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뛰어본 결과 학교폭력문제는 결코 어느 한 부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저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근무

경사 김대현



## 저 손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

김동희

### I. 개인 현황

성명	김동희		현소속	장흥안양중학교
주소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정 2길 28번지			
연락처			이메일	ahimsadh@hanmail.net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장흥안양중	2011.3월~2012.2월	학생 선도(상담)	교장
	장흥안양중	2012.3월~현재	학생 선도(상담)	교장

### II. 본문

## 저 손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문제, 집단따돌림, 학생 자살 등이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제도를 범 국가적 차원에서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내 보내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비상전화를 개설하고, 경찰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학교폭력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학교폭력은 학교 현장과 서로 공조를 취하고, 학부모 도움이를 조직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복수 담임제를 두고 등등....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일선 학교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근간으로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해법을 찾아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그늘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지금 되돌아보니 본교에서도 작년(2011년) 학기 초부터 무척이나 속을 썩였던 한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중순 경에 읍내 경찰서에서 수사과장님, 경감님, 경사님 3명이서 학교폭력 학생에 대해 자신신고를 받고자 교장실로 찾아왔다. 교장실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학기 초에 각 학교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경찰서 주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부장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



는 학생에 대해 경찰관의 선도를 부탁드렸는데 경찰관의 대답은 학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야 개별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분들과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3월 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선도를 부탁한 학생에게 자진신고를 하였으면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 비록 요즈음 학생체벌이 금지되어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데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진신고를 할 수 없겠노라고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리를 떴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본교는 작년 3월 1일자로 내 생애에 첫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 고향인 이 중학교에 부임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너무나 아담하고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한 없이 소박한 전형적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은 때 묻지 않은 순진 그 자체이며, 첫 발령을 받고 온 교장인 나에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수인사를 하였다. 나도 중학교 때 저런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겠지 하면서 속으로 웃음을 머금곤 했다. 지금까지 교직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하다 처음으로 중학교에 와서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들의 모습을 본 나로서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천사가 따로 없어 보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와 고향 부모님 곁에서 교장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나에게 크나큰 영광이었다.

부임 첫날인 작년 3월 2일 아침에 급식실로도 함께 사용한 조그마한 강당에서 전교생(3학급, 54명)을 대상으로 첫 부임 인사말을 하는데 3학년 학생(12명) 중에 두드러진 모습을 한 학생 2명이 눈에 띄었다. 한 학생은 머리를 빽빽 깎았고, 한 학생은 반쯤 옆으로 서서 한발을 흔들거리며 짐여보는 모습을 하고 서서 있었다. 부임 인사말을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선생님이 다가와서 「교장선생님, 2명의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아시겠죠?」라고 말을 건넸다. 아아! 이 아름답고 소박한 학교에서 그것도 내 고향 학교에서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 기분이었다. 부임 인사에 이어 입학식이 있었고 학부모님들과 면담시간을 갖느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며칠간은 각 기관장을 찾아다니며 첫 부임인사를 다녀야 했기에 그 두 학생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기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3월 중순 경에 지역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예방교육을 받았던 2학년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3학년 선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렸던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내 자신은 이 아름다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다.

학교폭력을 당했던 2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다. 다행히 훌륭하신 학부모님이셨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를 하신다면 다시는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퇴근을 하고나서 관사에 홀로 남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날 아침 학생부장을 불러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가해자 학생 3명(3학년 – 앞의 2명 포함)이 후배 2학년 남학생 4명을 2010년부터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학생들이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학부모까지 알게 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즉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학교에서는 이미 구성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학교운영위원, 교사, 파출소장 및 보건소 의사 등)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그리고 이들 학부모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장실에서 4시간 동안의 기나긴 마라톤 협의를 거쳐 폭력사건이 경미한 2명의 가해 학생들에게는 위탁교육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정도가 심한 나머지 학생(K군) 1명에게는 위탁교육 2개월을 내렸으며,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폭력사건이 경미한 2명의 학생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위원들 앞에서 후배들에게 구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절대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노라고 고개 숙여 반성의 말을 하였는데, 그러나 폭력정도가 심한 한 학생(K군)(앞에서 반쯤 옆으로 서서 한발을 흔들거리며 째려보는 학생)만은 「본인은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켰을 뿐인데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요? 그리고 본인도 1년 전 2학년 때 선배들에게 맞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맞고 지냈는데 지금 와서 우리들에게 만 징계를 내리는가요?」라고 반발을 하면서 교장실 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그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울면서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한 위원님들과 학부모들은 너무나 황당하여 허탈한 기분으로 말없이 침묵만이 오고갔다.

이 어린 중학생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내 자신이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그러나 위원회에서 정해진 징계를 먼저 수행했다.

먼저 3명의 가해 학생 중 폭력정도가 다소 덜하고 반성을 깊이 한 2명의 학생을 먼저 1개월 간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위탁기관으로 보내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부모님과 함께 보내면서 학생들을 위로도 하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위탁기간 동안 위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위문을 갔을 때 시설장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위탁교육을 하면서 교장이 기관을 방문하기는 처음이다」고 하고 더욱 이들 학생들에게 정성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위탁기관에서 이 2명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두 번 다시는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다짐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2명의 학생이 아니라 폭력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인 K군이 문제였다.

3학년인 이 가해 학생(K군)은 2009년 1학년 말에 부모의 농촌 귀향으로 인해 도시에서 마지못해 시골 농촌 학교로 전입학을 와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학생이었다. 2학년 때부터 1학년 후배들을 괴롭혀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아 그 많은 상담활동을 해도 전혀 반성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후배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영어 교과 담당인 학생부장이 여교사라서 지속적이고 지능적으로 수업을 방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영어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줘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폭력정도가 경미한 2명의 가해 학생들이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홀로 남아 있는 이 학생(K군)에게 먼저 교장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하기로 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학생 주변의 가정환경부터 접근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장선생님의 고향도 너의 집 옆 동네여서 교장선생님이 어렸을 때 너희 동네를 많이 놀러 다녀 잘 알고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부모님이 너의 할아버지·할머니와 옛날부터 친한 사이며, 너의 아버지는



교장선생님 후배이므로 너는 나의 조카나 다름없다.」「그래서 너는 교장선생님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큰 아버지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부모님의 농촌 귀향으로 인해 전입학을 하게 되어 마음을 상처를 받았을 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위로와 함께 상담 활동을 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웠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듣기만 하다가 첫 마디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리라 생각하여 이 정도로 1차 상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주일 뒤 가해학생(K군)을 불러 손을 잡고 운동장 옆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무에서는 새들이 한가로이 지저귀며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학생(K군)에게 말했다. 「저 높이 나무그늘에 앉아 있는 새들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은 고개를 숙이면서 조용히 말을 했다. 변함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빠와 함께 소를 키우고 싶다」고 말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면서 조용히 타일렀다. 「지금은 너가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후회를 할 것이다.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를 키워도 늦지 않는다」고 타일렀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여기서 2차 상담을 마쳐야만 했다.

이런 사이에 2명의 가해학생이 1개월 간의 위탁교육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를 했다. 그러자 가해학생(K군)이 2개월 간의 위탁교육을 위해 위탁기관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가게 되었다. 위탁기간 동안 담임과 학생부장이 함께 위문을 다녀오는 등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가해학생(K군)이 위탁교육을 다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집에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방학 동안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학생(K군)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 위탁교육을 다녀온 것을 마치 개선장군이 된 양 활개를 치고 수업을 더 방해하고 후배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순번을 정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1학년이 가장 먼저 식사를 해야 하는 데도 이들 3명의 학생이 가장 앞줄에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다. 이때 학생부장이 이들 학생들에게 3학년 위치로 갈 것을 말하자 이 학생(K군)이 욕설을 하면서 가사실 문을 발로 차서 뒷문을 훼손시켰다. 이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어서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내봉사 및 상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교내봉사와 상담활동을 다 마치자 이번에는 동급학생을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시켜 피해학생이 병원 신세를 져야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일간의 등교정지를 내리고 피해학생에게 병원진료비를 납부하는 징계를 내려야만 했다.

날이 갈수록 폭력성이 자자지고 심해져만 갔다.

이 학생(K군)을 어떻게 안고 가야만 할 것인가? 이젠 3학년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학생(K군)을 학교에서 포기하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학생(K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먼저 가정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담임교사, 교무부장과 함께 학생 집으로 가정방문을 했다. 등교정지 기간이라 학생은 집에 있었다.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가 있었고, 아빠는 외딴 곳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가 가정방문을 왔다고 어머니가 아빠한테 연락을 취해도 오지도 않아 나머지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완고하신 할아버지와 손자를 이해하지 못한 할머니, 오직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 외아들이라 자식의 잘 못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학교에만 불평을 일삼는 아버지가 사는 가정은 어디를 보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다.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있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면 자식 말만 전적으로 믿고 학교에 대한 불만과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일삼는 가정에서는 어디를 보나 자식에 대한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가족 모두가 이 학생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면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정신과 치료를 권하면 아버지는 왜 우리 아들이 정신병자인가? 하고 강하게 거부를 하곤 하였다.

이제부터 이 학생(K군)에 대한 가정환경, 친구, 학업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 되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등교정지처분이 끝나서 학교에 등교하는 날 다시 교장실로 불러 등교처분 기간 동안의 생활, 가정방문 후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장래 직업이야기, 고등학교 진학이야기, 교장선생님의 과거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어두웠던 마음의 커튼을 열어가고 있었다.

서서히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자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오후에는 함께 운동장을 뛰면서 호흡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루는 함께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다른 3학년 친구들이 「야! 너 보기 좋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뛰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함께 뛰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자 힐끗 웃는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귀엽기만 하였다. 둘이서 신나게 운동장을 돌고 숨 쉬기가 힘들어 운동장에 주저앉았다. 이 학생이 조용히 말하였다. 「교장 선생님, 할 얘기가 있어요.」「뭘데?」「조금 쉬고 나서 저 손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응, 그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소박하게 웃었다.

이 학생을 마주하고 보면 『달과 공주』의 동화가 생각이 났다.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따달라는 공주에게 왕과 왕비, 그리고 학자,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을 딸 수 없노라고 말을 했다. 지금 우리도 이 학생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광대와 같이 공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달을 스스로 따 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젠 나 자신부터 광대와 같이 이 학생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상담을 했다. 마음이 많이 열려 웃으면서 다가온다. 다가가 힘껏 손을 잡고 안아 주었다. 손을 잡고 운동장 옆에 놓여 있는 밴치로 갔다. 밴치 앞에 멀리 억불산이 보인다. 「○○야! 저 앞에 우뚝 서 있는 억불산의 며느리 바위가 보이지?」「억불산에 우뚝 서 있는 며느리 바위의 전설을 말해 주마.」「옛날 억불산 아래 조그마한 마을에 시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단다. 남편은 멀리 장사를 나가가 없었단다. 하루는 남편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며느리가 억불산 넘어 마중을 나갔는데, 천동과 번개가 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단다. 뒤를 돌아보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자기 집이 떠 내려가고 있었지. 그런데 멀리 시아버지가 손 짓을 하면서 남편 마중을 계속가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집이 벼락을 맞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 그냥 며느리가 돌로 변해 버렸단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 바위를 며느리 바위라고 한단다.」「그래서 며느리 바위라고 하군요. 정말 재미있는데요.」라고 웃으면서 좋아하였다. 「그래 다음에 시간을 내어 저 앞에 보이는 억불산 며느리 바위도 함께 다녀오자」고 말했더니 흥쾌히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래 00야! 너 앞에 펼쳐질 세상은 너무나 넓고 할 일이 많단다. 과거는 모두 훨훨 털어버리고 너의 꿈과 희망을 함께 찾아보자꾸나. 그리고 언제든지 교장실로 찾아오너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너에게 큰 바위얼굴이 되어 주마. 힘들고 괴로울 때 항상 나를 찾아오너라.」

이 학생(K군)은 올해 초 본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맨 앞자리에 앉아 부모님이 전내 준 꽃다발을 들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어 본인이 졸업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감개무량한 것 같았다. 졸업식이 끝난 뒤 그 학생에게 다가가 고생했다며 악수를 청했더니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짧막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식장을 나갔고, 부모님도 뒤따라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고마움을 표하고 식장을 총총히 빠져나갔다.

지금 이 학생(K군)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과거의 질곡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온다. 끝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이해와 소통을 통한 신뢰형성이 먼저입니다.

김창훈

## I. 개인 현황

성명	김창훈		현소속	제천화산초등학교
주소	충북 제천시 교동 두진 아파트 103-1802			
연락처			이메일	changnara@daum.net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화산초	2012.6월~2012.7월	아이와 함께 중간놀이시간에 놀이를 가르침	중간놀이담당
	화산초	2012.4월~2012.6월	교사놀이연수	중간놀이담당

우리 반 아이들은 1학년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다섯 번째 산행을 다녀오며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 웃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고민을 듣는 진지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2012학년도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산행]

우리 반 아이들과 학년 초에 약속했듯이 가끔 산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장에 가서 신나게 놀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서는 1박2일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도 하였다.



[2012학년도 ‘얘들아 노~울~자 1박2일캠프’]



11월에는 가족과 함께 가을산을 가기로 하였고 조금 더 있으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예정이다. 겨울이 되면 단양에 있는 눈썰매장을 가기로 하였고 1박2일펜션 여행도 겨울방학에 준비하고 있다. 계획한 대로 체험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도 작년 우리 반, 우리 학년이 겪었던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작년에는 5학년의 담임이 되었다. 처음에 담임이 된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뒤에 있는 키가 좀 크고 덩치도 있는 남자아이가 담임을 무시하듯이 다리를 쭉 벌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며 다리를 떨고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그 아이와 비슷한 표정을 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둥그렇게 그 아이를 향해 앉아 있었다.

또 한쪽에는 한 여자아이가 중심이 되어 몇 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라 이놈들 봐라! 내가 다른 학교에서 전근을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일부러 혀 기침을 해봤지만 그 자세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기싸움을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5학년 2반을 맡게 된 선생님 이름은 김창훈입니다. 신백초등학교에서 전근왔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게 잘 지내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자고 해보았지만 집중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했고 남자아이들의 가운데에 앉아있었던 아이는 희미한 비웃음도 내비치는 듯했다. 반대쪽을 돌리보니 여자아이들도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건 무슨 분위기지?’ 좀 의아해 하였지만 낯설어서 그럴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리를 새로 바꾸어서 앉기로 했다.

자리를 바꾸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 학교 애들은 뭐가 이리 말도 많고 예의도 없지? 담임선생님이 새로 왔으면 뭔가 반항하는 놈도 있고 궁금해 하며 옆에 와서 이것저것 묻는 놈들도 있어야 정상아냐?’

새로 발령 난 학교에 가면 항상 이런 저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학교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5학년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른다며 속으로 당황했지만 곁으로는 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냥 화를 내고 똑바로 앉으라면 인상을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면 기싸움에서 담임이면서 어른이기도 한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겨우 투덜거리는 아이들을 여자1명, 남자1명을 짹으로 앉게 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문제지를 하나 나누어주며 풀도록 하고,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도에 책상1개와 의자2개를 놓고 번호순서대로 나오도록 하며 상담을 시작하였다. 고민은 있는지 어떤 공부를 제일 싫어하는지 집에 큰일은 없는지 등등 처음 본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과분하게 속마음을 얘기하라며 끝도 없이 물어 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인지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

수업 진행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아이들과 조금씩 친해지기도 하고, 벼룩없는 아이들에게는 실망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아이들에게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 문제는 체육시간에 일어났다.



2년 전에 놀이연수를 받으면서 아이들의 체육시간을 재미있는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예전에 수업을 받던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다며 학교에 오는 게 즐겁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38선 놀이(통일놀이), 가위바위보 이어달리기, 가위 바위 보 왕, 어부술래잡기 등 아이들이 재미있어했던 놀이에도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사실 맨 처음 만난 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설명해주고 시작하자고 할 때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새로 온 선생님을 자기들 방식으로 길들이겠다는 아이들끼리의 무언의 약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하지 않다가 여자아이들 중에 좀 리더쉽이 있는 아이가 하자고 하니 다들 서서히 참여하는 듯 했다.

물론 그 때도 남자아이 중 중심에 있는 아이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아이의 이름은 최○○이다. ○○이는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1년을 휴학했다고 한다. ○○이의 친구들은 모두 6학년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동창들보다 어린 후배들과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고 다른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기에 ○○이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눈에 보였다.

운동장에서 같은 편을 정해야 하기에 가위 바위 보를 하라고 말하며 통일놀이 하는 선을 그리는데, 뭔가 이

통일 성공 지역
수비지역
수비지역
수비지역
수비지역

공격을 시작하는 곳

[통일놀이]

남자아이들도 만만치 않았다. 최○○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아이들은 놀이가 아닌 상대편을 때릴 기세로 놀이를 진행했고 남자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아무도 선불리 대들지 않았다. 특히 오징어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의 웃이 찢어져도 아무도 불평을 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 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참 어이가 없는 환경에 모두 적응을 한 느낌이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모두 교실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박△△를 비롯하여 함께 몰려다니는 아이들 모두, 최○○을 비롯하여 함께 몰려다니는 아이들 모두를 교실 옆에 있는 예절실로 모아놓고 큰소리로 소리를 치며 혼을 냈다. 아이들은 조금 겁을 먹는 듯 했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얼굴을 하고 듣는 듯 마는 듯 고개를 숙이거나 딴 곳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미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들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우리반으로 돌아오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이 있었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가위를 내라면 가위를 내고 채지 말라고 하면 채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상한 말이 들려서 돌아보니 박△△와 함께 몰려다니는 김□□과 이◇◇ 등 몇 명이 다른 아이들에게 가위바위보 중 가위를 내라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후 가위 바위 보를 하니 모두 자기와 함께 다니는 아이들만 같은 편이 되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하고 통일놀이를 진행하였다. 통일놀이는 솔래가 공격을 막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놀이이다. 하지만 놀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수비지역에 있는 가위를 내서 한 편이 된 아이들은 아무도 공격을 채지 못했다. 수비를 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공격을 하는 아이들을 챌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비를 하는 박세경(가명), 이미연(가명), 이영지(가명) 등의 아이들은 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축에 속했다.

남자아이들도 만만치 않았다. 최○○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아이들은 놀이가 아닌 상대편을 때릴 기세로 놀이를 진행했고 남자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아무도 선불리 대들지 않았다. 특히 오징어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의 웃이 찢어져도 아무도 불평을 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



행동이었다. 교실에선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는지 아이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덮고 지내면 안 되느냐는 식의 눈빛도 보였다. 다시 예절실에 가보니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반성문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줄 세 줄이 전부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였다. 이 날 밤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반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애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냥 내버려 둘까?’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앞으로도 만나서 공부를 가르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봄아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몇일 동안 고민이 이어지면서 예전에 봤던 TV시사프로그램이 떠올랐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아무와도 상담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 이제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어둠속에서 휴대폰과만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 아이들의 성추행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한 아이의 이야기였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떠오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는 중에 우리 반 여자아이들과 옆 반 여자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옆 반에 있는 김♡♡라는 아이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 이었다. 김♡♡만 없으면 학교에 행복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반 박△△, 김□□, 이◇◇ 등의 힘(권력)이 센 아이들이 말이다. 참 어이가 없었는데 옆 반 김♡♡는 정말 아이들 사이에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가 어떤 한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와 아무도 놀지 않았다. 또 다른 한 아이를 모임에 같이 다니게 하는 것도 김♡♡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김♡♡는 중1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우리학교6학년 여자아이들에게 동생을 보호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들은 이야기이다.

그 다음날 김♡♡를 예절실로 불렀고 다른 아이들도 불렀다. 그리고 김♡♡를 보호하는 6학년 여자아이들도 불렀다. 6학년 아이들은 이미 왜 불려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오는 듯 했다. 김♡♡를 제외한 5학년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을 흘기며,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는 식의 입모양을 하고 예절실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옆 반 선생님께서 6학년 아이들을 큰소리로 꾸짖어주셨다. 6학년 아이들 또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5학년 부장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 그냥 대충대충 쓰는 척 했다. 자존심 때문에 쓰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항의였다. 6학년이 5학년한테 어떻게 반성을 하냐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6학년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김♡♡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또 5학년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말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다. 6학년 선생님들이 6학년 아이들을 다시 지도하겠다고 하였다.

사실 6학년 여자선배들에게 5학년 여자아이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다. 6학년들이 5학년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압력과 협박이 있었던 것이다. 6학년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5학년의 김♡♡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왕따’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김♡♡가 말했는데도 그 아이를 왕따 시키지 않는 아이들은 함께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김♡♡가 왕따시키려고 하는 아이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6학년 아이들과 말하다보니 자기들 뒤에는 중학생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며 교사인 나에게 겁을 주었다. 6학년 아이들은 자기의 위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서히 감이 잡혔다. 5학년엔 김♡♡가 대장이고 그 밑에 박△△, 김□□, 이◇◇ 등이 있는 것이다. 박△△와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 밑에는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6학년 아이들이 6학년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인지 5학년 아이들에게 오지 않으면서, 김♡♡는 거꾸로 지금까지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방과 후 복도에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5명의 아이가 한 아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가 ♥♥였다. 김♡♡가 한 마디를 하면 5명의 아이들은 비꼬는 이야기부터 욕까지 하고 있었다. 6학년 선배들이 김♡♡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지금까지 당한 것을 모두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공평하다며 주장하였다. 김♡♡의 힘이 약해지니 5명의 아이들이 양갈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평계를 대면서 말이다.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었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과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 모두 강압적으로 혼내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 아이들이 재미로 왕따를 시키고 툭툭 치며 가지고 놀듯이 하는 그런 놀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귀찮게 이런 걸 또 하냐는 것이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표정이었다. 5학년을 맡고 몇 달이 지나면서 친해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며 들었던 5학년 왕따 이야기, 우리반 왕따 이야기, 왕따시키는 것을 본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왕따를 시킨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다.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학교폭력을 다룬 TV시사프로그램(MBC 후+학교가기 싫어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불을 끈 방에서 혼자 지내며 학교에도 가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가 나와 인터뷰를 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했다.

또 한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이 때리고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찍는 등의 피해를 입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아이는 ADHD(과잉행동집중력장애)를 앓고 있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아이의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

또 다른 중학생 아이는 아이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울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의 표정은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에서 서서히 눈에 눈물이 고이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아이도 있었다. 무덤덤하게 보던 아이들도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지 집중해서 보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렸다. 동영상을 모두 보고 자기의 생각



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무언가 무언의 압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준비한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 종이에는 첫째 ‘내가 다른 친구를 따돌렸다’

을 때의 마음’, 둘째 ‘다른 친구가 나를 따돌렸을 때의 마음’, 셋째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것을 봤을 때의 마음’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빈칸을 두어 자신의 마음을 쓰게 하였다. 일어나서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쓰라고 하니 모두들 열심히 썼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잘못한 것,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려서 서운했던 것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TV속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되거나 그 아이들을 괴롭힌 아이들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서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몇 번을 되풀이하며 이야기했다.

이제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쓴 것 같았다. 아이들 중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린 아이들도 있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의 일을 서로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절망적이었다. 한 시간 반이 지나갔다. 학교폭력으로 정말 힘들어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아이들이 있다는 동영상까지 보았는데 아이들은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다.

“너희가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면 그냥 이대로 학교생활하자. 나도 그냥 너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걸로

알고 그냥 지낼게. 하지만 너희들은 나주에 크게 후회할 거야. 너희가 다른 친구가 왕따당하는 걸 가만히 보았다고 해서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너희도 똑같은 가해자야. 직접 못살게 구는 사람만 가해자가 아니라…….”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반 최숙연이 손을 들었다. 숙연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숙연은 덩치가 커서 소위 세다는 아이들도 건드리지 못했다. 숙연이가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 나와서 우느라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였다. 몇 분을 기다리니 진정이 되어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은 우리 반 아이들 몇 명이 태희를 따돌리는 것을 봤는데 아무 이야기도 못해주어서 자책감에 혼자서 그 일을 가슴에 담아

#### [나누어준 용지]

마음을 자유롭게 쓰세요.

내가 다른 친구를 따돌렸을 때의 마음

다른 친구가 나를 따돌렸을 때의 마음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마음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때 ♫♩이가 태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태희에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였다. 태희가 쓴 내용도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았다. 태희도 몇 명의 아이들이 자기를 따돌렸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태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금은 전학을 간 다른 친구를 따돌린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다. 그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알면서도 다른 친구들처럼 따돌리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따돌렸다고 했다. 그 친구의 주소를 안다면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시간에 끝내려고 했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세 시간 째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우리반에서 따돌리는 주체였던 △△가 나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반성하는 말을 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그 다음 □□이, ◇◇이도 나왔다. 멋쩍어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이 없어 항상 당하기만 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했던 아이들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사과를 받으면서도, 사과를 하면서도 울었다. 다른 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전해 주기로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울며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보니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 살 아래의 동생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았다. 세시간의 사과의 시간, 용서의 시간을 가진 후 점심을 먹었다. 그 후 ○○이가 담임인 나한테 왔다. ○○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했지만,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왜냐면 한 번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가 말했다. 사과하는 글을 썼는데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미안하기는 한데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앞으로 잘 대해 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이도 예전의 잘못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나와서 직접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워 용기가 나지 않고 서서히 잘 해주는 방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했지만 아이들은 서로 친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색한 분위기를 이겨내고 친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여 얻은 결과는 첫째 휴일에 함께 등산을 하기, 둘째 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였다.

‘휴일에 함께 등산가기’는 나 스스로 등산가는 것을 좋아하기에 거의 내가 우겨서 등산가는 계획을 세웠다. 가까운 마을뒷산부터 조금씩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옮겨가면서 등산을 하기로 했다.



[첫번째 산행]



처음에 함께 등산하기로 한 많은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겨우 세 명이 나왔다. 30분을 기다렸는데도 다른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나와 함께 세 명이 출발하여 하소뒷산이라는 곳을 올랐다. 올라가다가 사진도 찍고 가져온 과자도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이 조금 친해지는 것 같았다. 어디에서 구했는지 나무막대기도 하나씩 구해서 가지고 다녔다. 조금 힘이 들 때는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기도 하였다. 첫째 셋째 주만 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의 산행을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산행부터는 함께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첫 번째 산행에 함께 한 아이 세 명에게 다른 아이들이 어땠는지 많이 물어보았다고 했다. 그 아이들이 좋다고 하니 두 번째 산행부터 참가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아이들은 산을 오르며 여러 가지 말을 함께 하였는데, 서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참 신기해 보였다.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 세 시간 동안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산을 오르다가 쉬는 시간이 되어도 아이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걱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서로에게 부담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았다. 산이 아이들에게 땀을 나게 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지게 했다.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서로가 친해졌다.



[두번째 산행]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도 친하게 되었다. 학부모님들과 친해지면 아이들과 하는 체험학습도 훨씬 쉬워졌다. 학부모님들이 앞장서서 다음에는 어떤 산을 갈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산을 내려오며 상의를 하고 어떤 때는 ‘체험학습 을 함께 하는 학부모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담임과 함께 계획을 짜기도 하였다.

이 모임에서 계획된 체험학습이 1박2일 펜션여행이다.

둘째로 결정된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은 놀이연수를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 가지 전래놀이와 교육놀이, 집단놀이, 짹놀이, 모둠놀이 등 아는 놀이가 많아서 실내수업을 하다가도, 밖에서 체육시간에도 조금만 시간이 나면 놀이를 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고 하는 놀이인 어부술래잡기라는 놀이는 서로 손을 잡지 못하여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여자와 남자여서 부끄러워서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라도, 여자와 여자라도 감히 계급(?)이 다른 친구의 손을 함부로 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등산할 때 잘 하는 아이가 조금 못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주는 것처럼, 놀이할 때 같은 편끼리 작전을 짜고 가운데에 손을 모아 모둠에서 구호도 붙이며 파이팅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특히 바깥놀이에서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모아야 했고 놀이를 하며 협동을 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다. 오징어놀이를 할 때나 통일놀이, 앞마당 뒷마당 같이 협동하고 작전을 짜야 이길 수 있는 놀이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작전을 짜고 힘을 모아 상대 편을 막아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에서 지면 처음에는 서로를 탓하는 말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런 행동들이 그 놀이의 다음 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놀이에서 할 수 없는 말(너 때문에 졌어 등의 우리 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과 할 수 있는 말(괜찮아, 다음엔 잘 하자! 화이팅! 등의 서로 격려하는 말)을 정하여서 의도적으로 습관이 되게 하였다. 여러 가지 놀이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놀이를하게 되었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처럼 혼자서 노는 것에 습관이 되었던 아이들이, 서서히 함께 노는 문화에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교실에서 하는 놀이도 참 재미있어 했다. 어느 날은 신문지에 있는 글씨찾기를 했다. 4명이 한 모둠이 되는 협동학습모둠(1.이끔이, 2.지킴이, 3.칭찬이, 4.기록이로 구성)이 신문에서 '화산초등학교에서 우리 반이 최고'와 같은 문구를 완성하는 놀이를 했고 아이들은 신문을 읽어가며 알맞은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가위로 오려서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풀로 붙였다. 모두 다 한 모둠은 아직 다 하지 못한 모둠을 돋겨 해서 누가 1등이 되었고 누가 꼴찌가 되었는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담임인 내가 아이들이 중요하게 느꼈으면 했던 느낌을 ○○이가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1등과 꼴찌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도와줘도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 느껴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말 하니 교사인 나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신문지가 조금 더 남았을 때에는 두 모둠을 합쳐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모둠대항 '신문지 위에서 살아남기' 놀이를 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손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 올라타고 업어주며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빨대로 옮겨라’라는 놀이는 빨대를 입에 물고 시간을 정하여 빨대로 노란고무줄을 옮기는 놀이인데 아이들은 빨대에서 침이 나와서 서로 더럽다고 놀리면서도 웃으며 서로 이기려고 협동을 하였다. 나중에는 고무줄을 많이 옮긴 편이 이기는 놀이인데 서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뒤에 있는 아이와 눈빛으로 대화를 해야 했다.



[빨대로 옮겨라]

아이들에게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놀이는 서로에게 참 좋은 것 같다. 운동장에 모둠협동화를 그리는 놀이를 해 보았는데, 아이들은 밑그림부터 물로 나타내기까지 일정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또 협동도 해야 했다. 아이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다고 느낌을 발표했다.



[운동장 모둠협동화 그리기]

아이들은 함께 놀면서 누구는 비석치기놀이를 잘하지만 오징어 놀이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아이는 오징어놀이는 잘하지만 통일놀이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장점에 대하여 알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면서 서로에 대하여 조금씩 배려해주는 것도 배우게 된 것 같았다.

협동학습도 아이들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협동학습 모둠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고 설득하였다. 이끔이, 지킴이, 칭찬이, 기록이가 그 역할인데 첫째, 이끔이는 모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모둠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할 때, 모둠의 전체적인 행사, 활동을 이끄는 역할이다.



둘째, 지킴이는 사회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둠에서 회의를 할 때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시간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다.

셋째 칭찬이는 그 모둠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우리 모둠의 아이가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 칭찬을 해준다. 맨 처음에는 서로 칭찬하는 것을 어색해 했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니 일상 대화처럼 쉽게 칭찬을 할 수 있었다.

넷째, 기록이는 모둠에서 회의의 결과 등 기록할 것에 대하여 수첩에 적는 역할을 하였다. 모둠회의의 결과를 모두 적어서 같은 모둠사람이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발표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하여 모둠에서 서로 물어보고 배우고, 또 친구를 가르치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배우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친구를 거듭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등산을 갈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들이 겨울방학에 1박2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였고 펜션가격을 알아보다가 충주에 있는 충북교직원복지회관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서 그 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날짜를 정해서 다녀오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한 일이 있는 어린이들 빼고는 모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첫날가자마자 아이들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았다. 물론 부모님과는 이런 곳에 자주 놀러 갔겠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신나고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놀이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저녁에는 불고기 파티를 하였다. 잠을 자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둘러앉아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하게하였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하며 들고 있는 촛불을 껐다. 5학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였다. 속상했던 이야기부터 기뻤던 일까지 참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이는 가족만큼이나 소중해진 친구에 대하여 고마웠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기도 했고, 5학년 2학기 늦게 전학 온 명제(가명)는 “예전에 다니던 학교는 따돌림도 많았는데 우리학교는 친구들이 친절해서 금방적응할 수 있었어. 모두모두 고마워” 하며 말하였다. 명제는 5학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힘든 일들을 잘 몰랐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비밀에 대하여 모르는 명제를 보며 살짝 웃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새벽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을 잤다. 여자아이들은 재중(가명)어머니께서 돌봐주셨고 남자아이들은 명희(가명)네 아버지와 담임인 내가 돌봤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어른들 셋이 모여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과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이가 학기 초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여 많이 당황스럽고 부모님의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겁이 났다고 했다.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를 다른 신문기사를 보면 많이 두려웠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산행과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또 아이가 하루하루 변하고 적응하는 모습에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가 없어지는 것도 2학기 말로 가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1박2일 펜션여행 두 번째 날은 교직원복지회관 옆에 있는 산을 이른 아침에 올랐다. 산꼭대기에서 소리도 지르며 6학년이 되면 이루고 싶은 목표도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의 목표는 성적향상이 가장 많았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은 목표는 지금처럼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반이 되더라도 지금의 추억을 잊지 말자고도 하였다. 산에서 내려와서 충주댐근처에서 물수제비를 하며 물수제비 많이 하기 내기도 하였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하고 물박물관 견학까지 모두 마치고 집으로 향하였다.



아이들과 학부모님과 헤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고 1년이 다 지나갔지만 자주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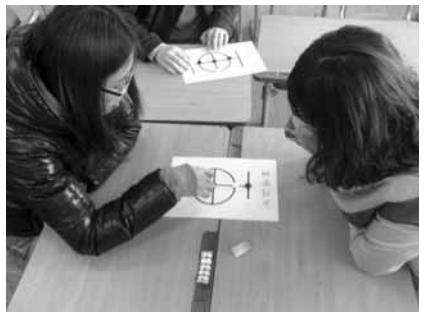
지난 1년은 힘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많이 키워 낸 감동의 1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든든한 일인 것 같다.

작년의 이런 실천으로 올해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놀이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1학기에는 우리학교 선생님들께 수업시간과 체육시간에 할 수 있는 교육놀이와 전래놀이 연수를 하였다.

제일먼저 한 놀이는 아이들을 집중력을 높이는 ‘집어! 놀이’이다. ‘집어! 놀이’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책상의 가운데에 있는 물건(지우개, 연필 등)을 먼저 집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며 화장을 하는 놀이인데 교사가 잡아! 들어! 하면서 다른 비슷한 말을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날 배운 것에 대한 문제를 내서 맞히면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내게 하니 아이들을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가서 해보았더니 학급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좋아하셨다.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을 때 하는 놀이인 ‘손님 모셔 오기’는 아이들이 학년 초에 어색할 때 하면 서로 빠르게 친해지게 하는 놀이이다. 모두가 아는 동요를 하나 정해서 의자에 동그랗게 앉은 후 빈 의자를 하나 놓으면 그 빈 의자의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손님을 양 손을 잡고 모셔오는 놀이이다. 노래가 끝났는데 자기의 옆에 빈 의자가 있으면 별칙을 받는다. 아이들은 별칙을 받으면서도 재미있어하고 학급의 단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놀이였던 것 같다.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장놀이도 함께 하였다. 어부술래잡기를 통하여 모두 하나가 되는 학급을 만들 수 있고, 비석치기, 오징어놀이, 통일놀이, 사방치기 등 협동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놀이를 함께 배워보았다.



[1학기교사연수]

또, 작년과 다르게 중간놀이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면서 우리 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반 아이들과 매일 놀이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며 할 수 있게 되었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고 비가 올 때는 실내에 있는 빈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고 있다. 아이들도 신나고 지도교사도 신나서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들어가면 공부도 더 잘된다고 한다.



[30분으로 늘어난 중간놀이]

작년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하여 ‘교육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놀이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소외된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계절마다 등산을 하게 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미술관, 박물관 등 여러 곳도 견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름에는 ‘애들아 노~울~자’라는 주제아래 놀이가 있는 1박2일 캠프를 하여 100명이 넘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응모한 ‘우리고장문화투어’에 선정되어서 아이들과 제천의병에 대하여 공부하고 제천10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012여름방학 1박2일캠프]



[2012우리고장문화투어-의병투어와 전래놀이]



이제 11월 중순이면 아이들과 함께 심은 텃밭의 배추로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도 아이들과 눈썰매장을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나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아이들끼리 서로 따돌려 서로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악몽 같은 작년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학부모와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게 무섭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아이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짹놀이, 모둠놀이, 집단놀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시작하면 항상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2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는 행복바이러스로 바뀌어 점점 많은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 행복바이러스가 퍼지길 간절히 원하며 학교폭력이 사라지길 바란다.



## 가해학생도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김현정

### I. 개인 현황

성명	김현정		현소속	법무부 인권구조과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7번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연락처			이메일	faith6770@citizen.seoul.kr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2.5월~ 2012.10월 현재	학교폭력 관련 상담, 법률교육	변호사

### II. 본문

#### I. 들어가며

2012년.....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파견되었을 때, 모든 것은 낯설음의 연속이었다.

법률홈닥터! 새롭게 시작되는 직역!

종전의 법률서비스와는 다르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의뢰인을 위해 과연 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

광진구내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관련 복지기관 담당자들을 만나고, 스스로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때.... 우연찮게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사회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학교폭력의 가해자, 그들에게 희생된 피해자, 아이들과 함께 상처입은 부모님.... 그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 버렸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법률홈닥터 사업 설명자료

### □ 추진배경

- 최근 변호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등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장애물 존재
- 빈곤, 무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수요자는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움
- 소송 단계에 집중된 법률구조와 고비용 변호사 증원의 한계
- 서민들에게 법률문제 발생 시 적절한 해결방법 지원 필요

### □ 법률홈닥터 제도

-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도입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두고 서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화하여 1차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를 금전적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지원
-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 및 교육
-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 구축

### □ 학교폭력예방 법률홈닥터

- 주 쇄 : 법무부 인권구조과
- 배치기관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배치변호사 : 김현정 변호사(faith6770@citizen.seoul.kr, 02-450-7843)



## II. 법률상담을 통한 의뢰인과의 만남

광진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사례관리 대상자 서태일(19세, 가명)이 찾아왔다. 아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최병화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 아이는 태연한 표정으로,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고 찾아온 것이었다. 아이의 표정을 바라보며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법원 기일 통보 문자였다. 서태환(18세, 가명)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 3일 후에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태일이에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태환이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그때서야 당황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태일이와 태환이에게 가족은 둘 뿐이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 종적을 감춘 상태였고, 경제적 사정으로 태환이는 친적집에 태일이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두아이 모두 심한 사춘기를 겪고 방황도 했었지만, 구청에서 사례관리를 받으며 장남 태일이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태환이었다. 태환이는 안정된 가정의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풀어내고 있었다.

그런 태환이가 얼마전 부모님에게 선물받은 휴대폰을 자랑하는 후배를 시기하여 1시간 정도 사용하다가 돌려주겠다고 휴대폰을 뺏었던 것이다. 하루 정도 사용하고 아이는 죄책감을 느껴 그것을 후배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 학생 부모가 태환이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도 돌려주었고, 그 후 경찰에서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태연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장 태환이를 만나야 했다. 휴대폰도 없이 생활하는 태환이를 찾기 위해 태일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태환이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태환이를 찾지 못했다. 태일이에게 태환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밤 늦더라도 태환이가 생활하는 고시원을 찾아가 태환이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

남은 시간은 2일....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태일이가 구청을 방문했다. 태환이를 찾지 못했다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학교 담임선생님, 태일이의 친구를 계속 수소문하기로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법원 기일 전날이 다가왔다. 태일에게 전화가 왔다. 태환이를 찾아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너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며, 안가면 안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애타는 형과 다르게 철없는 동생,,, 태일이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아이를 타일러서 우선 내일 오전 법원에 출석시켜야 하니 아침에 태환이 고시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문제의 아침이 되었다. 구청 관용차를 운전해 주시는 김용환 주임님, 사회복지사 최병화 선생님과 함께 관용 트럭을 타고 태환이 고시원으로 향했다. 고시원 앞에 태일이가 서 있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태일이와 함께 태환이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트럭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트럭에서 내렸더니, 태환이와 태일이가 싸우고 있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소년가장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며 며칠간 마음을 졸였던 태일이와 다르게 태환이는 고시원 바닥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누워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트럭에 태웠다.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태환이는



소리를 질렀고, 태일이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몇시간 뒤면 법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항변하여야 하는 아이.... 이렇게 화를 표출하는 녀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선, 태환이를 태일이와 최대한 멀리 두고 일상적인 얘기를 꺼내다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계속 그냥 효광원(보호처분 6호)이나 소년원에 갈 거라고, 막 살면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마음에 없는 소리였다. 화가 나서 내는 아이의 외침이었다. 트럭에서 더 이상 아무말도 꺼내지를 못했다. 그렇게 소리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을 확인하고 법원으로 들어와서야 태환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듯 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법률홈닥터가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공무원분께 명함을 보여드리고, 판사님께 태환이의 경우 부모님이 없으므로 변호사가 출석가능한지를 문의해주시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법원 앞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지금 상황을 설명했다. 태환이는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판사님이 사건 정황을 질문하면 최대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고, 휴대폰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지금 현재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다독였다.

판사님의 동의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판사님은 태환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가끔 꾸짖기도 했다. 판사님의 고민이 고스란이 느껴졌다. 판사님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만 남고, 아이들은 퇴정하고 말씀하셨다. 이제 판사님께 아이를 항변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판사님은 구청에서 파악한 아이들의 경제적 사정, 변호사로서 본인의 소견, 아이의 반성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 소년법의 경우 향후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태환이의 경우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의중을 밝히셨다.

법률홈닥터로서 근무하면서 태환이의 사례관리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하게 될 것이며, 부모로서 역할을 할 형 태일이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판사님은 태환이를 다시 부르셨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셨다.

법원을 나서면서, 태환이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었다. 사실 시설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형은 꿈을 찾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시설에 입소하는구나 싶었는데, 고맙다며 이제는 다시는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배시시 웃었다.

“선생님이 계속 너 지켜볼거야! 약속한거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처음으로 대변하고 엄포를 놓았다.

태환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의 피해자인 가해자와 그들로부터 상처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법률적인 조력을 하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III. 새로운 단체와의 만남(체계적인 법률교육, 상담 진행)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후대처를 위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업무진행방향을 계획했다.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접수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1) 지방자치단체(광진구청)과의 만남

법률홈닥터로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내 복지기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했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희망복지지원센터 김미영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구내의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나란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상 학생들의 상담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첫 교육을 시행하였다.



#### (2) 민간단체와의 만남

구내 복지기관을 살피던 중 2012년 5월부터 광진구 교육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복지네트워크는 주민연대 심경애 국장을 주축으로 학교내 지역전문가 선생님(학교 내에서 상주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와 가정내 경제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선생님, 학교 내 사례관리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음.), 구내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구청 주 사례관리자, 관련 복지기관 사회 복지사,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 등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단체였다. 학교 폭력 사건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로서 모든 권역별 회의, 솔루션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학생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다.

교육복지네트워크와 연계가 구축되면서, 종래 학교 내에 잠재해 있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인 대처를 몰랐던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 선생님들이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형사적, 민사적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복지네트워크에 구성원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를 시행하였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 대처방안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향후 발생할 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황리에 법률교육을 마쳤고, 교육 이후 각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법률홈닥터를 소개하여 다수의 학교에서 법률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

(구의중학교, 광양고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양중학교 등 다수 학교 폭력 예방 법률교육 시행.)





(( 교육복지 네트워크 심경애 국장님과의 인터뷰))

##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아기사랑후원회2012/08/27 16:44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광진구청내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 인터뷰  
심경애 시민기자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지역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에 대한 법률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홈닥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광진구청 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으로 2012년 5월 광진구청 복지 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 희망나눔팀(제3별관 4층)으로 파견되었다. 2012년부터는 지역 내의 아동청소년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참여하고 있다. 2012년 5월 상시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현정 변호사를 광진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 심경애 국장이 만났다.

가정·성·학교폭력·아동·노인학대 등 근본적 해결책!  
법률복지소외계층 법률문제해소와 법치주의 실현으로 희망세상 만들기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차 법률서비스란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정보제공,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소송 수임 없이 바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 기존 법률서비스와 법률홈닥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취약계층과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서 있는 주민들은 법이란 담이 높다고 한다.” 기득권층의 전유물이고 돈도 없고 빡도 없으면 약자는 모두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법률서



비스는 찾아오는 서비스로 비용부담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상주하여 주민,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각적 네트워크 형성 체계로 상담을 직접 하면서 법률주치의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법률보호의 모세혈관” 역할과 “서민과 사이의 다리” 역할로 사법제도를 무료로 수행하는 것이며, 법이란 어렵고 약자만 당한다는 잘못된 정보와 높은 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찾아가는 서비스 법률홈닥터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이송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지역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지원에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법률보호를 연계한 모델 개발하고,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도 분쟁 이전에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서민 법률보호망으로 발전시켜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목적이다. 소송에 있어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구조기관의 법률보호 기능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하고 프로보노(pro-bono)의 활성화로 변호사의 공익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보노(pro-bono)란? 라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등 공의활동을 말한다.

-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법률홈닥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45개 지소 등 법률구조 인프라와 전국 420여개 사회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가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법률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비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사회복지관과 지방변호사회 연합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예는 있으나, 대부분 일회적이어서 지속적·체계적 사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법률사각지대의 주민은 빈곤, 무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존 법률구조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소송 이전 단계에는 변호사의 관여가 부족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송수임 이전의 전달체계의 미비, 한계를 해결하는 데에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4개월가량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려운 법률용어의 해석을 돋는 것만으로도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고 구청을 방문한 한 독거노인 수급자 분께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설명해드림으로써 향후 발생할 몇백만원의 금전 지급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법률홈닥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로서 실질적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 주관으로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 학교폭력예방 법률교육에 따른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 교육을 하였다. 법률교육으로 예방으로 가능한가?

“폭력과 갈취로 가정법원에서 재판 받을 학생과 함께 동행 한 적이 있다. 소년원 관계자는 물론 판사, 저를 포함한 외부 기관에 있는 모두가 부모가 되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재적응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보호관찰관계자 한분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은 가정환경 부분이라고 한다. 가정이 이미 손상되고 해체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아이는 가정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출, 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병폐의 순차적인 과정을 밟는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비행의 길로 빠져든 청소년 열 명 중 반 이상이고 다시 비행의 굴레로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1차적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직접 상담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정파괴와 사회구조적 모순의 피해자인 학교폭력 가해자, 그들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체계가 되어줄 부모님,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 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학교교육복지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학교폭력에서의 청소년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정리한다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이더라도 사회 구조적 모순의 피해자 일수 있다는 뜻이다. 법과 사회복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 법적 측면에서는 사건, 증거 등에 의거하여 결과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생활가정환경, 사회적환경 등을 고려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하고 항상 혼자 생활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등으로 유년기를 보냈던 한 아이는 친구들에게 벼려질까봐 두려워 학교폭력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말했다. 아이는 폭력으로 얼룩진 유년기를 싫어했으나 결국은 아버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장 닮기 싫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외쳐도 말이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았다. 아이는 가정파괴와 사회 구조적 모순의 1차적 피해자였다.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법률상 가해자가 된 것이다.”

- 법률홈닥터사업으로 김현정 변호사는 4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



났다. 폭력으로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그들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도덕과 윤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들을 옹호한다. 그 옹호란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현장과 법(法)이란 테두리에서 딜레마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법적 옹호의 방법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도덕 앞에서 무너지고 법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덕은 양심이고 법은 심판이라는 단죄를 받는 것에 변호사로써 사회복지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변호사가 옹호해도 과정은 정상참작이 될 뿐 실제로 법적 판단을 피할 수는 없다.

얼마 전 TV프로에서 방영한 ‘추적자’라는 드라마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둔갑한 자녀의 父(부)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총기를 들고 법정에 가서 과실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주인공은 탈출하여 법이 심판하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고 실수로 한 살인도, 탈출도 정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억울하다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일단은 살인이 되는 것이다. 범죄를 은폐한 대통령 후보는 살인 교사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였지만 형량은 살인자 보다 훨씬 낮았다. 그게 법의 현실이다. 변호사는 과정을 설명하고 옹호하지만 법의 근원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과정을 중시하고 공개된 도덕의 비양심도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 있던 자녀의 아버지는 “내가 실수로든 어찌되었든 그 사람의 부모도 나를 보면 죽이고 싶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과 사회복지간의 딜레마 속에서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받되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며 법률홈닥터 제도 내용 중 서민 법률 보호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우선 주민연대 아기사랑후원회(심경애국장)의 광진교육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에서 방임, 방치, 학대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지켜주고, 아동청소년관련 지역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자원 확보 및 수퍼비전을 통한 지역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문제해결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네트워크에 매우 놀라웠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지역주민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경우의 사례를 종종 접하였다.

이처럼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대상자의 문제, 욕구 등을 공유하며 문제해결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각 지역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사례케이스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보면서 지역 현장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단순 지역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법률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센터 희망나눔팀에 배치되어 법률홈닥터 생활을 한지 4개월이 지났다. 시범에서 상시운영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어려운 문제였던 법률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죄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법무관, 20명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는 법률주치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지역의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이 널리 홍보되어 진행되었으면 한다.(법률홈닥터 김현정 변호사 인터뷰는 광진주민연대 소식지 ‘나눔’지 8월호에도 중복 게재됩니다)

출처 : <http://gjngo.tistory.com/137>



## VI.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예방과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성인 범죄와 다르게 대부분의 청소년 폭력범 또는 잠재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조성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학교 폭력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학교 내이지만, 사건이 발견되는 경로는 청소년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기관, 공공기관인 구청 등으로 다양하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연계점이 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광진구의 경우 현재 법률홈닥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가 각 단체와의 만남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폭력 사건을 접수하여 법률상담과 소송연계를 한다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통일적인 사후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의 교차점이 되는 법률전문가가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함께 시행한다면 학교 폭력 예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피에로 형사님

박용호

### I. 개인 현황

성명	박용호	현소속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동부교육청 wee센터
주소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5-1번지 라일락 주공A 2301/702		
연락처		이메일	byh0182@naver.com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부평 경찰서 소년계	1993.1월~1998.3월	청소년 비행 범죄 예방, 상담
	남동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2012.2월~현재	청소년 비행 범죄 예방, 교육, 상담
	동부교육청 Wee 센터	2012.2월~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

### II. 본문

본인은 과거 95~97년 3년간 초, 중, 고,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에서 53,860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등의 청소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하는 2급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여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서 본연의 임무의 하나인 강력사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출 등의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막고, 한 때의 실수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5~97년도에 절도나 폭력으로 구속되어 학업을 중단하였던 40여명의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동료와 함께 태권도 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중 25명을 교육시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쳐서 직장 및 군대에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인천시 불교연합회 동함사 주지 스님인 김무찰께서 청소년 및 부녀자 등 가정문제와 관련된 각종 제반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설립하신 인천 자비의 전화에서는 97년 10월부터 전문상담요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및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95년 말~현재까지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강좌를 초·중·고등학교 300여회 실시하여 30만명의 학생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전국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상담사 교육을 30여회 실시하여 5000명의 상담사들이 올바른 상담 및 교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동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및 인천 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Wee 센터소속 스쿨폴리스로서 동부 관내 수십명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및 부모님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차치위원회에도 참석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자문 역할 및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강력반에만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한때 ‘공포의 강력반 형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피로로 건강을 해쳤고, 그 후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92년도에는 당시 학력고사 성적이 전국 10위권에 들던 학생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아까운 인재가 죽음으로까지 가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 그 학생에게 용기와 피해 대처요령 등이 사전에 있었다면 귀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학교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크고 작게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 학교 폭력은 단순 괴롭힘 수준이었다면 최근 사례들은 따돌림과 정신적 폭력 등이 가세해 급기야 학생들을 자살 수준까지 오는 심각성이 있어 그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할 때 분장을 하고 아이들 앞에 섭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딱딱하고 따분한데, 분장을 하고 목소리 톤도 높낮이를 조절하면 50분 가량의 강의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될 수 있는 한 피에로로 분장을 하기도 하고, 빨간 립스틱에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하기도 하는 등 이색 변장을 하고 강단 앞에 서려고 합니다. 웃음이 터져 나와야 진짜 강연이라고 생각하여 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웃으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연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웃던 학생들도 강의 말미가 되면 얼굴이 심각해지고, 마치 뭘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언행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재미 뿐 아니라 진지함이 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알고, 모르고 행동한 폭력에 대해 반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Wee센터에서는 한달에 2주에 한번씩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합니다. Wee센터 종사자님들과 함께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의 특별 교육으로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중 ○○○학생의 경우는 Wee센터에 특별교육이 의뢰된 경우입니다. 친구가 부모님을 욕하는 언행을 하자 화가 나서 친구를 때리는 바람에 그 친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은 피해자의 부모님께 모욕을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겪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생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로 찾아 가서 2~3회 정도의 개인 면담도 더 진행 하였습니다. 학생에게 친구가 아무리 부모님을 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폭력 대신 상담 선생님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생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며, 주위에는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과 부모님, 나와 같은 스쿨 폴리스 등이 있으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은 좌절의 마음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나서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져 실의에 빠져 있었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개인 상담을 받게 되었고, 마음이 바뀌어 자신의 원래 꿈인 락커의 꿈을 되찾고, 새롭게 전학을 간 학교 에서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고등학교

하는 학생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방황했던 마음이 저를 만나고 나서 편해졌으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아졌다 고 이야기 합니다.

○○중 여학생이었던 ◇◇◇학생의 경우도 교육청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자주 만나서 지지와 공감을 해주자 학교를 잘 다니려고 노력하는 학생으로 변하여 지금은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싸움짱이었는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청 Wee센터에서의 특별교육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집단 교육 등을 통해 재차 교육하고, 또한 개인적인 면담도 실시하여 학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하여 학생이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고, ‘사부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현재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인 ○○○학생도 □□□ 학생과 마찬가지로 저의 노력을 통해 현재는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일종에 다른 하나는 인천시 청소년 쉼터에서도 10년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원 등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 학생들이 직업을 찾으려 노력하고, 조그만 직장이라도 잡아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는 아주 순하여 눈빛이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원에 3~4년을 다녀온 뒤로는 눈에서 살기를 띠었고, 인생도 거의 포기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인 학생이었는데 여러 번 찾아가서 진행한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변화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사부님’ 하고 부르며 달려와 거리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2012.8.6.~8.10. 특별교육 종〉

사제 간의 정을 확인하였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를 띤 눈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학생의 모습은 제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아닌 ‘사부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이들이 권위적인 인물이 아닌 자신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스승님으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아이들이 저를 보면 먼저 다가오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땐 더욱 아이들이 저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불어 저를 만났던 아이들에게 수시로 문자나 휴대 전화 통화를 하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아이들이 다른 마음을 먹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 상담사, 경찰관 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감, 가치감 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변 어른들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너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폭력과 비행, 범죄 등으로 자신의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감 등을 메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나를 소중히 여기라, 나를 사랑하라,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Na, ‘나’이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세상의 행복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분께 다시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내가 받은 원한은 물에 새겨 미련 없이 원한을 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항상 강조하듯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지도를 붙여 두고, 전 세계를 너희들의 가슴 속에 품으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만이 성공의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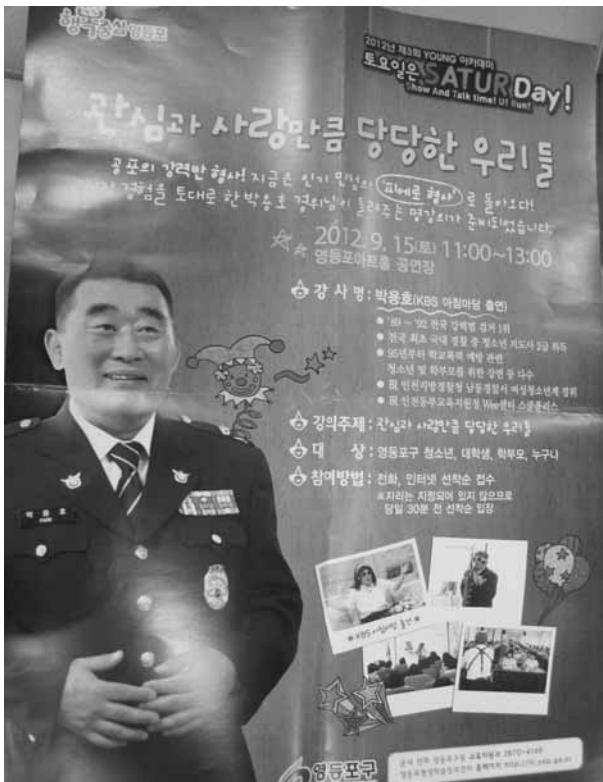
대한 민국 형사였던 본인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자 했습니다. 산전수전 등 어려웠던 경험과 사건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는 TV나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외부 활동을 알리고, 저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등포구에서 주최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YOUNG 아카데미 강연을 다녀 왔습니다.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대처법 등을 알려줘 청소년들이 옳은 판단력과 배려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마련 되었습니다. ‘관심과 사랑만큼 당당한 우리들’을 주제로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대처방안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정신보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함께하여 학교 폭력 후유증 등으로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2012. 6. 12 아침 마당 출연〉



본인은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변화무쌍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은 당당해지고,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한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대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또 사회도 포용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2. 9. 15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강연 >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 인생을 포기하였던 아이들은 저를 살리게 하는 존재이며, 저의 재산, 희망, 뿌리와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도우며 저도 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나쁜 일을 하였던 아이들이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기쁜 일이며, 저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 〈 기사글 모음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삐에로 형사님, 학생들과 함께하다!

- 현재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위를 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현재 동부 교육 지원청 Wee센터(교육장 오병서)에는 일명 삐에로 형사님라고 불리는 강력계형사 출신의 박용호 경위가 근무하고 있다.

박용호 경위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매번 우스꽝스런 탈을 쓰고 변신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웃음과 몰입을 주는 진정성을 가진 강의를 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는,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 예방 방법, 피해자 및 가해자 서로간의 심적 고통, 그리고 성인으로까지의 범죄 연계가능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선도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루하고 일방적인 강의만 듣다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 해 주시니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해 주셔서 훨씬 이해가 잘 되었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청 Wee센터 소속 박용호 경위는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만 올바로 선도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만큼 아이들이 달라진다. 우리의 아이들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호 경위는 KBS 아침마당(06.12)에 출연해서 그의 삶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인천 동부 교육 지원청 Wee센터는 현재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스쿨풀리스의 강의를 원하는 학교는 032-460-6371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일보 2012년 6월 14일



경찰이 ‘변장’한 까닭은

## 박용호 경위, 학교폭력 예방 위해 강의하고 장학금까지 지급



▲ 학교폭력예방 강의를 하는 박용호 경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경찰관이 20여 년 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직접 강의를 하고 자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고 있어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박용호 경위(56).

그는 학교폭력예방 강의를 위해 학생들 앞에 나설 때 언제나 빨간 두건에다 검은 선글라스 변장을 한다. 편안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격의 없는 대화와 강의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올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정도로 학교폭력예방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박 경위가 학교폭력예방 강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 형사과 강력반에서 근무하면서 한 자살학생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전국 수능 10위권에 들던 인천의 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박 경위를 강단에 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1995년에 ‘청소년 2급 지도사 자격증’ 까지 땠다.

그는 올해 2월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전문 경찰관에 선발됐다.



본격적인 청소년 범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도사로서 현재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WEE 센터 스쿨폴리스’ 활동을 하고 있다. 박 경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도록 하는데 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교육의 효과와 함께 범죄로부터 학생을 구하고 청소년 범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이들은 “흔히들 말하는 ‘문제학생’, ‘꼴통 학생’들도 박 경위의 강의를 듣고 나면 순한 양으로 변할 만큼 감동과 변화를 준다”고 말한다.

박 경위의 강의를 듣고 다시는 문제학생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선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박 경위)강사님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가장 진솔한 강의로 많은 문제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끈 만큼 웬만한 전문상담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제학생들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한 학교 분위기가 박 경위의 강의 한 번으로 많은 학생이 감동하면서 달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교육단체, 여성단체, 행정기관 등 심지어는 군부대에서도 박 경위를 초청해 강의를 부탁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그의 봉사정신 또한 남다르다.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봉급 일부를 폐내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7~8년전부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에서 매월 한번씩 범죄예방교육을 맡고 있다. 또 자체장애자수용시설에도 분기마다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입건된 학교자퇴생 40여 명을 고등학교에 복학시켜 그 중 25명을 유단자에 합격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한 사례는 감동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그는 베테랑 강력반 형사 출신이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1984년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6년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1989년 7월부터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에서 근무하면서 3년 연속 전국 강력범 검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흉악범 검거과정에서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숱한 위험과 위기를 다 넘긴 그도 과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터. 강력반 근무를 하면서 계속된 과로때문에 B형간염으로 쓰러진 이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늘 학생들과의 만남에 있었다. 인터뷰가 끝날무렵 그는 “내일(9.28) 아침에 있을 초등학생 강의 준비 때문에 빨리 가봐야겠다”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컷뉴스 2012년 10월 2일



## 형사의 변신은 무죄

### 학교폭력예방활동 나선 박용호 피에로 경위 이야기

언제부턴가 신문상을 장식하는 어두운 그림자 학교폭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건들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평소 수많은 사건과 사고 현장에 서는 경관이 발 벗고 나섰다. 폭력피해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에로를 자처한 박용호 경위를 만나보았다.



####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앞에 서는 이유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박용호 경위는 언뜻 보기에는 일반경찰관이다. 중견 간부답게 기품 있어 보이는 경찰관 제복이 잘 어울리는 그지만 학교 강단에서 설 때는 느닷없이 피에로 연기자로 변신한다.

그가 학생들이 이목을 사로잡고도 남을 만큼 이색 변장을 하고 학교 강단에 서는 이유는 바로 학교 폭력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크고 작게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끔찍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경찰관인 박 경위로서는 앓아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박 경위는 “과거 학교 폭력이 단순 괴롭힘 수준이었다면 최근 사례들은 따돌림과 정신적 폭력 등이 가세해 급기야 학생들을 자살 수준까지 모는 심각성이 있어요. 청소년 범죄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예방을 위해 강의에 나서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학교폭력관련 강사로 활동 중인 박 경위는 강연이 시작되면 느닷없이 피에로가 된다. 어느 날은 피에로 대신 여장으로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빨간 립스틱에 가발을 착용하고 강단에 서자 학생들은 모두 박장대소를 하며 눈길을 박 경위에게 모아준다. 이게 바로 경찰관 박용호 경위의 강연 노하우 시작이다.



웃음이 터져 나와야 진짜 강연



간석여중 소강당에 여학생들이 모였다. 팔 나이보다 어린 여학생들이 앞에 박 경위는 서슴없이 몸을 여성처럼 놀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썼다 시선을 제압한다. 그리곤 이제 박 경위는 하고 싶은 말을 꺼낸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누워있는 학생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고민하다 이렇게 저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답니다. 아셨죠?”

사진의 참혹함에 여학생들의 찡그렸던 얼굴이 다시 펴지자 박 경위는 강연을 이어간다. 아무리 학교 폭력이 심각해도 일반 강력계 형사가 강단 강사를 자처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인천지역에서 전국 수능 10위권에 들던 남학생이 우연한 학교폭력 피해자로 자살하면서 그 수사를 맡았어요. 조금만 그 학생에게 용기와 피해 대처요령 등이 사전에 있었다면 귀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스쿨폴리스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강연 자처



박 경위는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 스쿨풀리스이다. 그는 학생 강연 외에도 관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피에로 형사로 불리고 박 경위는 늘 분장 모습에 신경이 간다.

그는 “학교폭력에 관해 얘기 자체가 딱딱하고 또 따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복장을 하고 목소리 톤도 높낮이를 조절하는 이유는 전달을 위해서예요. 50분 가량의 강의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택한거죠”라고 말했다.



KBS ‘아침마당’ 출연장면

하지만 그는 현재 투병 중이다. 신체 일부가 아프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매번 우스꽝스런 탈을 쓰고 변신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처음에는 웃던 학생들은 강의 말미가 되면 얼굴은 심각해진다. 마치 뭔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언행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이다.

그는 한 때 한해 동안 300여 명의 주요 범인을 잡아 지난 81년부터 3년 연속 무궁화 봉사왕상을 받기도 했다. 이제 그 손에는 검거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늘도 하얀 분에 빨간 입술, 알록달록 피에로 옷을 입고 강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 Tip 박용호 경위는 어떤 사람인가

- 89~92년 :전국 강력범 검거 1위 : 대통령상 수상 (특진)
- 98년 3월 : 전국청소년 보호 우수공로자 : 청룡봉사상 수상 (특진)
- 2005년 8월 : 전국청소년 보호 우수공로자 : 업무유공 (특진)

\* 95년 말~현재까지

-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강좌 초·중·고등학교 : 300여회 (30만명)
- 전국 청소년 유관단체 강의 : 100여회 (1만여명)
- 전국 성폭력, 가정폭력, 학원폭력 상담사 교육 : 30회(5000여명)
- 전국최초 국내 경찰 중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 취득 (95. 12월)
- 유도, 태권도, 검도, 격투기, 합기도 등 종합 무술 20단

〈인천시 인터넷 신문 2012년 6월 26일〉



## 드라마수업을 통해 공감과 변화를 이끌다.

유지원

### I. 개인 현황

성명	유지원	현소속	도곡초등학교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93-5 5층		
연락처	02-834-4052	이메일	moondans14@nate.com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동곡초등학교	2011.3월~2012.2월	학교폭력예방 수업 및 담당
	도곡초등학교	2012.3월~2012.10월	과정드라마로 6학년 학폭예수업
※소속은 경기도 동곡초이지만 서울 도곡초에 파견교사로 있음			

### II. 본문

####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내가 먼저!

칠풍이 활짝 피어난 새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들판처럼 빠져 있고 머리카락도 가늘고 얼굴도 눈도 입술도 가느다란 여학생이었다. 소영이(가명)였다. 소영이가 모딜리아니의 그림과 비슷했다면 여리고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굴은 맥없고 피곤해 보였다. 언제나 주변을 향해서 눈동자를 굴려서 그런지 불안하고 가냘픈 일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소영이는 교실에서나 복도에서나 늘 다른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친구들은 소영이가 가까이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소영이를 보면 도망가듯 달려가는 학생도 있었다. 3월에 도덕과 과학 전담인 나는 일주일도 안 되어 소영이가 따돌림 당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소영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소영이가 특수반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 특수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교과전담실에 커피 한잔을 타 놓고 따뜻한 찻잔의 기운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특수반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이선생님(가명)은 마음이 예쁜 사람인 듯 했다.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담임교사도 아닌 전담교사가 특수반 교사와 함께 학생에 대해 상의하는 일이 그리 흔한 장면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소영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통했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소영이가 4층 복도에 나가면 같은 반이고 다른 반이고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눈짓을 보냅니다. 짓궂은 남학생은 아예 소영이하고 접촉한 부분을 다른 학생에게 문질러서 친구가 자지러지는 걸 즐기는 장난을 치는데 소영이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겪은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선생님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네, 소영이는 전따이지요.”

이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소영이는 이랬다. 소영이는 경계성 지능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둠활동도 잘 할 수가 없었다. 엄마나 아빠는 매우 인텔리이고 언니 역시 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마는 이런 소영이를 칭피해하고 특수반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다가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특수반 교사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소영이의 비호감 행동은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한 가지는 공부시간에 머리카락을 뜯어서 책상 위에 모아두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책상위에 머리카락을 보면 당연히 지저분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스킨십 때문이었다.

“선생님, 소영이가 엉덩이를 만졌어요.”

“선생님, 뒤에서 저를 와락 안았어요.”

학생들은 소영이가 가까이 오는 걸 예민하게 반응했다. 담임선생님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소영이가 몸을 만졌다고 고소 고발하듯이 호들갑스럽게 고자질했다. 소영이는 나를 보면 늘 손이나 팔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뺨에 입을 맞춰 적잖이 당황스러운 적이 생각났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작년에 생활부장을 하면서 4학년 전체에게 학교폭력 예방수업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당시 옆 반에서 심각한 따돌림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옆 반 선생님은 심한 스트레스를 앓았다. 사건은 대강 이랬다.

평상시에 말이 없고 소심한 향이(가명)의 반에 언제나 대장 노릇을 하려는 수빈(가명)이가 있었다. 그런데 자기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고 향이를 불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다짜고짜 불렀다. 향이가 복도로 나가자 수빈이와 평소 다니는 네 명이 쭈루루 나가면서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자 다른 반 학생들도 같이 따라 나갔다. 재활용품함 옆으로 가서 향이를 끊어앉히고 원으로 둘러서서 주변에 집히는 물건을 던졌다고 한다. 그 중에는 담배꽁초도 있었다. 이 사건을 향이 엄마는 알고 후들후들 떨리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한 선생님은 의외로 작년 3학년 때 담임이었다. 그런데 토요일 생각이 많아지고 일요일 생각이 또 달라졌다. 그래서 주변 엄마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들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향이 엄마 마음을 더 들쑤셔 놨다. 그래서 담임교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향이 엄마는 가해자 부모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당연히 수빈이와 네 명 친구들을 혼냈다. 사건이 이렇게 해서 진정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며칠 후에 수빈이를 비롯한 가해자 부모들이 함께 학교에 왔다.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평소 학급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 더 미워하고 타박을 준다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라면서 항의를 하였다. 나라도 옆에 있어 힘이 되어 주려고 했지만 정년을 앞두고 있는 담임교사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나한테 밖에 나가달라고 했다. 그 이후 내가 보는 향이는 점점 어두운 표정이 되어갔고 행동 역시 굼뜨고 멈칫멈칫 주춤거려 했다. 생활부장을 맡은 직책이라서 더 책임감이 느껴졌고 이제 학교폭력은 내 코앞에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할까? 무엇부터 시작일까? 우선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들만 상담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따돌림을 방관하는 아이들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방어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교사가 도덕적인 훈화나 지시로 아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학생들이 지금



까지 행동을 반성해보고 감동을 받아 행동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경험해보게 하자.'

그래서 결론은 교육연극을 활용하는 학교폭력 수업이었다.

'그래, 내가 해보자. 그리고 한 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학년을 전체 다 하는 게 효과적이니 교과전담을 해야겠다.'

그리고 새 학교에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과 첫 만남에서 이렇게 부탁드렸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6학년 도덕 전담을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2. 드라마 수업에서 공감했던 것을 바탕으로…….

우선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구안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과 에피소드를 모았다. 6학년 도덕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도덕적 가치 중에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를 골랐다. 그리고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각 드라마는 3차시를 1회기로 연계된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종 신문이나 소설, 드라마 등의 자료를 탐색하여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 도덕 교과의 가치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학교폭력예방 수업의 개요 〉

단원	단원명	가치 요소	학교폭력예방에서의 지도 내용	드라마 에피소드 출처
1	귀중한 나, 참다운 꿈	자긍심	나와 남의 자존감 세우기	월마루돌프 (교과서)
2	책임을 다하는 삶	책임감	장난이 폭력이 되는 것 인식하기	소년이 그랬다 (국립청소년극단 공연)
4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며	배려, 봉사	갈등해결 의사소통능력 기르기 분노조절능력 기르기	본교 학생의 경험담 수기 모음
6	용기, 내 안의 위대한 힘	용기	방관자가 방어자로 변화하기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존중,관용	다문화 가정 및 다른 문화에 관한 수용능력 기르기	나도 잘 모르지만 (MBC 단편드라마)

### 1) 장난도 나와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장난으로 했다고 한다. 장난으로 때리고 장난으로 욕하고 장난으로 놀리는 것이다. '소년이 그랬다'라는 작품에서 장난으로 저지른 살인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겪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장난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법원에서 아래의 통지서를 받는다.

OOO는 \_\_\_\_\_로, 만 14세 초범임을 감안하여 훈방조치하고 3주 교육을 받는다.



〈옥상 사건을 추측하여 만든 장면〉

는 인물이 되어 그의 생각과 느낌을 도덕공책에 적는다. 그리고 적은 내용을 서로 토의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이어져 드라마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수업의 관건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긴장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처음은 옥상에서 일어났다. 어떤 일인지 정지장면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간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목요일 오후 12시 경 옥상에서 돌을 던진다. 그런데 경찰 패트롤카의 경적이 요란하게 울린다. 밑을 보니 차 유리창이 깨지고 한 남자가 핸들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어디로 갈까? 학생들은 어디로 갈지 추측한다. 학생들이 이야기한 곳으로 돌아다니다 5시간 후 PC방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인사하던 PC방 주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자신의 몽타주를 본다. ‘40대 남자를 죽인 겁 없는 10대’를 수배중이라고 한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들은 김상식이라

2012년 4월 4일 월요일

김상식의 생각: 아, 어떻게 하지? 나 어쩌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나봐. 어쩌지? 내가 그게 이 돌을 던졌을까?

김상식의 기분: 두렵고, 무섭다. 고집다. 도망가고 싶다.

김상식은 어디에, 어떻게? (5시간 후): 자하철에 있을 것 같다. 멀리 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지하철을 타고 나갈 것이다.

〈드라마수업에서 지금 현재 인물이 되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는지 적은 내용〉

학생들은 친구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상식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15번 통화음이 울렸지만 응답이 없다. 왜일까? 학생들은 그의 집안 환경을 추측한다. 어느 한 모둠의 추측대로 그는 자랐고 결국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당장 아빠에 의해 인근 경찰서로 간다. 가는 길에  
‘어차피 잡힐 건데 자수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경찰서 앞에 담배를 피우는 경찰을 보자 허리와 머리끝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도망치려해도 소용없다. 결국 의자에 앉았다.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조회된다. 이름은 김상식. 학교생활 역시 공개된다. 그의 학교생활은 어떠할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김상식은 경찰에게 취조 받는다. 경찰은 일부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냐고 캐묻는다. 잠을 잘 수 없다. 법원으로 두 손이 묶인 채 복도에서 한 여인의 눈동자를 보게 된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의 뻔 뚫린 듯한 눈동자. 그녀는 누구일까? 죽은 남자의 아내이다. 그녀의 가족들은 남편이 죽기 전과 죽은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두 개의 사진을 몸으로 만들어보았다. 그리고 그날 김상식은 꿈을꾼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학생들은 만화로 과장된 그림을 그린다. 김상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반 친구들은 김상식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스컴과 떠도는 소문이 고작이다. 자, 지금 교실 문을 열고 김상식이 나타났다. 반 친구들이라면 어떤 반응일까? 김상식이 쉬는 시간에 나갔다. 학생들은 김상식의 반 학생들이 되어 수군덕거린다.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고 무엇을 새롭게 느끼고 배웠는지 성찰하는 일지를 적어본다.

학생들은 1차시 수업이 끝나자

“김상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와요?”

라고 하면서 수업이 끝나는 걸 아쉬워했다. 지금까지도 김상식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야기한다. 정말 학생들이 수업에 빠져들어서 김상식을 따라서 긴장하기도 하고 슬퍼하면서 몰입과 공감의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의 소감은 이러했다.

- 한번 실수를 해도 일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을 준다면 더 행복하게 되었을 거다.
- 내가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바로 자수해서 죄를 면하거나 조금만 받을 거다.
- 장난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
- 학생들을 골고루 좋아해주어야 할 것 같다.
-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외롭고 슬픈 것을 느꼈다.
-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

교감선생님과 몇몇 교사들도 드라마 수업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다. 이 수업은 작년 4학년에게도 효과적이었고 학교를 옮긴 올해의 6학년에게도 효과적이었다.

## 2) 방관이 아닌 용기를 내는 수업!

다음 드라마는 ‘따돌림’을 주제로 하였다. 되도록 학생들이 수업 중에 소영이를 떠올리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반에서 낙서가 적힌 종이가 발견된다. 학생들은 낙서를 분석한다. 죽고 싶다는 말도 있고 괴롭다는 말이 적혀있다. 이제 이 반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학생들은 반 아이들이 된다. 선생님은 이 반의 이선생님이



되어 폭력설문지를 나누어 준다.

“오늘 학교폭력예방의 날이니 설문조사를 하려고 해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좋아요. 폭력에 관한 경험을 적어 주세요.”

“진짜 적어요?”

학생들은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어쩐지 더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선생님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반에 있는 폭력을 파악할 수 있을지 묻는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상담해준다. 그런데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9월이 되어서야 이선생님은 폭력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학생들에게 왜 그랬을지 도대체 가해자는 어떤 아이였을지를 묻는다.

가해자가 서서히 드러난다. 학급회장을 뽑는 날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가해자인 나우세가 학급회장이 되는 과정을 상상한다. 나우세가 유세를 하자 몇 명의 아이들이 환호를 한다.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 그런데 쉬는 시간 유력한 회장후보인 아이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려준다. 나우세가 회장후보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다음으로 나우세가 이 반의 학생들을 장악하게 된 과정을 경험한다. 도덕 선생님은 나우세에게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게 하였다. 도덕선생님이 나간 사이 약한 아이를 본보기로 나우세는 걷어찼고 학생들은 조용해졌다. 선생님들은 나우세에게 자율학습시간, 체육시간, 청소시간 감독을 맡겼다. 이 반은 이제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하는 분위기가 낮설지 않다. 학생들은 아침자율학습시간, 교답시간, 쉬는 시간, 급식시간, 방과후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밖에서 어떤 형태의 다양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지 정지장면을 만든다. 교사는 피해자가 되어줄 한명을 고른다. 이제 교사의 신호에 따라 한 모둠씩 움직인다. 피해자가 서서히 움직여 모둠으로 가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다. 망보기, 뻥뜯기, 빵셔틀, 때리기, 혐담하기, 인터넷으로 욕하기를 당하고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교사는 엄마가 된다.

“무슨 말이야? 전학을 가겠다고? 요즈음 공부하는 걸 보지 못했어.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들어가서 숙제하고…….”

“엄마…….”

“얼른 들어가지 못하겠어?”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 일기 숙제를 해야 하지만 자신의 비밀일기장을 펼쳐서 일기를 쓰는데 아이들은 피해자가 된다면~ 이라고 상상하고 어떻게 쓸지 적어본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제목: 죽고싶은 날

왜 아이들은 나에게 그리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너무 힘들고 죽고싶다 이유는 무엇일까. 왜 엄마는 내 말을 왜 안 들어주까?

이런 날이 이제 매일 지속되는 걸까? 뉴스에 나오는 최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초등 학생이 되는 걸까? 난 이대로 어디까지 살면서 버틸 수 있겠지?

다른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없는 걸까? 저반 계발 죽여주세요....엄마

< 따돌림 당하는 피해자가 되어 일기를 적은 내용



그리고 나서 나우세의 강력한 라이벌 학생의 일기를 읽어본다. 나우세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권력의 단맛을 더욱더 강하게 즐겼다. 이제 라이벌 역시 나우세에게 복종해야했다. 그리고 9월 나우세가 병원에 누워 있다. 민소지라는 학생이 나우세를 가위로 찌른 것이다. 이선생님이 이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민소지는 매우 소극적이고 남자 학생 중에서 힘이 약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선생님은 학생들을 보면서 묻는다.

“너희들은 뭔가 알고 있지? 우세의 부모님은 민소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 뿐 아니라 병원비와 보상금을 몇 천 만원 요구하실 것 같아. 소지는 이 돈을 갚으려면 집이나 가게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민소지가 나우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너희들이 도와주면 안 될까?”

학생들은 조용하다. 그리고 생각한다. 허구 속에 놓인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주위의 눈치를 본다. 내가 말하면 누구에게 편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꺼낸다.

벽은 알고 있다. 그 날 그날 그 아이들이	벽은 알고 있다. 그 날 그날 그 아이들이
<u>학교 폭력을</u> 한 것	목니 <u>한 것을</u>
<u>그리고 그는</u>	<u>내가</u> <u>맞기가</u>
<u>알고 물어갔다.</u>	<u>모서워서</u> <u>埒죽지 못했다.</u>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나는
<u>같이 봤다.</u>	<u>폭력을</u> <u>당했다.</u>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다
그러나 벽은 아직도	그러나 벽은 아직도
<u>고통을 안다.</u>	<u>말하고 있다</u>
<u>그아이의 고통을.</u>	<u>“왜! 뿐 척 했나!”</u>
<u>그아이의 고통은</u>	<u>전가 죄였잖아!”</u>
	<u>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u>
	<u>알지 못한다</u>

〈 따돌림에 관한 수업 후 학생의 성찰시 〉



“민소지는 나우세에게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교사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나우세에게 폭력을 당해온 사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손을 듈다. 그리고 나우세의 라이벌 역할을 했던 학생들이 감정을 실어서 나우세의 행동을 털어놓는다. 이제 학생들은 민소지를 도와주는 방어자의 역할이 된 것이다. 그런데 8반 중에서 1반은 결국 나우세의 행동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민소지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지 이야기해보았다. 마침 신문과 TV에 왕따로 인한 자살로 시끄럽던 때라서 학생들은 자살로 연결시켰다. 교실을 둘러보았다. 거울에 작은 안개꽃 조화가 있었다. 꽃을 떼어 학생들에게 수업을 정리하는 시를 적게 했다.

그리고 먼저 작성한 아이들 세 명이 이 시를 읽으면서 천천히 교실 앞에서 뒤까지 걸어가게 하였다. 이 행위는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엄숙함을 주었다. 벽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가정을 하면서 쓴 시는 우리들 모두를 피해자의 아픔을 같이 느끼도록 도와주었다.

이 드라마를 하고나서 소영이 반에 있는 지숙(가명)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요즈음에 소영이한테 아이들이 잘 해줘요.”

4층 6학년들이 종이 봉지가 터지듯이 복도에 튀어나왔다. 쉬는 시간 종이 폭발음 같다. 그런데 최근 소영이가 지나갈 때 남학생들이 하던 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물론 드라마를 6학년 전체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소영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 것 같다. 소영이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늘 몇 마디의 인사를 했다. 나는 소영이와 이야기할 때 늘 미소를 지었고 공감해주려고 잘 경청했다. 이 모습은 6학년 학생들에게 종종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나 역시 이 ‘왕따 드라마’를 수업한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6학년 교사들이 교장실로 간 사건이 벌어졌다. 한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소영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불쌍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유를 알고 매우 기뻤다. 교장실 문을 열었다.

“제가 도덕시간에 6학년 전체에게 학교폭력 드라마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2주전에 왕따 문제를 갖고 드라마를 했는데 그 이후 소영이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좋아졌어요. 이 편지 역시 소영이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소영이는 담임교사와 저 그리고 특수교사와 더불어 늘 보호하고 있어요.”

누군가 용기를 내어준 그 학생이 기특했다.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하면서 소영이 이야기를 비춘 것이다. 소영이의 얼굴은 더 이상 가느다랗고 맥없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밝아져 보였다.



### 3) 우리 모두의 감성으로 녹이는 스트레스!

그런데 새로 온 학교에서 몇 달 있으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학생들은 쉽게 화를 내기도 했고 거친 표현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 전체 학생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아이들은 화가 나 있고 얼굴이 어두운지 알고 싶었다. 학생들의 상처나 억압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돋고 싶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을 적어 내도록 부탁했다.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쪽지를 분류하면서 가정에서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장 힘든 점은 성적이나 점수를 둘러싼 부모와의 갈등이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주는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라마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수업을 진행했다. 되도록 드라마를 해 보지 않은 교사도 할 수 있는 수업을 생각했다. 수업의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가나 영화감독이 된다. 먼저 한 학생이 책상에 있는 장면을 본다. 주변에 누가 있을 지 물어보자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한다. 교사는 엄마와 아빠가 어떤 말을 할지 목소리를 이 장면에

넣어보자고 하자

“그게 공부라고 하는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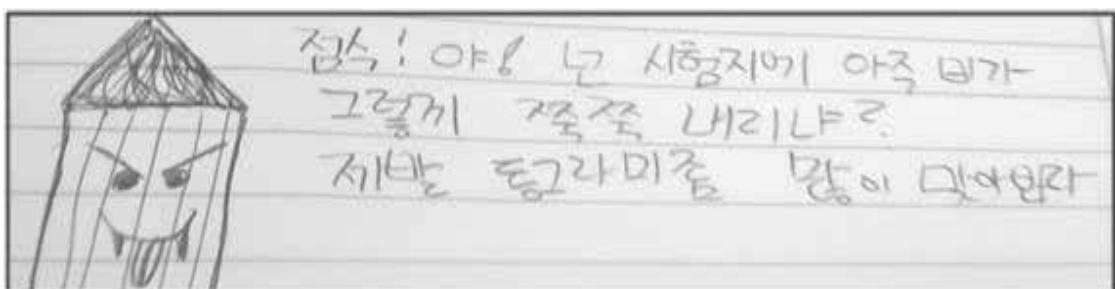
“왜 사냐?”

학생들의 기를 죽이거나 혼내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넣어본다. 진짜 이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움직여보라고 하자 학생은 책을 덮고 던지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제 교사는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들을 그려보라고 한다.



〈 엄마와 갈등 장면 〉



〈 빨간 색연필이 놀리는 상상 〉

칠판에는 시험지가 그려지고 CCTV가 달린다. 그 옆으로 기다란 회초리가 성적 파일이 있는 컴퓨터 근처에 놓여진다. 상담실 안에는 언제든지 나의 행동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다. 학생들은 이 중에서 가장 신경을 건드리는 물건을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말 주머니에 적는다. 이제 모둠끼



리 하나의 물건에 얹힌 장면을 만들게 한다. 즉 흥극을 발표하자 학원에서 혼나고 엄마에게 혼나는 장면이 실감나게 연출된다. 레벨이 정해지는 시험과 매일 외워야 하는 단어들 학생들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

엄마대표 3명과 아이 대표 3명이 일어나서 대화를 한다.

“도대체 왜 학원을 안 다니려고 하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학원 다니는 건 내 맘이잖아요.”

“점수가 고작 그게 뭐니? 그래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좀 낫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왜 공부를 할 때는 안 보세요?”

“평균도 못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해?”

“엄마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노는 것, TV 보는 것, 친구 만나는 것 다 끊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왜 공부를 하니?”

학생들과 엄마는 팽팽한 접전을 한다. 그러나 서로를 결코 존중하지 않고 싸우려고 들고 있다. 교사는 I-message를 알려주고 다시 대화하도록 한다.

“나는 네 공부를 도와주려고 학원에 보냈는데 40점을 맞아서 가슴이 마구 벌렁벌렁 떨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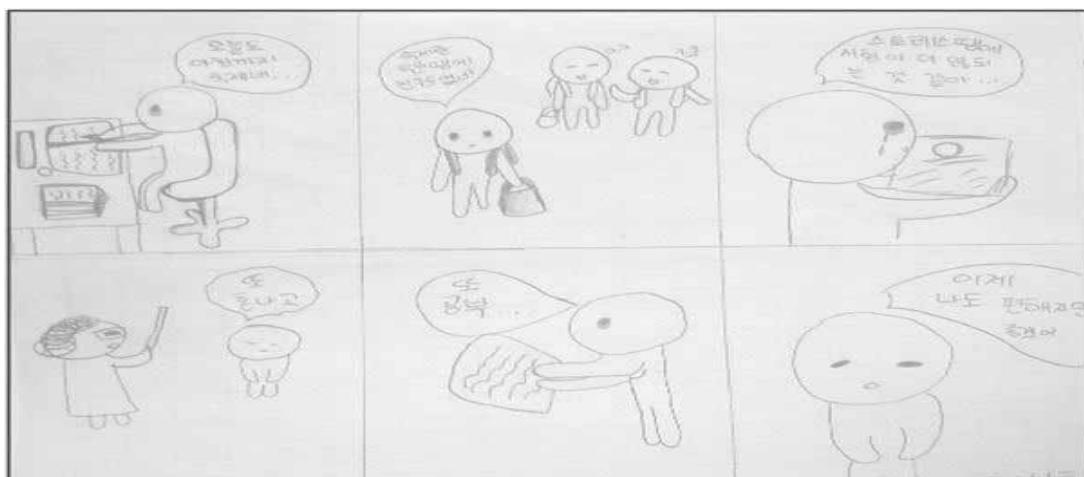
“나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점수가 이러니까 짜증나고 바보 같아요. 내가…….”

“그렇겠구나.”

“내 수준보다 높게 나오고 숙제도 많아서 공부에 질리게 돼요.”

아까의 대화와 다르게 서로를 이해해주자 분위기가 바뀐다. 아까는 교실 문으로 가서 나가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제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 성적 점수 스트레스에 관한 학생의 만화작품 〉



학생들은 엄마가 하루에 30분 정도 대화를 해주어야 한다거나 학원이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학원을 자녀의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없는 법도 눈에 들어왔다. 이제 학생들은 다시 다큐멘터리 작가나 영화감독이 되어 지금까지의 성적과 점수 스트레스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드라마 수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라서 공감이 되었다고 했다. 특히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매번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내 목소리를 내어주는 친구가 이야기할 때 시원했다고 한다. 나는 공부하는데 불평이 없었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위로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 수업은 서로를 공감하고 대화하게 하는 수업이었나 보다. 공개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수업을 보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선생님이 엄마가 되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교사를 더욱 친근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늘 역할극이나 연극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쓸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이 수업을 하면서 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존중하고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가가 자녀의 인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 식당에서 한 학생과 밥을 먹고 있었다. 이 학생에게 우연히 말을 걸었는데 “주말에 뭐하니?”

“음……. 공부해요.”

“공부만 하니?”

“아니요. 이제 학원 끊었어요. 저번에 선생님하고 한 드라마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제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주말에 공부해요.”

이 학생의 말에 감동하였다. 허구적 상황에서 겪은 경험을 실제의 삶속에서 구현했던 것이다.

학생들이 현실에서 어른 못지않은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욕, 주먹이 거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학생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러웠다.

#### 4) 배려와 소통이 필요한 대화!

여름 더위가 푹푹 찌는 날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났다. 학습지를 걷고 나가려는 데 두 명의 남자 학생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주변 학생들에게

“말려, 빨리 손을 붙잡아.”

라고 소리쳤다. 가보니 한 학생의 손에 가위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그 가위가 머리 위에서 흔들거렸다. 이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상대방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욕을 했다. 중간에 서서 일단 가위를 뺐었다. 그리고 나서 한 학생만 복도로 불러서 숨을 길게 쉬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더니 짧고 강하게 말하자 따라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지 생각



해보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학생들이 분노를 조절해서 자기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수업을 하였다.

전과자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폭력적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고 학교성적을 꾸짖으며 칼을 꺼내 위협하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한다. 그리고 전과자 최씨는 초등학교 때 자주 싸우고 혼내는 교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대든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집안 물건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한다. 같이 사는 여자를 망치로 살해한다. 학생들은 둘씩 조각가 놀이를 하면서 김씨나 최씨의 정지조각으로 있다가 움직여 보면서 즉흥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가장 불행한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본다. 그리고 언제 참았으면 좋을지 “잠깐” 하면서 외쳐본다. 그리고 각자 최근 화가 난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약이 오르죠. 짜증이 나죠.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죠. 어쩔 줄 모르고 치밀어 오르죠. 천불이 나고 뚜껑이 열리죠. 이렇게 외칩니다. 잠깐, 휴~”

“잠깐, 휴~”

학생들은 숨을 길게 내쉰다. 그리고 감정 맞추기 게임을 한다. 표정과 몸짓이 말보다 더 훨씬 감정을 알아차리기 쉬운 단서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상황극에 들어간다. 동생과 형으로 나누여 서로의 느낌을 정확히 찾아보고 서로 바꾸어서 해보면서 상대의 기분을 다시 찾아본다. 비폭력대화를 연습한다. 이제 “잠깐, 휴~” 기술과 대화기술을 익힌 학생들은 본격적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다.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는 갑자기 학생들의 화를 돋운다. 학생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매우 화가 나있다. 그때 드라마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찾으라고 한다. 그리고 적절한 말하기를 모둠과 생각해보게 하고 다시 그 전 상황에서 교사와 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사실같은 허구에서 연습한 후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미션을 제대로 수행해내어야 한다. 화가 나는 상황 하나를 뽑고 적절한 말하기를 고민하여 연습한 후에 상대역할을 하는 교사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성공하였다. 모둠으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사실 갑자기 남을 배려하는 화법을 사용한다는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모두에게 ‘평화주인공상’을 만들어 도덕 공책에 붙여주었다.

수업 후에 인터뷰와 소감문에서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사: 오늘 수업 어땠니?

학생1: 기분이 좋아졌어요.

교사: 왜?

학생1: 감정을 이야기하니까요.

교사: 그럼 느낌을 드러냈을 때 어땠니?

학생1: 후련했어요.

학생2: 이렇게 말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3: 언니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학생4: 화를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5: 이렇게 사실, 느낌, 요구로 말하니까 화를 안 내었던 것 같아요.

학생6: 사람의 말 한 마디에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수업이 있고 나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잠깐, 휴~”

### 3. 비밀 이야기 속에 숨은 진실!

학교 상담실은 있지만 아직 상담교사가 배정되지 않았다. 다른 공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보다 상담실이 좋았다. 다른 교사들도 없이 학생과 1:1로 눈을 마주치면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서로에게 따뜻해지고 의미 있기를 바랬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표정도 떠오른다. 엄마가 가족 몰래 피우는 담배가 걱정되어 울먹이던 아이의 얼굴, 작년까지 친구들에게 가해자로 낙인을 찍혀서 나쁜 소문 때문에 울분을 쏟아내던 학생의 얼굴,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영어식 발음으로 놀림을 받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려는 학생. 그 학생의 눈물 역시 두 눈 속에 고여서 얼굴에 흐르지 않았다. 수업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밀 이야기는 그렇게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상담실에 여러 명을 초대하게 되었다. 소영이의 반에서 새로운 문제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이의 모둠에서 한 학생이 결석을 하였다. 그러자 영태(가명)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혼자 앉아 있던 소영이를 영태 자리로 가서 짹을 만들어주었는데 영태가 그럼 다시 자기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서 재빠르게 자기 자리로 갔다. 그 옆의 미소(가명) 역시 소영이와 앉힌다니까 얼굴이 굳어져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빈자리에 보내려 하자 모둠 학생들 모두 거북한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한 두 명이 아니라 모두 소영이를 기피하려고 하고 모둠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다음시간에 상담실로 불러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실에 소영이를 제외한 모둠 학생들 다섯 명이 모였다.



**사실 :** 어제 언니가 미팅한다고 내가 PPT만드는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늘 미팅도 양보했는데 나만 혼난다.

(생각 ×)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와서 혼나서 기분이 나쁘다.

**느낌 :**

- 언니가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난다.
- 답답하다.
- 설망한다.
- 마침 지경이다
- 억울하다

**욕구 :**

(생각 ×) 있는)

평화주인공 상

6학년

최 어린이는 화가 날 때 다음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어린이입니다.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을 쥐우르지 않습니다.

둘째. 무조건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셋째. 화를 양아차리고 참만. 헤~를 되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와 상대방의 느낌을 들어줍니다.

다섯째. 사실, 느낌, 요구 순서로 상대의 화를 물으지 않도록 자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 분노조절 수업에서 적절한 말하기 게임 성공 후 학생이 받은 평화주인공 상〉

학생들 모두에게 놀이 하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바로 ‘피하기’ 연극놀이였다. 한 명의 친구가 술래로 정해지면 술래는 천천히 움직인다. 다른 친구들은 술래를 피해 다닌다.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표정이나 몸짓으로 꺼려하는 표현을 한다. 술래는 계속 바뀌면서 전체가 술래가 된다.

그 과정에서 전혀 다그치거나 혼내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재미있었어요.”  
“그럼 이런 술래 역할을 일주일 내내 한다면 아니 한달 내내 한다면 더 길어진다면 어떨까?”  
“힘들겠죠.”  
학생들의 얼굴이 이제 좀 심각해졌다.

소영이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소영이를 기피하는지 물었다. 역시 예상대로 스킨십에 관한 불만이 나왔다. 그 부분을 조금씩 고치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들이 소영이에 대해 행동을 바꾸어줄 것도 약속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상담실에서 하얀 기체처럼 빠져나갔다.



#### 4. 삶의 핵심이 된 드라마 속 긴장의 순간들!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집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소수의 약자였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집단도 들어갈 수 없고 정신지체 집단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소영이는 불편하고 짜증날 뿐이었다. 왜냐하면 소영이가 보통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다른 점이 딱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영이와 비슷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여학생이 또 있었다. 그 학생은 정상적인 지능이 있고 부모님과 잘 해결되어 친구들이 더 이상 그 학생을 따돌리지 않았다. 또한 그 여학생은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노력을 잘도 해냈다. 그런데 소영이는 끝없이 맴도는 것 같았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끝이 없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무언가 다른 점을 가진 친구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수업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문화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다문화를 단순히 외국인을 부모로 하는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금을 그어 차별하는 경우를 떠올려보고 소수의 문화를 보호하고 이해해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수업은 드라마 수업 중에서 가장 긴장감 있었고 소영이에게 효과적인 변화를 생기게 하였다. 드라마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다문화 학과 학생이 되어 다문화 가정 하나를 취재하고 ‘우리의 태도’를 적는 리포트를 써야 한다. 그래서 이두현이라는 학생의 가정을 경험한다. 이두현의 어머니 셈낭은 스물두 살 때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흔 여덟 노총각과 결혼하러 온다. 그런데 셈낭은 한국어를 가르치지도 캄보디아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 채팅을 못하게 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남편, 피부가 검은 아이를 낳았다고 놀리는 마을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셈낭의 마음 속 말을 한다. 학생들은 그 후의 셈낭의 미래를 추측한다. 그리고 열일곱 살 된 두현이는 현재 엄마와 살고 있지 않다. 자신과 닮은 엄마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가정생활과 밥 말리 음악을 듣고 공부 안 하는 학교생활은 두현이를 힘들게 한다. 학생들은 두현이가 가장 힘든 장면을 해보고 두현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행복할지 적어본다. 두현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학생들은 드라마 속에서 발견해나간다. ‘너희’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술래를 피하는 게임을 하였다. 내가 술래가 되어 학생들이 나를 피하고 경계하는 몸짓을 하면서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사람으로 연상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학생들이 말한 것을 다 받아 적었다.

노숙자 전염병 환자 거지 찐다



계속 받아 적는 데

“O소영”이라는 이름을 외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순간 갈등했다.

‘어떻게 할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정이 복잡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풀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O소영 이름을 칠판에 적었다.

학생들은 놀라면서 극적인 에너지가 쑤욱 높아졌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적었다. 그리고 이제 소영이 뿐 아니라 이 곳에 있는 단어가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을 생각했다.

“혹시 이 반을 둘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공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여 ‘너희’라는 테두리 안에 학생들 모두가 적히게 되었다.

노숙자 전염병 환자 거지 찐다 O소영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잘 생긴 사람, 못 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체육 잘 하는 사람,  
체육 못 하는 사람, 여자, 남자, 안경 찐 사람, 안 찐 사람

쓰여진 단어들이 터질 듯하다. 이제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했다.

“여기 적힌 사람을 보고 이 사회에서 구분해서 이두현의 삶처럼 차별되어도 좋다는 사람만 놔두고 지울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두 개까지만 지울 수 있다. 누가 지울까”

학생들은 하나씩 나와서 지워나갔다.

키 작은 아이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인 듯 키 작은 친구를 지우고 갔다.

공부 못하는 친구를 지울 때는 공부가 삽은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 O소영이를 지우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자 뒤에서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순간으로 다시 멈추게 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하게 했다. 학생들은 O소영이의 비호감 행동을 이야기했다.

‘특수교사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었구나.’

소영이에게 이 학생들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어야겠다고 했다.

“만약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영이 이름을 지우겠다는 사람은 일어나 달라.”

학생들은 서서히 의자를 뒤로 젓으면서 일어났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났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남학생 준하(가명)가 있었다. 준하는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소영이는 공부도 못해요.”



그러자 학생들이 준하를 보고 맞받아쳤다.

“준하 너도 못 하잖아.”

그리고 한 명이 나와 ‘너희’ 테두리 안에 준하의 이름을 적었다. 다시 준하의 이름을 지워주는 학생이 있었고 준하 역시 소영이의 입장이 되는 경험을 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소영이를 불렀다.

교사: 아까 수업할 때 기분이 어땠어?

소영: 동하(가명)가 내 이름을 지워줘서 평소에도 잘 대해줬지만 진짜 고마웠어요.”

교사: 친구들이 일어났을 때는?”

소영: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일어나다니…….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건, 아이들 몸에 손을 안대는 거야. 그리고 훔치지 않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냉혹하게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행동을 지금 수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긴장의 드라마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야 했다. 소영이와 이제 절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일주일 후에 약속을 지켰을 때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자고 했다. 그리고 다음시간 소영이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사회적 약자는 너희가 아닌 우리다!!

서울대 대문화학과

이두현은 다문화 가정이고 사회적 약자이며 많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다. 나도 만약 이두현 학생과 같은 친구들을 보았다면 똑같이 놀리고 물고 떠들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놀린 경험이 있고 예를 들면 나는 [ ] 를 친구들과 함께 놀리거나 있으며 꾀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도 우리이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놀렸던 것일까? 나는 깨달았다. 사회적 약자는 너희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그 후에 아이들도 소영이의 스트레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수업을 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소영이는 내 약속을 지키려고 나를 만나면 깍지를 끼었다. 남의 몸을 만지려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 두 손을 잡게 되나 보다. 소영이는 드디어 비호감행동을 하지 않았다.



“소영이가 두 가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너희들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사람이 금방 행동이 바꾸지 않잖니? 너희들도 소영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소영이에게 물어봤는데 소영이는 너희들이 놀릴 때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 행동이 나온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소영이를 놀리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떡볶이 가게로 갔다. 떡볶이 연기가 올라오면서 떡볶이 빨간 국물이 떨어지면서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소영이도 나도 친구들도 이렇게 걱정도 없이 하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 5.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을 담아…….

일주일에 한번씩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를 적용한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대해 6학년 선생님들도 좋아했다. 일단 재미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고 수업을 보신 분들이 집단 상담을 해주셔서 좋다고 했다. 그런 덕분인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시간 강사들이 오시면

“여기 6학년은 다른 학교에 비하면 너무 순해요. 6학년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맞장구를 친다.

“작년 6학년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지.”

드라마 수업은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는 수업으로 꼽는다. 복도에서 학생들과 미소를 지으면서 눈짓을 나눈다.

6학년 국어 수행평가 중에 ‘면담하기’가 있었다. 두 반의 학생들이 먼저 와서 면담했고 또 다른 반 학생들이 와서 면담했다.



## 단계적인 활동으로 따돌림 문제를 해결한 선생님의 이야기

이지연

성명	이지연		현소속	부산광역시 해강초등학교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우남파스트빌 아파트 101동 1102호			
연락처			이메일	musey@chol.com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해운대 교육지원청	2012.3월~2013.2월	선도협의회 개최	간사학교 주무
	해강초등학교	2012.3월~2013.2월	학교폭력 업무처리	학교폭력 담당교사

## II. 본문

### I. 만남

#### ♀ 리반 ○○이

4년 만에 다시 맡은 담임이라 그런지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한 2012년 3월, 유독 나의 눈을 끄는 한 아이가 있었다. 책상위에는 항상 공부와는 상관없는 물건들이 올라와 있었고, 서랍과 사물함은 정리가 안 되어 어지러웠으며, 숙제와 준비물은 어쩌다 해 오는 것도 반가운 그런 아이. 조금 산만하구나 생각했지만 ‘아직은 학기 초니까 더 살펴보아야지.’라고 생각한 그 때 이 아이가 이미 우리반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따돌림이 올 3월에 시작된 것이 아닌,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것이라고는 더더욱 생각지도 못 했다.

내가 ○○이의 작년 담임선생님을 처음 찾아간 이유는 공부시간에 항상 딴 짓을 하는 ○○이의 학습태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작년 담임선생님께 내가 ○○이 이름을 꺼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어머니 선생님 한번 안 찾아 갔습니까?”

내가 작년에 학년 바뀌면 그렇게 찾아 가라고 일렀는데.”

긴 교직경력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아, 이 녀석 뭘가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레 꺼내시는 말씀이 작년에 반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이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 1년이 너무 힘드셨다면 올해는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 동안 무심히 스쳐지나간 ○○이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 올려 보았다. 쉬는 시간 항상 내 주위나 친구 주위를 맴돌기만 했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장난치거나 또래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기억에 없었다. 학기 초 선생님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아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함께 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자기반 아이의 말 없는 메시지를 이제야 알아채다니... 담임으로서 나 자신이 참 한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담임선생님과 2시간에 이르는 긴 상담 후, 나는 관심이 없는 척하며 ○○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이의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고, ○○이의 글을 읽었다.

아이들은 ○○이를 싫어하였다. 물건도 빌려주려 하지 않았고 ○○이가 만진 물건은 무슨 더러운 오물인 마냥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혼자서 우리반 쓰레기통을 다 치워도, 모둠활동을 할 때 준비물을 다 챙겨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담임인 내가 앞에 있는데도 아이들은 대놓고 ○○이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업시간에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이의 태도 때문에 ○○이가 있는 모둠은 항상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물을 제 시간 내에 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그런 ○○이의 태도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런 아이들의 태도에 ○○이는 더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 짜증을 잘 내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내가 아무리 ○○이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려고 해도 오히려 아이들의 반응은 더 냉담해질 뿐이었고 결국 나는 모둠을 바꾸어 달라는 아이들의 민원 속에서 3월 한 달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이의 담임이다. 그래서 ○○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내가 ○○이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어머니와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 어 머니의 눈물

꽃샘추위가 한풀 꺾인 3월 말 늦은 오후 ○○이 어머니와 만났다. ○○이 어머니는 담임이 먼저 연락을 해서 상담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계셨고 ○○이에 대해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셨다. 나는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갑자기 학기 초부터 제가 상담을 하자고 해서 많이 놀라셨지요. 사실 제가 ○○이와 지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가 지금 우리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이들이 ○○이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

“어머니, 저는 ○○이를 돋고 싶습니다. 고학년의 교우관계는 3월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담임선생님께서 학년이 바뀌면 꼭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제가 찾아가서 드리는 말씀이 오히려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이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주게 될까봐 일부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순간 나도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소중한 자식이 나의 말 한 마디로 인해 힘든 1년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지 얼마나 고민 하셨을까.

“사실 ○○이가 어렸을 때에 산만하여 담임선생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히려 ○○이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을 선뜻 찾아뵙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1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지요.”

“어머니 그 선생님도 ○○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힘겹게 어머니의 마음을 열고 나는 어머니를 통해 ○○이의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는 남들을 잘 쟁겨 주고 보살펴주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런 ○○이의 좋은 장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속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은 ○○이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 잘 하고 잔소리하는 잔소리장이라고 싫어하고 따돌리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학교에서도 노력을 할테니 집에서도 ○○이가 그런 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타일러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도 부탁을 드렸다.



## 함께하는 우리반 프로젝트

막상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내가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오히려 ○○이에게 나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고학년 아이들의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여 변화하는 것이지 교사가 말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뿌리부터 서서히 변화하여 잎까지 변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도 혼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나무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급함 마음을 버리고 서서히 아이들과 ○



○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름 하여‘함께하는 우리반’ 프로젝트. 나는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고민은 비단 이번 1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이 되도록 하였다.

## II. 함께하는 우리반 프로젝트

3월

서로 존중하며 예쁜 말로 대화해요

3월 말, 평소 짜증스러운 말투와 거친 언어로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하여 바른 언어 표현법을 익히기 위한 수업을 하였다. 물론 이 수업은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한 수업이었지만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많이 쓰는 우리반 아이들 전체를 위한 수업이기도 하였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앞으로 나오세요.”



반장의 사회로 회의는 진행이 되었다.

“각자 들었을 때 힘이 나는 말 한 마디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말 한 마디씩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힘이 나는 말에는 힘내,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에는 지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내와 지랄이 나왔습니다.”

순간 교실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왜 웃는 거니?”

“친절하고 모범적인 반장이 지랄이라고 하니

너무 이상하고 웃겨요.”

“저는 지랄이라고 발표를 해서 지랄이라고 한건데요...”

“와~~~ 하하하하하”

아이들이 얼굴이 벌개져라 웃는다.

“그래? 그러면 누가 지랄이라고 말해야 어색하지 않는데?

“뭔가 질이 나쁘고 거친 사람 있잖아요. 범죄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반은 다들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니까 아무도 지랄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네?”



순간 참새같이 조잘거리던 아이들이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 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반 월별 추천어, 금지어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말은 너희들이 친구들에게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지 않나. 그 언어의 바른 표현법을 익힌다면 서로 기분 상할 일도 줄어들고 친구들 사이도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반 월별 추천어, 금지어 선정 활동을 했다. 그 결과 우리반 추천어에는 고마워, 멋져, 최고야 등이, 금지어에는 닥쳐, 존나, 개새끼 등이 선정이 되었다.

“이 추천어와 금지어는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것이니 1년 동안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네!”

월별 추천어, 금지어 지키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처음에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답답해하였다. 말을 하다가 보면 무의식적으로 금지어가 튀어나오기도 하였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추천어를 쓰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딱딱하고 답답하다고 괴로워하던 아이들도 하루, 이를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금지어와 추천어에 적응해 나갔고 점점 단어 하나하나, 말 한 마디에 먼저 생각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도 말을 가려서 하게 되었고 ○○이의 짜증나고 거친 언어 때문에 ○○이와 말하기 싫어했던 아이들도 한두 마디씩 ○○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눈에 띠게 많이 볼 수 있었다.



## 4월

## 아침 걷기 운동과 도란도란 이야기

학교에서의 일상은 단조롭다. 30분간의 아침자습 시간, 40분간의 공부시간, 10분간의 쉬는 시간 다시 40분간의 공부시간... 그나마 있는 쉬는 시간도 특별실로 이동해야 하면 학교에 있는 하루 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조차도 친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 보면 친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좀처럼 가지기 힘들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거나 수다를 떨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대화만큼 좋은 것이 있다고 했는가. 결국 고민 끝에 나는 4월의 ‘함께하는 우리반’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아침자습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운동장을 돌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월, 수요일은 교실에서 아침자습을 하고 화, 목, 금요일은 운동장에서 아침 걷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걷기 운동이요?”

“네. 교실에서 아침자습을 하는 대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운동장을 5바퀴 돌고 오는 것입니다. 책가방을 교실에 두고 하여도 괜찮고 운동장 스탠드에 두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단 운동장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우리반에 혼자 걷는 친구가 없도록 삼삼오오 짹을 지어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겠다!”

몇몇의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 하기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표정이었다.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 나는 아이들 반응을 보기 위해 운동장 한 쪽 모퉁이에서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다들 교실에서 보다 한결 밝고 편안한 얼굴들이었다. 나를 보고 ‘선생님’ 하면서 쪼로로 달려오는 아이도 있었고 손으로 브이자를 그리고 베시시 웃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혹시나 혼자서 걷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운동장을 빨리 훑어보았다. 다행히 혼자 걷고 있는 아이는 없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찾으니 ○○이는 우리반 친구들 틈에서 다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걷고 있었다.

아침 걷기 운동을 한 날은 확실히 아이들의 얼굴이 밝았다. ○○이의 얼굴도 밝았다. 그리고 교실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던 언쟁과 다툼도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는 아이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줄여 나갔고 아이들도 더 이상 ○○이와 같은 모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가능성이었다.

‘그래 ○○아. 그렇게 조금씩 친구들에게 다가서는 거야.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 줄테니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다가서렴.’





5월

## 한 걸음씩 걸으며 마음의 문을 노크해요

올 해는 토요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예년에 비해 주말이 여유로운 편이었다. 그래서 4월에 하였던 아침 걷기 운동과 유사한 ‘한걸음 걷기 운동 1·2·3’을 우리반 친구들과 같이 주말에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예상보다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우리반의 3분의 2가 넘는 아이들이 주말 한걸음 걷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이를 주말 운동에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어머니, ○○이 담임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한걸음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를 꼭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걸음 걷기 운동이요?”

“네. 우리 학교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주말에 우리반 아이들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테는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이른 아침 우리반은 학교를 출발해 동백섬으로 향했다. ○○이는 내 뒤에 바로 붙어 서서 내 뒤를 졸졸 따라왔고 나는 가면서 ○○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연예인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빅뱅!”

“빅뱅 누구요?”

“빅뱅 전부 다~ 좋아.”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만 고르라 하면 누구요?”

“빅뱅 전부 다 좋다니까.”

“에이~”

○○이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빠죽이 내밀었다.

“저는 지 드래곤이 좋아요!”

갑자기 이제까지 뒤에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던 △△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탑이 좋아요!”

제형이도 끼어든다. 다들 자기들 이야기에 정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나 보다.

“어? 나도 탑이 좋은데?”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에게 말을 하였다.

“그치? 탑이 좋지? 탑이 멋지다고!!”

“아니야. 지 드래곤이 더 멋지거든. 지 드래곤은 혼자서 작사, 작곡도 다 한다고.”





“탑이거든! 탑이 랩하면 더 멋지거든!”

“지 드래곤이거든!”

아이들은 편을 나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멋지다고 난리다. ○○이도 자기편이 질세라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편을 응원한다. 나는 웃으면서 슬그머니 그 속에서 빠져 나왔다. 앞에서 먼저 가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니 아직도 자기들끼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한참 이야기중이다. ‘그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선생님 옆이 아니라 지금 거기 친구들 옆이란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백섬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백섬은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는 아직 완전히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못 했지만 간간이 친구들과 한두 마디씩 주고받으며 동백섬을 같이 걸었다. 5월의 바닷물은 아직 찰지만 푸른 바다를 보며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바다 만큼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고, 자연이 주는 포근함만큼 ○○이의 마음도, 아이들의 마음도 따뜻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6월

## 오정은 파도 속에 , 베풀은 봉사 속에

즐거웠던‘한걸음 걷기 운동’으로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아이들이 한참 궁금해 할 때쯤 나는 중대발표를 하였다.

“6월에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다양한 주말 활동을 하겠습니다. 모래축제도 가고 물놀이도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세요.”

이어져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합성 소리. 6월은 날씨도 좋고 해수욕장에 사람도 적어 우리끼리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였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이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토요일 아침 들뜬 마음으로 갈아입을 옷과 간식을 챙겨 들고 다 같이 바닷가로 향했다. 친구들과 편을 나누어 닭싸움도 하고, 부드러운 모래 위로 릴레이 경주도 하고, 밀려드는 은빛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을 튕기며 모두 하나가 되었다.

조용한 아침 바닷가에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 퍼지고 나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때 나의 렌즈에 포착된 ○○이의 얼굴. ○○이는 머리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얼굴 한 가득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에 ○○이를 보면 친구들 곁에서 맴





돈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는 더 이상 친구들 주변을 걸돌지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구석에 있지도 않았다.

이제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이가 자기를 곁으로 와서 어울리거나 같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이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가 짜증을 덜 내니 아이들은 ○○이가 조금 변한 것 같아며 예전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분명히 변하고 있다. 3월 초, 같이 앓기도 말하기도 싫어하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공간을 ○○이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와 아이들 사이에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 지난 주 해운대 물놀이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조금 더 보람된 일을 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까요?”

“해변로 쓰레기 줍기를 할까 생각중이에요.”

“아, 봉사활동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우리가 해변로로 걸어 갈 거니까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주우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에는 부모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해변로 쓰레기를 줍고 바닷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게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좋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나는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주말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학부모님을 모았다. ○○이 어머니께서는 참가하지 않으셨지만 의외로 많은 학부모님께서 봉사활동에 참가하셨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백사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솔선수범하여 쓰레기를 주우셨다.

해운대 백사장에 도착해서 모은 쓰레기는 큰 봉투 3개 가득 나왔고 아이들은 자기가 매일 지나다니던 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처음에 선생님이 쓰레기 줍자고 했을 때 사실 조금 귀찮기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든

든해요.”

“저도 봉지 가득 쌓인 쓰레기를 보니 그냥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게 베풀이란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지. 그게 꼭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

“선생님, 우리 다음에도 또 해요.”

“다음이 아니라 매일 매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매일 매일요?”

“그럼, 매일 매일.”

“에이, 어떻게 매일 매일 이렇게 봉사를 해요?”

“베푼다는 것이 꼭 몸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니?”

“..... 그러면요?”

“너희가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 건네는 것, 친구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마음으로 베푼는 것도 베푼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푼는 것이지. 너희들은 평소에 주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너희 마음을 베풀고 있니?”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질문에 갑자기 숙연해졌다.

“선생님 너무 정곡을 찌르세요.”

“가슴이 콕콕 쑤시니?”

“네, 가슴이 콕콕 쑤셔요. 하하”

“선생님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봉사활동도 계획한 것이고. 친구들과 지내다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만 서로가 조금씩만 베푼다면...”

“아름다운 우리반이 되겠지요!”

“맞아요, 하하하하”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에서 부모님들과 야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통해 듣기만 했던 ○○이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살자는 나의 말을 기억해서인지 보통 때보다 더욱 스스럼없이 어울렸고 ○○이도 그런 친구들과 같이 물장난을 치며 바닷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저 모습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저 모습이 보고 싶어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막상 보니 아이러니하게 이제 되었다는 감동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무엇인가 이를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 대한 아쉬움. 저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위해 우리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와 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해맑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집단따돌림이라는 것, 학교폭력이라는 것 모두 어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은 저렇게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야 하는데 어른들의 욕심으로 매일 공부와 학원 속에서 지내니 우리는 과연 학교폭력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물을 자격이 있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예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이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반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하루였다.

그래도 아쉬움에 빠져 있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는 이제 겨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되었지 아직 다른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더 배워야 했다. 내가 힘을 내야 했었다.



## 7월

## 갈등 속으로, 친구들 속으로

무더운 7월이 시작되었다. 시원한 해운대 바닷가와 함께한 6월을 뒤로 하고 이제 ○○이를 친구들 속으로 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 동안 보이지 않던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 갈등이 좀 더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가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할 때가 말이다. 그래서 7월의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주제로 잡았다. 특별히 외부로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 속에서 ○○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말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며 교과서를 한참을 뒤적이다가 미술교과에 나오는 판화 만들기를 협동작품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가 학기 초부터 아이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모둠활동을 할 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낸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판화협동 작품 만들기는 정말 ○○이에게 딱 맞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판화는 특성상 팔 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협동작품으로 만들게 되면 항상 다른 친구의 작품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모둠원 중에 몇 명이 잘한다고 해서 작품이 멋지게 나올 수 없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의견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우연인 척 하면서 아이들 이름표를 무작위로 뽑아 모둠구성을 하였다. ○○이가 속한 모둠은 그 동안 ○○이와 같이 주말에 여러 활동을 한 아이들로 일부러 확실한 리더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아이들로 구성하였다.



1교시 밑그림 그리기 시간이 지나고 모둠활동 시간이 시작되자 나는 순서를 하는 척 하면서 ○○이가 속한 모둠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는 전부 다 파야 한다니까. 여기도 다 파야하고.”

○○이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렇게 다 파면 팔 곳이 너무 많아져서 만들기 힘들어질거야.”

“그리고 그렇게 파면 연결되는 부분이 이상하게 연결되어 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다 파야 한다니까.”

○○이가 또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내가 봐도 아이들의 의견이 맞는데 ○○이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또 다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순간 내가 가서 저 상황을 정리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더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지금 만약 내가 가서 정리를 한다면 ○○이는 다시 예전의 고집스럽고 짜증 잘 내는 아이로 남을 것이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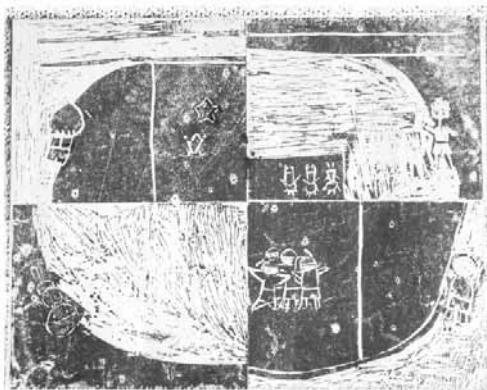
“여기는 운동장인데 ○○이 너 말대로 한다면 운동장이 두 쪽은 하얗게 나오고 두 쪽은 까맣게 나올 거야.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듣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는 못 들은 척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는 ○○이가 속한 모둠의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결국 ○○이가 속한 모둠의 작품은 우려하던 대로 운동장이 두 판은 하얗게, 두 판을 까맣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버렸다. 내가 그렇게 협동작품이니 연결부위를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여러분, 그 동안 친구들과 협동작품 만든다고 수고했어요. 오늘은 그 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해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선생님이 나누어준 종이에 솔직하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아이들은 모두 각자 받은 종이에 열심히 써 내려갔고, 예상한대로 모둠원 아이들은 ○○이가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힘들었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다 등의 내용을 써 내었다. 이제까지 노력한 것이 다 헛일이 었나 한 숨을 쉬며 ○○이 종이를 본 나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 놓을 수가 없었다. ○○이가 낸 종이에는 ‘모둠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우리 모둠 작품을 망친 게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도 내가 왜 우겼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아 미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안 해봐서, 방법을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가 안 되었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나는 그 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둠원들을 방과 후에 남겨서 ○○이가 적은 종이를 보여줬다. 아



이들은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 그런데 ○○이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지 몰랐던 거야. 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불면 단소 소리가 잘 나는지 알아서 단소를 잘 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 방법을 몰라 못 불기도 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지. ○○이는 다른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에 서툴렀던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선생님이 ○○이를 불러 다른 친구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이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어떻게겠나?”

“네.”

“고맙구나. ○○이에게는 선생님이 잘 말할게.”

아이들이 싱긋이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방과 후에 ○○이를 조용히 불렀다.

“○○아.”

“네.”

“○○이가 적은 글은 선생님이 다 읽었어. 선생님은 ○○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이가 그런 마음을 친구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이를 계속 오해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

“선생님 생각에는 ○○이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해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사과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봐. 선생님이 쓰는 방법인데 그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였더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누구야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네가 내 사과를 받아주면 정말 고맙겠어. 이렇게 말이야.”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봐. 처음에 네가 한 행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말하면 좀 어색하고 부끄러울거야.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거든. 선생님은 ○○이가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네...”

○○이가 자신 없는 투로 대답을 하였다.

“우리 같이 연습해 보자.”

그 날 오후 ○○이는 나와 함께 사과하는 연습을 하였고 다음날 쉬는 시간, 갑자기 내 옆에 다가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선생님 저 사과했어요.’라고 속삭이고 가는 것이었다. 결과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의 얼굴과 발걸음에서.



8월

## 돌고 돌아 온 인정의 박수

때로는 확실하다고 기대한 것에서 실패를 맛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에서 커다란 수학을 얻기도 한다.

올 해는 주 5일제의 전면 실시로 여름 방학 일수가 줄어들어 작년보다 일찍 개학을 했다. 여름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도 특별한 일은 없는 듯 했고, 쉬는 시간 아이들을 차분히 살펴봐도 친구들 사이에서 달라진 점도 크게 없어 보였다. ○○이는 다행히 1학기 말 방학할 때와 비슷하게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남은 8월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 아이들하고 래포도 형성하고 2학기 수업시간에 활용도 할 겸 많이 알려져 있는 ‘핫 포테이토’ 동영상을 따라 해 보기로 하였다. 교실의 책상을 모두 옆으로 밀고 한 동작씩 따라 하는데 고학년 아이들이라 그런지 영 쑥스러워 하였고 몇 명은 아예 통나무처럼 서서 절대로 못 하겠다는 의사를 나에게 표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오늘 배운 핫 포테이토로 다음 주에 우리반 댄스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일주일간의 급식 우선권과 맛있는 비타민 영양제 증정 그리고 선생님의 특별 애정표현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와~ 일주일간 급식 일등권이래!”

“우리 학교마치고 같이 연습할래?”

“선생님! 인터넷 어디 가면 동영상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아이들의 관심이 폭증하였다. 아이들에게는 급식 먼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였나 보다.

“동영상은 인터넷 검색창에 핫 포테이토라고 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날부터 아이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뒤쪽에서 열심히 핫 포테이토 연습을 하였다. 약속한 댄스 대회 날이 다가오고 아이들은 저마다 급식 우선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대회는 5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의 춤을 보면서 우리반에서 핫 포테이토를 가장 정확한 동작으로 신나게 추는 사람 6명을 뽑아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간의 급식 우선권과 맛있는 비타민 영양제 증정 그리고 선생님의 특별 애정표현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대회는 시작되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때로는 친구들의 실수에 웃고 서로 격려를 하기도 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이 차례가 되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어? ○○이가 너무 잘 추는 것이었다. 원래 ○○이가 키가 커 같은 동작을 해도 시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무엇인가가 더 있었다. 그게 뭘까 생각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리듬감이었다. ○○이는 리듬을 몸으로 느끼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눈을 보니 다들 ○○이의 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아이들도 ○○이의 춤이 다른 아이들의 춤과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웠고 기뻤다. ○○이가 춤을 추는 내내 ○○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이 모둠의 발표가 끝이 나고 내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이 잘 춘다!”

“완전 신나게 추는데?”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나오기 시작했다.

“밥만 먹고 춤만 췄나. 왜 저렇게 잘 춘데?”

“진짜 잘 춘다. 연예인 같아.”

친구들의 칭찬을 들은 ○○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입이 귀에 걸렸다. 우리반 핫 포테이토 댄스 대회에서 ○○이는 아이들의 투표로 당당히 우수 댄서로 뽑히었고 아이들은 ○○이의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박수와 함께 환호를 해 주었다. 반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찾아 온 친구들의 인정의 박수와 환호였다.

## 9월

## 고마운 친구, 미안한 친구



2학기 개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9월달 ‘함께하는 우리반’ 프로젝트 활동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 오랜만에 주말 활동을 하기로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친구, 미안한 친구’를 주제로 케이크를 만든다면 어떤 케이크를 만들 것인지 자기만의 케이크를 디자인 해 오라고 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해 온 숙제에는 각종 창의적인 케이크들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들은 친구들이 디자인한 케이크를 같이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분, 다음 주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케이크를 만들러 갈까 해요.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이번 주까지 선생님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케이크 만들기 활동에는 20명에 가까운 우리반 아이들이 신청을 했고 폭풍우가 부는 주말에 우리는 비 바람을 헤치며 케이크를 만들려 갔다. 아이들은 4명씩 한 모둠으로 모둠별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케이크 만들기는 어려웠다. 특히 색깔별로 다르게 주어진 생크림을 일정한 간격을 지키며 꽂모양으로 예쁘게 짜서 꾸며야 하는 것은 모둠원들 간의 많은 협동심을 요구했다.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은 주어진 시간 내에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팀은 케이크를 다 꾸미지도 못한 채 케이크를 칼로 잘라서 먹어야 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케이크를 만들고 온 그 다음 주, 나는 아이들에게 편지지를 한 장씩 나누어주며 지난



주말에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우리반 친구들 중 평소 자기가 고마웠거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친구 한 명에게 준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자고 하였다. 아이들은 적은 편지에는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었다. 지난번 자기 생일에 와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 항상 자기에게 물건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 지난번에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내용 등. 어떤 아이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미안하였던 일은 사과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반의 ◇◇가 ○○이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다.



### ○○아 안녕?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너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새 학년이 되어서 네가 화를 잘 내는 것을 보고 너는 좀 안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너의 안 좋은 점만 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때 너를 안 좋게 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2학기 쯤 되어서 너와 자주 같이 있게 되면서 너가 변한 모습을 보고 너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우리가 지내면서 되게 사소한 것으로 많이 다투었잖아. 그 때마다 너가 속은 되게 여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도 사이좋게 지내자.

친구 ◇◇가

○○이도 변화하였고 아이들도 변하였다. ○○이는 여전히 자기주장을 펼쳤지만 아이들은 그런 ○○이의 태도를 수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아이들과도 타협할 줄 모르던 ○○이가 아이들의 반대가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줄 알게 되었다. 타인에 대한 수용과 존중. 그리고 배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낸 커다란 보물이었다.



### III. 함께하는 우리

#### I 지금도 우리반은 현재 진행형 ing

○○이는 지금도 자기와의 싸움중이다. 어느 날은 안 쓰러울 정도로 친구들을 쟁기며 싫은 소리 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하고 또 어떤 날은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화부터 낸다. 선생님이 나무라면 어떤 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뉘우치고 어떤 날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 할 말부터 한다.

나는 지금 ○○이가 자기만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어떤 날은 신나게 물레를 돌리며 멋지게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어떤 날은 조각칼로 그릇에 예쁜 꽃무늬를 새기고 또 어떤 날은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기도 하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이는 혼자가 아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친구가 있는 교실에서 같이 뒤엉키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와 아이들 모두 오늘도 엎치락 뒷치락 하고 있다. 어느 순간 앞으로 쭉 갔다 싶으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있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한다. ○○이도 조금씩 성장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 타인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나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알고 이를 고치려는 마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베풀려는 마음. 지금 우리반에는 이 마음의 짹들이 자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말이다.



#### II 상을 담는 그릇이 되렴

“○○아”

“네?”

“선생님은 지금 ○○이가 자기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한단다.”

“네? 제 그릇을 만든다구요? 에이~”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을 물레에 올려서 열심히 돌리지 않니? 흙이 많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더 추가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릇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크기도 커지지. ○○이가 지금 그 과정이라 생각을 해.”

“.....”

“큰 그릇하고 작은 그릇 중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은 어느 그릇일까?”

“큰 그릇이요.”

“○○아, 큰 그릇이 되렴. 인내와 아픔이 없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단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렴. 선생님이 옆에서 열심히 물도 뿌려주고 물레도 돌려 줄테니 하늘같은 커다란 그릇이 되렴.”

오늘도 ○○이는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다. 친구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말이다.



## 역할극에서 UCC 제작까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반!

장민경

### I. 개인 현황

성명	장민경		현소속	서울창천초등학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하늘채A 103-203			
연락처			이메일	parfum0507@naver.com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창천초	2010.3월~2011.2월 2012.2월~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업무	교사
	창천초	2012.8월~2012.10월	학교폭력사안 대처 매뉴얼 개발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교사

### II. 본문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이다. 우리학교는 대개 4월에 서울에 위치한 영어마을로 수련회를 간다. 수련회 출발 전 일요일 오후,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어제 △△이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이네 있다고 하더니 또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겠어요.”

○○이네 전화를 걸었더니 ○○이 형이 아침에는 애들이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가라고 하셔서 어디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라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저녁에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는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던 터라, 다음 날 아침 수련회로 떠나기 전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학교에 남겨 두었다. 수련회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들이 지도를 하는데 걱정이 되었다. 수련회를 다녀온 며칠 뒤, 아이들이 부러움 섞인 말투로 내게 전했다.

“선생님, △△이는 팽이가 엄청 많아요. 우리 엄만 안 사주는데.....”

2년 전, 비싼 팽이 모으는 게 유행이던 때인지라 아이들이 한창 팽이를 가지고 다니며 서로 교환하고 자랑했다.

“그래? △△이는 팽이가 몇 개 있는데?”

“한 이십 개쯤? 엄청 많아요.”

“한 개에 얼만데?”



“만 원 정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는 순간 엄청 놀랐다. △△이네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이 팽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5시쯤 △△이를 데리고 교실로 오셨다.

“제 말을 얘가 안 듣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선생님이 알아봐 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질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팽이를 산 돈은 장롱 속에 있던 신용카드로부터 인출한 것이고, 암호는 예상한 것이 우연히 맞았으며 수련회에 간 사이 대형마트 등에 가서 카드를 사용하여 계산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거짓말과 혼란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이야기였다. 심지어 대형마트는 한강다리 건너인데 아이들을 이끌고 자전거로 다녀왔다고 말하는 대단한 녀석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혼내는 것도 선생님께 맡긴다면 먼저 자리를 떠나셨다. 며칠 간 고민을 하다가 내린 별은 ‘1년 동안 나의 비서로 생활하며 나와 함께 퇴근하기’ 였다. 학원도 안 다니고 머리도 좋아서 여리모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행인 것은 꽤 착실하게 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매일 남아서 숙제도 하고 재시험 보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비서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복사기 사용법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보조선생님이 안 계셔도 혼자 알아서 양면복사까지 척척 해왔다. 2학기가 되어 △△이가 학급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내가 이해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도 △△이를 신뢰했다.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다듬으려 노력했던 녀석이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를 칭찬할 때마다 부모처럼 기뻤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듬해에 빼저리게 느꼈다. 6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오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겨울방학 즈음에는 이미 정도와는 심하게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다. 담배를 피고, 중학생과 어울리며 가출을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가 며칠 째 집에 안 들어와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로부터 거의 1년 8개월만에 다시 전화를 받았다. 12월 24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이가 학교주차장에서 잔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밤 11시까지 학교주차장과 인근 빌딩, 주택의 주차장을 찾아 헤맸다. 동네골목은 수도 없이 많았고 주차장 문만 50개는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문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 1월 말, 개학을 앞두고 또 △△이가 집을 나갔다. 개학식에는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인 ◇◇이에게 물었더니 낮에 가끔 집에 와서 같이 놀기는 하지만 밤에는 어디에서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를테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이는 학교에도 집에도 오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해 잘 있다는 확인전화만 한다고 했다. ◇◇이네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8시가 넘어 ◇◇이를 불렀다. 같이 있다가 나갔다고 하며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를 찾았다. △△이 부모가 ◇◇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해서 다같이 커피숍에 앉아 대책의 의논했



다. 늘 △△이가 가출의 평계로 삼던 아버지는 대화가 어려운 분이셨다. 본인 주장과 논리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야기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부인 탓만 하셨기 때문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옆에는 중국교포이신 △△이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함께 협력해서 찾기로 했다. 일단 찾은 후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이야기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이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패밀리’에게 물어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때 내 제자였던 예쁜 녀석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믿고 기다렸다. 2학기 후반에 △△이 담임을 갑자기 맡게 된 내 후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네 집에 아이들이 다같이 있는데 △△이도 거기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찾아가 보기로 했다. 눈이 많이 오는 오후였다. ◇◇이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부조를 벗고 방안으로 들어가니 △△이만 제외하고 모든 패밀리 멤버가 다 있었다.

“뭐하고 있었어?”

“형이 볶음밥 만들어 줘서 다같이 먹었어요.”

“△△이는?”

“△△이는 안 왔는데요?”

“어딨는지 몰라?”

“네.”

잠시 침대에 앉아 방안을 둘러보았다. 나가려고 하는 찰나, 옷걸이에 익숙한 점퍼가 눈에 띄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 너 딱 걸렸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오자.”

내 말이 끝나자 점퍼가 움직였다. 옷걸이 속에 옷처럼 숨어있던 △△이가 꾸물꾸물 나왔다. 배신감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이와 이 패밀리에 대한 감정과 그간의 고생들이 한데 뒤엉켜 △△이를 보자마다 욕이 나왔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다. △△이에게 미안하다. 단체로 별을 세우고 △△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욕도 하고 셋이 같이 울었다. ◇◇이 할머니께서 내려오셔서 나도 많이 혼났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다 부모잘못이고 선생잘못이라고. 어르신 말씀이 백번 옳았다. 그런 후에 각서를 썼다. 앞으로 잘 해보겠노라고. 그 각서를 가지고 아버지와도 약속을 하기로 했다. 귀가시간도 늦추고, 욕하거나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런데 얼마 뒤, △△이의 욕설과 괴롭힘에 지친 패밀리 멤버 학부모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의견진술 및 피해상황인지, 교육조치를 위해 참석요청을 했다.



자치위원회 회의 당일, 교감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셨다. ◇◇이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셨다며 나에게 종이 한장을 건넸다. 전에 △△이 부모와 커피숍을 갔던 때부터 일자별로 나에 대한 기록이 써져 있었다. ◇◇이 집에 갔던 눈 내리던 날에 있었던 일은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장민경 선생님 무단침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교감선생님께 나를 ‘무단침입 및 인권침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온 몸에 힘이 짹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교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나의 신념과 정의가 흐려지고 회의감에 빠져 들었다.

올해 6월, △△이가 남의 집 옥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술과 담배는 주변 슈퍼와 편의점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관심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 괜히 나서다가 다치지 말라고 걱정한다. 어디까지가 나의 몫일까. △△이에게 전화를 하려다 문득 ‘무단침입’이라는 말이 떠올라 주춤한다. 묻고 싶다. 교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선을 넘으면 무단침입인지.

이 글은 동아일보에 내가 연재했던 ‘초등쌤 장민경 선생님의 좌충우돌 교단일기’ 10월 11일자 기사이다. 내가 가장 공들이이고 가장 마음을 많이 주었던 녀석과의 2년간의 사연들을 짧게 엮었다. 이 아이 덕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은 꺾였고, 학급경영과 상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다.

### [시작,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다]

나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교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싸움을 끊어 말리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일이 많았다. 내가 1학년 1반 반장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반 여자아이가 가출을 했다. 학교에 왔다가 중간에 사라진 것이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오전이었다. 담임선생님께 말하고 찾으러 나섰다. 학교 주변 놀이터, 인근 대학교 등 갈만한 곳은 살살이 헤집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소위 ‘노는 아이’ 중 하나였다. 그 아이와 친했던 친구에게서 빼빼번호를 받아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았다.

“주연아, 나 민경인데 어딨어? 애들이 너 걱정 많이 하고 있어. 혹시 어디 다치거나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지? 연락 남겨주라.”

며칠 뒤, 무단결석 상태이던 그 아이에게서 음성메시지가 왔다.

“나 주연인데..... 잘 지내고 있어. 집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도 가기 싫어. 다 짜증나고.... 아는 언니오빠들이랑 잘 지내니까 걱정마.”

얼마 후, 학교로 돌아왔던 그 친구는 결국 자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노는 애들’과 꽤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공부 좀 하는’ 나를 경계하면서도 가끔은



그네들의 비밀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내가 다닌 중학교 근처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고 아주 낡은 연립주택과 빌라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떤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달동네 주민’이라고 했다. 아직도 우리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며 웃곤 하신다. 내가 그 날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집에 와서 투덜거렸다며. 나는 그 ‘달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다녔으므로 그 아이들의 일상과 고민이 신기했다. 그 때 그렇게 ‘노는 아이’들과 부딪치고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나의 교직생활에 이렇게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

### [‘짱’과 만나다]

학교에 왔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들’에 관심이 갔다. 그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그 중 가장 특별한 아이가 있었다. 2학년 때 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동을 해서 학교를 뒤집어 놓았던 아이. 결국 그 여학생은 전학 갔다고 했다. 학교폭력업무를 맡고 난 후 전교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었다. 폭행, 폭언, 협박 등 응답내용도 다양했다. 마침 그 원망의 대상인 학생이 내 옆 반이고 청소년단체 활동에서 계속 지도를 하게 되어 많이 친해졌다. 각종 활동마다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포도체험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물었다.

“샘, 샘 놀아봤죠?”

“뭐, 조금?”

“오토바이 타봤어요?”

“어. 뒤에서 타봤지.”

“나는 노는 여자랑 사귈거에요.”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이 녀석이 다른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이므로 내 곁에 많이 머물수록 다들 좋아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다. 결국 아직 어린 초등학생일 뿐이었다. 조금 빨리 영상과 성인문화에 노출된.



아래의 글은 동아일보에 실었던 이 아이에 대한 나의 글이다.

“선생님이 한 번 들어가봐요…… 꽤 오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름방학 영어캠프 마지막 날, 캠프 기간 중 준비해 온 영어드라마 공연을 앞두고 시청각실을 분주히 오가던 담당교사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이 만만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화내고 있어? 뭐라고 했느냐니까!”

“제가 언제요? 뭐가요?”

시청각실 안에서 목소리 걸걸한 학교 ‘짱’과 젊은 여교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힘이 세고 겁이 없어 전교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남학생이다.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아이 중 한 명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다. 연습 도중 ‘짱’이 가지고 놀던 공을 교사가 가져갔고 ‘짱’은 옆에 있던 남학생에게 ‘이○○(교사이름) XX 재수없어! 이거 말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했다. 그 장면을 본 여학생이 그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일어난 일이었다. ‘짱’은 내 옆 반 학생으로 청소년단체를 함께 하며 가까이 지내온 터라 시청각실 안으로 들어가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데리고 나왔다. 교실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 물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이가 화가 많이 났네?”

“선생님이 제 공을 뺏잖아요!!!”

“그래? 진짜 열 받았겠다. 그 선생님이 우리 ○○이 공을 왜 뺏으셨어?”

“제가 시청각실에서 공을 계속 가지고 놀았어요.”

“정말? 공 가지고 놀 수도 있잖아. 네가 화가 날만 하네!”

“……쉬는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갑자기 애들 앞에서 공 뺏겨서 많이 속상했겠네. 화가 많이 나서 선생님 욕도 한 거야?”

“네…….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대답을 하며 극도로 흥분하여 씩씩대던 ‘짱’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다. 특히 고학년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행동의 시비를 가릴 줄 안다. 알고 있지만 화가 나는 것이다.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다. 내가 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계속 알려주고 감정을 읽어줘야 한다. 마음의 준비 없이 공을 뺏겨서, 내 잘못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던 것을 읽어 줘야 된다. 아이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갑작스런 강요와 강제, 억압을 싫어한다.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판단할 시간을 주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공을 내놓는다. 이해와 납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가 난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자신의 화난 모습을 묘사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인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화를 조절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짱’이 우리 반을 찾아왔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힘



들다고 말했다. 그러면 내가 ‘짱’ 편에 서주겠다고,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에게 원인을 물었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짱’ 편에 서려고 하는 친구도 함께 찾아 옆에서 힘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중학생이 된 ‘짱’은 지금도 가끔 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샘, 샘은 제 편이시죠?”

얼마 전에도 중학교 시험기간은 일찍 끝나서 좋다며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교실에 있던 초코과자 한 상자를 주자 무척 좋아하며 뛰어 나갔다. 교사가 되자, 내가 몰랐던 나의 능력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법’이다. 이전까지 좋은 교사란 바르고 모범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 정의와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라 일컬어지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 [2012, 특별한 한 해를 시작하다]

서두에 이야기 했던 △△이라는 녀석을 ◇◇이네서 찾았을 때 그 ‘패밀리’ 중 한 살 어린 녀석이 있었다. 그 녀석은 까맣고 작고 다부진 녀석이었다. 그 날, 내가 △△이를 엄청 혼낼 때, 옆에서 별을 서고 있었다.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다고 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조용히 별을 섰었다. 그리고 2월 말, 새 교실 정리를 하려 학교에 왔다가 학교 지하주차장 통로로 나오는 녀석을 만났다.

“너 뭐하고 나오는 길이냐?”

“그냥 누구 좀 만나고 나오는데요.”

“누구?”

“□□요.”

“손 이리 내봐.”

손에서는 담배냄새가 풀풀 났다.

“넌 뭐냐?”

“저요? 형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나? 니 동생 담임 될 사람. 들었으면 이제 손 좀 빼고 고개 똑바로 하시지.”

지금도 그 아이의 놀란 얼굴이 생생하다. 옆에 서 있던 제작년 제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2월 말, 새학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연수에 참석했다. 매우 유익하여 만나는 교사마다 강력추천하게 되는 연수였다. 이 연수를 참석하며 자진해서 맡게 된 ‘골초인 특별한 내 제자’가 있는 6학년 3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급경영’ 준비를 시작했다. 즐겁고 활기찬 교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나도 한 해를 무사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다보니 욕심이 많이 생겨 평범하진 않았다. 한 달



에 한 번은 체험학습 나가기, 봉사활동 도전하기, 학급통신 한 달에 한 번 내보내기, 모둠일기 쓰기, 티볼리그 전에 참여하도록 꾸준히 연습하기, 한 달에 한번은 요리하거나 행사하기 등 수업 외의 활동들을 많이 계획했다. 실제로 지금 돌아보니, 계획한 대로 많이 실행했다.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 ‘특별한 내 제자’는 경남 양산에서 살았었다. 형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문제행동을 많이 해서 동생은 할머니가 계신 이 곳으로 전학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학기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6학년을 만나 본인의 기술을 전수(?)해 주며 패밀리에 가담했다. 그런데 차에 형이 병학을 맞아 서울로 왔고 서울맛을 들여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시점에 등록도 안 하고, 교복도 안 샀다고 했다. 그리고 3월 2일 개학. 그 녀석이 사고를 제대로 쳤다. 3월 1일에 옆 반 학생을 폭행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학교에 온 피해학생은 작고 마른 남자아이였다. 이후 15일간 그 녀석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과 후에 운동장과 지하주차장 근처에서 그 녀석과 중학생 패밀리를 보았다는 아이들의 목격담만 들려왔다. 그러면 차에 학교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출동, 생활부장님과 협력하여 도망의 달인인 녀석을 붙잡았다. 교실에 데려와 생활부장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 녀석은 내가 무섭고 폭행한 것도 혼날까봐 학교에 오기 싫었다고 얘기했다. 단 둘이 교실에 남아 이야기를 좀 더 했다. 학교에 오기 싫은 이유, 지금의 나의 마음, 그리고 바라는 점들.

“선생님이 왜 니 담임이 됐을 거 같아? 내가 너 맡겠다고 신청했는데.”

“몰라요.”

“너랑 잘해보려고. 너 아직 잘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

“학교 오기 싫으면 대안학교 한 번 가볼래?”

“형들이 무서운 데라고 하던데요.”

“무서운 데 아니야. 한 번 같이 갔다가 이상하면 억지로 가라고 안 할게.”

“알겠어요. 한 번 가볼게요.”

그렇게 어렵게 갔던 대안학교는 이 녀석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교실에 온 이를 만에 어떤 학부모한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그 학생이 저희 아들한테 5000원을 달라고 했대요. 아들은 무서워서 학교도 가기 싫대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 알면 아들을 더 괴롭힐 것 같으니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없을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아이랑 같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

서너 명이 손을 들었다. 학교폭력에 관한 나의 생각을 쓰는 글쓰기에서도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 녀석을 맡겠다고 말했던 때부터 학급경영과 학교폭력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도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았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다. 옆 반 학생 폭행사건 외에도 중학생 폭행 가담건으로 경찰서에서 신고접수공문이 오고, 경남 양산 경찰서에서도 그 아이에 대해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늘 학교담당경찰관과 통화했고, 교육청 담당 경찰관도 만나고,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러던 비오는 어느 날, 교장님과 상담 중에 ‘자신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대들었다는 전화를 받고 교장실에 황급히 그 아이를 데리러 내려갔다.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함께 우산을 쓰고 학교 앞 커



피전문점으로 갔다. 주문을 하고 소파에 앉아 얼마간 침묵을 지켰다.

“얼마 전에 뻥 뜯은 건 어디에 썼어?”

“떡볶이 사먹고 피씨방 갔어요.”

“떡볶이는 이제 선생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줄게. 언제든 얘기해. 대신 다른 애들 뻥 뜯는 건 안 돼. 그럼 피씨방에 안 가려면 어떡해야 할까?”

“할머니가 돈 벌어서 사주신대요.”

“아빠한테는 가기 싫어?”

“아빠는 돈도 잘 안 주고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밥도 하라 그러고.”

“아빠는 얼마나 힘들겠냐. 엄마도 없이 너네 형제 키우시려면.”

“여자 있어요.”

“너네한테 잘 해주셔?”

“네.”

“근데 왜 거기 있기 싫어?”

“결혼하면 엄마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면 되잖아. 엄마도 세 살 때 나가셨다며.”

“3학년 때까지는 얼굴 봤는데요.”

“그 이후로는?”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엄마도 엄마 인생 찾으시러 가셨겠지.....”

“결혼 했대요. 그래서 이사 가고 폰 번호도 바꿨나봐요.”

“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쨌든 엄마라고 부르기 싫어요.”

“그래그래. 선생님 친구 중에도 새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게 된 경우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닦고 있던 녀석이 자신의 가정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혼날 줄 알았던 상황에서 커피전문점에 와 앉아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니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미안했나보다. 다시 한 번 질해보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바로 얼마 후, 우리 반 남학생의 돈을 또 갈취하고 협박했다. 옆 반 여학생에게도 돈을 달라고 했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에도 역시 사람의 습성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쳐 음이 아니라 그런지 옆에 계신 동료교사들의 걱정보다는 덜 상처받고 덜 좌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그 아이 때문에 등하교길을 두려워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싸우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홍분해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던지 전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교内外의 여론 덕인지는 그 녀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다른 반 아이들도, 다른 학년 아이들도 기뻐했다. 전학 가는 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답답했다.



##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세위 학폭위’ 활동을 시작하다]

그 아이 없이 우리 반은 2월부터 내가 준비한 여러 가지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우리 반은 다른 반 아이들 보다 훨씬 학교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래서 활동을 운영하기가 수월했다. 이에 더하여 학년 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되기 직무연수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법들을 익혔고 그 중 우리 반에 적용할만한 거리들을 찾아 바로 도입해 보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 썼던 글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문가과정 60시간 연수’라는 공문이 왔다. 지체 없이 신청했다. 이미 수차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맞닥뜨려 많은 고민을 해 왔던 터라, 이참에 제대로 배워보자 했다. 연수 강의는 상담센터소장, 피해학생 학부모회장, 변호사, 대안학교 교장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전문가들이 맡아 매우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다.

연수를 받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연구소의 문재현 대표님의 ‘평화샘 프로젝트’였다. 이는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적용 시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었다. 교실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동조자’, ‘소극적 조력자’, ‘방관자’, ‘방어자’, ‘소극적 방어자’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할극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각 역할을 맡아 일반적인 경우를 해 보고, 다른 역할들이 ‘가해자’로 변했을 때를 연기 해 본 후, 모두가 ‘방어자’의 역할을 했을 때를 연기하는 것이다. 실제 교사들도 연수 중 역할극을 했고, 나는 ‘피해자’의 역할을 맡았다. 대본에 의한 연극임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나에게 한 마디씩 던질 때 움츠러들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장 학교로 돌아가 각 역할의 이름표를 만든 후, 아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팀을 편성했다. 평소에는 역할극을 할 때 역할 분담을 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데 이번에는 내가 관여했다. 피해자의 역할을 얹지로 맡기는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그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 역할 해 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요! 저요!”

대부분의 6학년 아이들이 ‘가해자’ 역할을 희망했다. 충격적이었다.

겨우 역할을 정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역할극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훌륭하게 역할을 소화해 냈다. 역할극을 끝내고,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나눴다.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음... 처음에 ‘가해자’, ‘동조자’, ‘조력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방어자’들이 늘어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가해자’를 혼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



도 들었어요.”

“훈내주고 싶었어요?”

“네. 연극인데도 ‘가해자’가 너무 막고 싫었어요. 여러 명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히히.”

“가해자’ 역할은 어땠어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같이 뭐라고 하니까 힘도 생기고요. 근데 ‘방어자’들이 생기면서 ‘피해자’편을 다 드니까 짜증나고 화가 막 났어요.”

생각보다 진지한 대답을 한다.

“‘방관자’ 역할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해자’가 무서웠어요. 혹시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고 의미 있는 친구들의 대답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 날, 글쓰기장 주제는 ‘모두가 방어자가 되려면?’이었다.

며칠 뒤, ‘방관자’역할을 했던 마르고 여린 여자아이가 점심시간에 뛰어 들어왔다.

“선생님! 저희가 지켜줬어요!”

“응? 뭘? 누굴?”

“성운(가명)이가 옆 반 승혁(가명)이한테 심한 장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 저희반 애들이 다 가가서 하지말라고 말하고 성운이를 데려왔어요!”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으로 승전보를 울리는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행복하고 당당한 ‘방어자’의 모습이었다.

역할극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모두 함께 참여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본청에서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학습동아리 공모’ 공문을 보았고 이 역할극 진행을 위한 계획서로 신청했다. 지금껏 동아리 운영비로 아이들과 재미있는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sup>1)</sup>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예방책의 하나인 ‘멈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다. 그 연원은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사회전체가 괴롭힘 근절 실천운동(Manifesto Against Bullying)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학자 올베우스(Olweus)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실시 후 2년 만에 학교폭력이 5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후 영국, 일본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멈춰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목에 편성하여 가르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폭력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출처] 현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예방책- ‘멈춰’ 프로그램 (홍익교육연구회) | 작성자 택선



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핵심은 ‘4대 규칙’, ‘멈춰 제도’, 그리고 ‘역할극’이 포함된다.

◦ ‘4대 규칙’은

-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울 것이다.
-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이다.
- 만약 누군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 ‘멈춰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이 ‘멈춰’라고 외치면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멈춰’라고 외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 역할극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역할을 바꾸어 상황극을 실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할극을 도입함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 그보다 전에 해야 할 일은 교실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조력자든, 동조자든, 방관자든, 방어자든 간에. 그것을 알고 시작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방어인식이라고 생각하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교육하고 싶은 부분은 본능을 제어하고 타인의 일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연습’이었다. 연습되지 않은 일은 절대 본능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사실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동아리 운영 신청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 학급 전체로 운영하는 나의 방침은 매우 틀린 것이었으나 2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반 녀석들 중 일부만 데리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틀린 것 같아 함께 시작했다. 다행히 이런 점이 지금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같아 다행일 따름이다. 아이들과 역할극을 하면서 나름 단계에 이름도 붙여보고 각 단계별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다. 나의 마지막 목표는 항상 ‘공유’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순서와 이름이 있어야 했다.



단계		아이들과 해야 할 일
Survey	1단계	아이들과 친해지기(친구관계 조사표, 학생들의 권력관계 파악 등)
Practice	2단계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 하기
	3단계	[가해자, 피해자, 조력자, 동조자, 소극적조력자, 방관자, 방어자, 소극적 방어자]에 대한 설명과 적용하기
Altogether	4단계	역할극 실행하기(평소 가해하는 학생을 피해자로 역할 선정)
	5단계	역할극 실행(1-1, 1-2, 1-3)한 후, 소감 나누기
Share	6단계	역할 바꾸어 다시 실행하고 소감 이야기 하기(매우 중요함)
	7단계	UCC영상 만들어 학교에 배부, 교사연수, 학부모에게 문자전송 및 사진이 들어간 학급 통신 배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역할을 바꿀 수 있을까 코팅한 이름표 대신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런닝맨 티셔츠’였다. 이 티셔츠를 이용하면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역할도 쉽게 구별될 수 있어 효과적일 것 같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다.



런닝맨 티셔츠

이름표들

역할극만 하기에는 동아리활동이 심심한 것 같아 교실 내에서 동아리를 더 나눠 보기로 했다. 의견을 받아보니 아이들이 ‘신문제작팀’, ‘대회운영팀’, ‘홍보팀’, ‘UCC제작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적당히 인원수를 나누어 희망하는 동아리로 들어가게 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역시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내가 지도하는 것보다 더 잘해냈다. UCC 팀은 사진을 열심히 찍어 와서 영상편집은 도와주었고, 신문제작팀은 십자말풀이를 직접 만들어내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컬러복사까지 맡기는 열정을 보였으며, 대회운영팀은 자율적으로 회의하여 대회기획부터 포스터(?)제작 및 시상까지 진행하였다. 홍보팀은 남자아이들로 구성되어 처음에는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다가 결국 시간만 보내고 여자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점을 칭찬해 주고 싶다. 운영비도 많고 해서 이것저것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사줬다. 대회상품도 좋은 것으로 사고 아이들 간식도 원 없이 사줬다. 열심히 참여하는 반에게는 반 전체 간식도 주었다. 저학년들도 많이 기대하고 좋아한다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해주니 아이들이 더욱 신나서 열심히 한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서로 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의법정도 한 번 했다. 판사복



도 빌리고 의사봉도 샀다. 옆 반 아이들이 물어본다.

“선생님 반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반은 부자 반이다.



UCC 제작용 학교폭력예방 문구 사진



교장선생님 사진도 찍어온 용감한 녀석들



우리반 전체 한 마음으로 사진찍기



대회에 참여한 각 학년 학생들의 작품



신문제작팀이 전교생에게 나눠 준 신문



모의법정을 위해 빌린 판사복

신문은 2호까지, 대회도 2회까지 진행되고 있다. 동아리 운영은 졸업 전까지 해보려고 한다. 고생한 아이들과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할 것이다. 동아리 운영비가 있어서 행복한 2학기를 보내고 있다. 지나가던 5학년 학부모도 말한다. ‘6학년 3반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재미있겠다’고. 사실 난 별로 한 것이 없다. 실제로 동아리 활동에서의 내 역할도 가장 최소한이었다. 내 역할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 가는 아이들을 발견하다]

우리 학교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각 반별로 다녀왔다. 반별 수학여행에 스포츠강사가 다 참여했는데 각 반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3반은 애들 분위기가 가장 좋았어요. 원래 다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잖아요. 자기 친한 애들 아니면 안 챙기고. 근데 3반 애들은 다같이 다녀요. 무리 지어 다니지 않고. 쳐지는 애들도 챙겨주고. 그게 가장 좋았어요.”

나에게는 다른 어떤 칭찬보다 값지고 특별한 칭찬이었다.

어느 날은 옆 반의 덩치 큰 여학생이 우리 반의 약한 여학생에게 돈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있던 그 덩치여학생의 친구 중 하나인 우리 반 학생이 ‘방어자’ 역할을 하고 내게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 작년까지 과격한 언어와 행동으로 여러 선생님께 눈총을 받던 여자아이인데 알고 보면 집안사정이 매우 특별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를 잘 따라서 전학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반에 잘 다니고 있다. 가해자일 때가 많았던 녀석이 오히려 방어자로 성장한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비록 우리 반이 체육을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으며, 특별한 재주를 가진 아이들도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려하고 다독이며 함께 나아갈 줄은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게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 해 줄 수 있는 일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요즘 우리 밖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도 되 듯하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나, 대회나, 뉴스가 나오면 남들보다 훨씬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다 참여해 보자고 먼저들 말한다.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다. 얼마 전 업무관리시스템의 통합게시판을 보다가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캠페인송 부르기’나 ‘플래시몹 따라하기’ 행사를 알려주니 아이들이 먼저 나에게 참여해 보자고 설득했다. 며칠 동안 플래시몹을 열심히 따라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보았다. 이 글을 써 나가는 중에 우리 반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월드비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했다.

The screenshot shows a competition result for Changchon Middle School in the 6-3 category. The result is highlighted with a black rounded rectangle. Below the results, there are Korean hand-drawn symbols representing the letter 'G'.

학급참여부문

일반참여부문

플래시몹 선정작품

2주

서울개중중 1~10

서울수명초 1~3

안양별암초 5~4

창천초 6~3

서울삼육중 2~1

신평중 3~5

서울영도초 6~3

서울곡초 3~7

1주

별암초 5~3



위 사진처럼 2주차 선정 작품이 되어 피자쿠폰 10장이 어제 학교에 도착했다. 반짝이는 파란봉투 10장과 기념품이 가득 담긴 소포를 받았을 때 가슴 벅찬 감동은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 반 아이들이 추는 것을 보더니 옆 반 아이들도 참여하자고 담임선생님께 말했다고 한다. 요 며칠 옆반에서 열심히 캠페인송이 훌러나온다. 사실 약간은 동학년 선생님들께 죄송하기도 하다.

어제는 공문을 확인하다가 ‘블루밴드 캠페인’을 보았다. 학교폭력예방 서약을 받고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캠페인이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니 한 목소리로

“한 번 해 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외쳤다. 고마운 녀석들이다. 동학년 선생님들께도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전해주면 다들 놀라신다. 적극적이고 무엇이든 해보려는 자세가 훌륭하다고. 다음 주에는 계획서를 써보려고 했더니 정말 훌륭한 우리 반여학생들 왈,

“선생님, 저희가 계획서 한 번 써볼게요.”

라고 하며 방과 후에 교실에서 열심히 회의를 한다. 아이들이 제안한 ‘길거리에서 플래시몹으로 홍보하며 학교폭력예방 서명을 받는 행사 계획’.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 두근거리고 설렌다.

우리 반 이름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의 줄임말을 써서 ‘아세위’이다. 나의 교육관은 학교 오는 것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이끄는 것이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커 나가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어느 시점에 사랑과 배려와 나눔이라는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당장 학교폭력을 부르짖는 것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함께 나눈다면 학교폭력예방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배운 한 해였다. 내가 개입해서 가르치려드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열어주고, 길을 제시하면 그 문에 들어가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깨달은 값진 한 해였다.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만큼, 아이들도 교사에게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슴 벅찬 한 해였다. 그간 다른 선생님들은 일부러 그런 아이들 맡아서 힘들지 말라고 조언했었다. 너무 개입하다보면 다친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그럴 땐’ 한 적도 더러 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학급경영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경험담을 전달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바라는 바는, 내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젊은 날의 그것과 같지 않은 때에 이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내가 나를 위해 움츠러들면 안 될 것이다. 비록 다치더라도, 혼들리더라도, 젖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야 할 것이다. 후일의 내가 나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꿈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내가 위선적 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년 뒤에 수학여행 갔던 테마 그대로 술 한 상자 들고 다시 가보자는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 때의 나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 자살도구를 들고 찾아온 학생을 보호한 배움터 지킴이

홍영명

### I. 개인 현황

성명	홍영명		현소속	부산 장전중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3 코오롱(A)108-505			
연락처			이메일	hongall21@hanmail.net
주요이력	소속	기간	활동내용	직책
	장전중학교	2007.3월~2012.10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 II. 본문

‘배움터 지킴이’라는 명찰을 달고 남자 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6년째 해 오고 있는 퇴직 경찰관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서 은퇴 이후의 학교봉사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목적 달성이 쉽지만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교내 성폭력, 성추행,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력이 교내까지 미치지 못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시간이나 인력면에서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 하고자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운용하여 교내 순회, 점검하므로 예방, 근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움터 지킴이는 어디까지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기희생과 청소년의 사랑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가며 학생의 생활습관이나 은어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효율적인 지도가 된다.

나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올바르도록 지도하는 지속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눈에 띠는 족족 교육을 하는데 배움터 지킴이에게 때로는 전체 강의 시간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1학급을 점검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등교 후 담임의 학급모임이 끝나면 정규수업 시작 전 10분간의 자습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한 교실에 들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최근의 사례를 들어서 짧게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면 내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심각성을 고지하고, 신고 시 피해자 보호대책 등을 강조한다.

물론 가해학생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교양을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 ○ ‘2009년 모월 모일 수요일.

2교시가 끝난 시각. 복도는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로 북새통이다. 장난이 보편적인 수준을 넘는다. 3층 교실, 화장실, 옥외계단을 순회하며 뛰는 학생을 제지하기도하고 꾸짖기도 하며 5층까지 오르면 실내 먼지를 양껏 마시게 된다.



수업시작 벨이 울려도 한동안 복도는 늦게 교실로 들어가거나 책을 빌리려고 기웃거리는 학생으로 소란스러운데 3층 배움터 지킴이 상담실 앞에서 얌전하고 차분한 2학년 ○○이가 멈칫거리는 것이 평소보다 뭔가 달라 보인다. 3년차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눈치가 어느 정도수준에 오른 거다.

“○○아! 니 와 수업에 안 들어 갔노?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넘겨짚었다.

“.....”

묵비권 행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건’을 예고한다. 안 좋은 사건을.

“○○이가 지킴이 샘한테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인데.....”

“샘 예! 드릴 말이 있습니다”

예감이 별로다. 안 좋은 예감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묵묵히 고개 숙인 ○○이에게 말문을 열 것을 유도해 본다.

“와 그랬노?”

내가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지만 ‘무슨 할 말이 있나?’라는 말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는 의도로 한 발 앞선 질문이다.

일단은 ‘왜?’라는 질문으로 말꼬를 터야 했다.

“샘 예! 이거.....”

주머니에서 날이 퍼런 커트 칼을 꺼내 놓는다. 섬뜩하다. 영문은 모르지만 일단 칼을 접수하고

“그래. 고생했다. 이야기로 할래? 글로 쓸래?”

‘이 칼로 무슨 짓을 했을까? 가해? 피해?’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간다.

“샘 예! 친구들이 괴롭혀서 자살할라고 매점에서 칼을 샀어예. 화장실에서 손목을 자르려고 몇 차례..... 엄마생각이 나서 못 했어 예. 그런데 저번 폭력예방 교육 때 지킴이 샘이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리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샘한테 이야기나 하고 보자고..... 엉엉엉”

‘휴~! 섬뜩하네! 우째 이런 일이.....’

뛰는 심장을 누르고 애써 태연을 가장하면서

“인석아! 칼 사기 전에 와야지. 그래 이야기 해 봐라 샘이 뒤틀 일체 없도록 책임질게”

원 손목에 벌까 말까 망설인 두 줄의 ‘주저흔’이 붉게 보인다. 시원한 주스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폭력을 당한 내용을 기록토록 했더니 두 장의 A4용지가 꽉 차도록 맷한 한을 토해냈다. 괴롭힘 수법도 다양했지. 다섯 친구들이 돌아가며 ‘학용품, 책 감추기’ ‘5층에서 창밖으로 필통 던지기’ ‘1층 매점까지 과자 심부름시키기’ ‘장난을 위장한 때리기’ ‘돈 빌려 안 갚기’ ‘욕설과 협박의 문자 보내기’ ‘체육복 빌리는 심부름시키기’..... 학교폭력의 교본을 보는 것 같다.

“언제부터 개들이 니를 괴롭혔노?”

“1학년 때부터인데 2학년 반 편성 때도 한반이 되고 떨어진 놈도 가끔 찾아와 괴롭히고.....”

놀라운 것은 ○○이가 거명하는 가해학생 대부분이 성적이 좋으며 얌전하고 담임이나 지킴이에게 한 차례도 지적을 받거나 말썽을 부려 눈에 띈 사실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이다.

“○○아! 그 녀석들을 죽이고 싶도록 밀고 니를 지켜주지 못하는 담임 샘이나 지킴이 샘이 원망스럽제?”

“.....”



“지금 속이 시원하도록 다 털어 놔라. 지금부터는 샘이 책임질게. 알았지?”

“예”

대답소리가 작은 것으로 봐 아직은 확고한 신뢰가 없어 미심쩍나 보다.

“내가 폭력예방 교육할 때 친구에게 당하면 언제나 샘을 찾아 오라��는데 와 안 오고 혼자 고생했노?”

“……”

“개들이 못 오게 방해하더나?”

“담임이나 지킴이 샘에게 밀하면 죽도록 패겠다고 해서……”

‘아! 인석이 오랜 기간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쫓쓰쓰’

피해 진술 내용으로도 상황이 심각하여 생활지도부장과 담임이 속의를 하여 가해 학생을 상담실에 전부 소집했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술서를 쓰라고 했더니 모두들 반응이 ‘뭐! 별것 아닌 장난 친 것 가지고 왜 이리 소란을 떠느냐’는 표정으로 반성이나 돌아 올 파장을 전혀 생각도 없이 저희끼리 농을 하며 희희낙락하는 게 아닌가.

그 중에 제일 많이 괴롭힌 학생에게

“△△아! 뭐 땜에 ○○이를 괴롭혔노?”

“괴롭힌기 아이고예, 장난으로 그랬어예.”

“머시라! 장난이라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걍 그랬어예”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대답으로 여럿이 집단으로 괴롭히다 보니 점차 더 농도가 짙어지고 재미가 붙고 더구나 반항이나 고자질도 하지 않으니 그 횟수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오후에 가해 학생의 부모들을 전부 불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들의 태도였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반성하여 피해학생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다른 다수의 어머니는 저희끼리 소곤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으니 ‘우리도 학생 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며 자랐지. 학생들이야 다 그렇고 그렇게 자라는 것을 피해자가 너무 엄살을 부리고 학교에서도 부하뇌동 하여 사건도 아닌 것을 별스럽게 침소봉대하느냐’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들이 잘못하여……’라는 반응이었다.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제일 모른다.’고는 하지만 보호자의 자세가 이러니 부모들의 꾸짖음으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리라고 바라는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까지 든다.

생활지도 부장이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과 피해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내용, 회복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가해학생들이 교직에 따라 받아야 할 교내봉사 등 처벌수위를 말하니 그 표정들이 뜨악하여 매우 억울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받아야 하는 ‘학교폭력대책회의’의 처벌 정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학칙에 의한 징계 내용이 우리 애의 생활기록부에 올려야 합니까? 별다른 악의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모가 개인적으로 입을 열었지만 사건을 통지받고 가해 부모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가해학생 부모들을 대표해서 어렵게 발언을 했을 것인데 피해학생의 보상과 심리치료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식이 받아야 할 불이익만 마음에 걸렸으리라.

지금까지도 사건의 중차대함을 못 느꼈다고 판단한 생활지도부장이 매우 엄한 표정으로 “장난요? 그런 장난을 1년 넘게 재미로 했다고 봅니까? 한 학생이 얼마나 긴 세월 마음고생을 했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자! 어머니! 어머니자식이 칼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용돈을 갈취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학교가 시끄럽게 되지 않았을까요? 피해학생 부모들은 가해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오히려 가볍게 선처를 부탁하는 형편인데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욧!”

언성을 높이니 그제야 고개를 숙인다.

가해 학생들은 교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았지만 뭔가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배움터 지킴이가 나쁜 일을 전부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 교사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도 언제나 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홍보와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사건이었다.

이후 3학년으로 졸업할 때까지 수시로 불러서 확인하고 점검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도 가해학생들과도 사이는 원만했고 더 이상의 괴롭힘 없이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어 매우 밝은 학교생활을 했다.



## 편집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02-2100-6978

오석환 | 학교지원국장

윤소영 | 학교폭력근절과장

박현정 | 학교폭력근절과 사무관

최지웅 | 학교폭력근절과 사무관

본 우수사례집의 PDF파일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stopbullying.or.kr](http://www.stopbullying.or.kr)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모음집

제 2 회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작

발행일 2012년 11월 30일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http://www.mest.go.kr)

인 쇄 연화디앤피 02) 2269-8620